1 9 6 8 2 0 1 8

사 진 과 함 께 보 는 대 한 민 국 흉부외과 역사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YEARS





사 진 과 함 께 보 는 대 한 민 국 흉부외과 역사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Pictorial History and Pioneers of Korean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Foundation of the Society-

흉부외과여 영원하라

- 박국양 -

대

한

흉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아들딸들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손을 맞잡고
동해의 저 푸른 바다위로 떠오르는
50 주년의 태양을 맞이하자

한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심장을 부등켜 안고
우리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거친 대지위에서
우리의 후배들이 꿈꾸어갈
희망을 노래하자

흥부외과의 자랑스런 형제자매들이여 그대들의 거친 손으로 이른 봄에 심었던 애어린 심장과 폐의 새싹이 새벽 어둔 광야의 대지를 뚫고 나와 햇빛을 받고 물을 마시고 거친 바람을 이기고 50년 동안 푸른 생명의 가지위에 붉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자

장

부름을 받은 선교사처럼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온 너와 나
숙명처럼 흉부외과라는
사명을 받고
혼자 걷는 사막처럼 외로웠던
간난의 긴 터널을
오직 보람과 긍지의 힘으로
지나온 우리
이제는 아름다움이 된
그 과거를 추억하며
한 그늘 아래 모여
서로를 눈물로 안아주자

심었을 때의 처음 고통을 기억하자 이른 새벽 미명의 어둠을 기억하자 때로는 부등켜 안고 때로는 서로의 거친 손을 만져주며 먼훗날 둘러앉아 같이 나눌 열매를 소망하며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쳐주며 쓰러질까 부러질까 보살피던 원로들의 흉부외과를 우리 모두 기억하자 장엄한 새벽 깊은 어둠속의 세미한 한줄기 빛이 이제는 횃불이 되었고 한방울 한방울 떨어지던 샘물은 이제 폭포수가 되어 쏟아진다 우리 축제의 이날 그 횃불을 춤추고 폭포수에 온몸을 적셔보자

관

혈관을 흐르는 검붉은 피와 땀은 동물실험실에서 수술실에서 의료봉사의 현장에서 불굴의 의지로 대지를 적시고 저 높은 산 가장 높은 곳에서 선홍색 깃발이 되어 휘날린다 우리 그 깃발 아래 모여 새로운 50년의 선봉이 되자 관객이 되어 주인공을
바라보기만 하던 한사람
고도를 기다리던
사무엘베케트의 세사람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을 노래하던
박인환의 우리들이여
이제 우리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통일의료의 고도가 되어
이른 봄을 깨우는
살여울의 갯버들처럼
새로운 역사의 표지를 노래하자

외로웠던 시절 버려진 돌맹이처럼 고집불통처럼 환자곁을 홀로 지키던 수많은 밤들 배고픈 새벽아침 오직 이길 뿐이라고 외치고 달리던 외로웠던 마라톤 뛰다가 뛰다가 더 뛸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늘만 쳐다보았던 그때의 절망을 이제 우리 서로의 손을 잡고 희망으로 바꾸자 '과거는 아름답고
현재는 힘들고
미래는 불안하다' 라고
누군가 말했었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아침을
꿈꾸고 노래한다
나는 너의 손을 잡고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르고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르며
두손을 잡고 우리가 되어
걸어가기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가 되기에
이제 우리 같이 불러보자

흉부심장혈관외과여 영원하라





34

40

42

45

47

50



20	우리나라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
22	국내·외 폐수술의 시작
25	국내·외 심장수술의 시작
27	우리나라 일반 흉부외과의 시작 - 고병간 교수
30	우리나라 심장외과의 시작 - 한격부 교수

한국 의료발전에 밑거름이 된 스칸디나비아 3국과 인도,	54
이탈리아의 의료지원 이동외과병원 (MASH, Mobile Army	57 59
Surgical Hospital) 한국전쟁과 Dr. Frank C. Spencer	
한국전쟁에 파견된 미국 흉부외과 의사들의 역할	64
한국전쟁 당시 덴마크가 보낸 최첨단 병원선 유틀란디아(Judlandia)호	
한국전쟁과 군진의학	

(Military Medicine)

Minnesota project와 Dr. Walton Lillehei Dr. George Schimert와 서울의대 흉부외과 스칸디나비아 3국에 의한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외국 흉부외과 과장들의 업적 서독 적십자병원

■ 흥부외과의 길을 열다 ■■한국전쟁과 외국흉부외과 의사들의 역할









전주 예수병원	78	심장판막 수술의 시작	108	흉부외과 학회의 창립
대구 동산병원		- 세브란스병원 홍필훈 교수	111	심도자 검사의 시작
광주 기독병원 (제중병원)	83	3 저체온법을 이용한 최초의 개심술	112	판막수술의 역사
부산 메리놀병원		- 경북의대 이성행 교수	114	식도외과의 발전
부산 침례병원	87	교과서 제작에 앞장서다	116	심폐기와 심정지액의 도입
		- 이찬범 교수의 강의록, 홍필훈 교수의 저서	120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시대의 개막
	92	폐수술의 개척자		- 홍승록 교수
	96	- 유승화 교수 선천성 심장병수술의 시작	123	흉강경 수술(VATS)의 시작 - 김광호, 이두연 교수
		- 김영섭 교수	126	심장이식과 심장·폐이식
	97	심폐기를 이용한 최초의 개심술 성공 - 서울의대 이영균 교수	130	국내 최초의 폐이식 - 이두연 교수팀
	102	폐식도외과의 발전	132	하이브리드 수술의 도입
		- 국립의료원 유회성 과장	134	국내 최초
	104	한양대 흉부외과의 주춧돌 - 김근호 교수		Bridge to Transplant - 장병철 교수
	105	심근보호의 연구 - 가톨릭의대 이홍균 교수	139	에크모(ECMO)의 도입과 상용화
			143	로봇수술의 시작
			144	국내 첫 생체 폐이식 성공

IV.

선교 병원의 설립과 초창기 흉부외과 수술 V.

한국전쟁 후 - 우리나라 흉부외과 의사들의 역할 WI.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발전







148	국제 학술대회 유치	162	ASCVS의 창립 배경	176	새세대심장재단
151	흉부외과 백서출판 및 역사기록위원회 발족	163	ASCVS(Asian Chapter)의 학회역사	181	(현 한국심장재단)의 설립 심장병 사관학교
153	흉부외과 전문의의 의사협회 및 정부 산하 기관 활동	164	역대 ASCVS 학회와 한국의 참여	184	- 세종병원 무료순회진료
158	메디칼드라마에 나타난 흉부외과	173	ACTA에서 한국인의 참여	186	밀알심장재단
				187	여의도 순복음교회
				188	구세군의 심장병후원사업
				189	수와진(가수)
				190	속초 김상기 회장의 늘사랑회
				191	뽀빠이 이상용과 어리이보호하

VII.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도약

IX. 심장수술 후원재단과 무료순회진료







194	해외 국위선양의 밑거름이 된	212	전공의 지원자 감소	228	대한민국 흉부외과 연대기
	흉부외과 	215	가산금 제도 도입	238	흉부외과 역대 회장 및
195	가천대 길병원	216	통일을 대비한 흉부외과의		이사장
197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210	역할	247	타임캡슐 저장내용
198	경북대학교 병원	220	우리는 흉부외과 가족	248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199	분당 서울대병원			250	역대 흉부외과 학회
201	서울대 어린이병원				개최연도 및 장소
203	서울 아산병원			255	화보집 - 그림·사진·시·서예
204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263	흉부외과 역사기록위원 명단
205	세종병원 (부천)				0
206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207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X. 봉사의 50년 세월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208209

XI. 흉부외과의 미래 XII. 부록

회장/ 이사장 축사

1968년 5월 18일 창립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2018년 10월 50주년 학술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의학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해온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화보집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화보집에는 지난 50년의 우리나라 흉부심장혈관외과의 역사뿐 아니라, 1900년대 초 대한제국 시대에 행하여졌던 흉부수술, 우리나라 최초의 폐수술 및 심장 수술 등 과거의 흉부심장혈관외과학과 관련된 기록들이 다양한 사진과 함께 수록되었습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재가 이루어 졌으며, 미래의 발전 또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본 화보집은 우리나라 흉부심장혈관외과의 과거의 역사적 사료를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학들이 알고 보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흉부심장혈관외과를 전공하는 우리 후학들이 세계 속의 중심이 되는 흉부심장 혈관외과 의사로서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록물이 될 것 입니다.

50주년 화보집의 발간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기울이신 박국양 위원장을 비롯한 학회역사기록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제 46대 회장 **김기봉** 제 46-47대 이사장 **오태윤**



회장 **김기봉**



이사장 오태윤

복지부장관 축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입니다.

대한흉부심장혈관학회 50주년을 맞아 김기봉 회장과 오태윤 이사장을 비롯한 전체 회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흥부외과는 가장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모든 수술 분야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공의 지원자가 현격히 줄어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루어 낸 이러한 업적은 모두 일선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불철주야 수술실과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애를 쓰는 학회회원 여러분의 자랑스런 성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 심장병 어린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수술을 해주어야 만 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심장병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수술을 해주고 있는 나라로 발전하였으며 대한 민국의 위상을 높임과 아울러 어떤 한류문화사업 못지않는 국위선양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업적은 휴부외과 회원들이 이루어낸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2018년은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간의 대화와 북미 정상대화로 온통 전 세계가 한반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대화와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인도적 측면에서 의료인들의 교류가 예상되고 의약품지원과 치료, 병원설립과 장비지원등이 이루어 질 것이며 결핵환자치료와 심장병치료가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흉부외과에서 다른 어떤 과보다도 먼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학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의료를 주관하는 주무부서의 장관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가장 일선에서 다루는 흉부외과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위원장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입니다.

먼저「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 깊은 날에 창립 기념식과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촌각을 다투는 순간에 생명의 끈을 이어주고자 밤을 지새우고,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수술을 하면서도 환자와 가족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흉부외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흥부외과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힘든 근무환경으로 흉부외과를 지원하는 수련의는 줄어들고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었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중증외상센터 등 외과영역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외과의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회차원에서 꾸준히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특별히 "통일의료"편을 백서에 담는 등 통일에 대한 흉부외과의 향후 미래지향적 역할을 강조하여 국가기간의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앞으로 남북 흉부외과의 역할을 주도하여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위상을 더욱 드높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의 창립 50주년과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가 반세기 역사를 맞이한 흉부외과의 재도약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명 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원로 교수 축사

1968년 작은 빅뱅의 출발이었던 창립총회로부터 우리의 꿈과 의지를 실은 작은 샘물은 이제 장강과 대양이되어 큰 파도를 일렁이게 합니다.

폐수술과 개심술의 개척으로 명예로웠던 우리 원로들을 기억합니다. 6차 아시아 심장혈관외과 학회개최와 세계적 학회로의 거침없는 질주를 해왔던 역대 원로회원들의 의지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폐수술, 선천성·후천성 심질환의 개심술, 암, 결핵, 대동맥, 관상동맥수술의 저편으로 나있는 그들의 발자국. 학회지발간, 전문학회의 창립과 전문의들의 육성 등 거친 바다로 출항으로 한 우리 대한민국 흉부외과호의 지나온 물결은 장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 흉부외과는 급격한 산업화와 GDP상승, 국민건강보험, 의료현장의 불확실성, 전문의 지원감소 등 고독한 거친 파도를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화사회, 4차 산업시대로 들어서는 시장, 국내외의 학문의 융합, 인공지능(AI), 로봇의 시대를 넘어 우리는 전진할 뿐입니다. 지난 50년간 그래왔듯이 향후 50년도 이제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신성한 꿈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50년 후 흉부외과 100주년을 맞아 우리의 자랑스런 후배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선배들이여 당신은 위대했습니다. 당신이 더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50주년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광현 원로 교수

2012년도 초까지만 해도 학회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흉부외과의 역사에 관한 자료는 홍승록 교수가 적어놓은 몇 페이지가 전부였다. 다른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각 대학의 교실에 따로 보관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역사를 한눈에 펼쳐보기가 힘들었다.

당시에 학회 기획위원이었던 본인은 역사기록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일반 흉부분야와 심장혈관분야에 각 각 한명씩 있어야 함을 역설했고 당시 장병철 회장, 선경 이사장이 이에 적극 호응을 해주어 역사기록위원 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흥부외과 역사기록위원회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위원으로 서울대학과 연세대학 등 역사가 깊은 각 병원에서 한명씩 참여를 하도록 했고 세브란스 병원의 이성수 교수가 부위원장으로서 참여하였다. 역사기록위원회에서는 흉부외과 최초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백서(213페이지)를 2015년에 발간하였 는데 애초에 이 백서의 발간목적은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 흉부외과 전공의 부족에 의한 위기감과 어려움을 전달하고자 제작되었다. 따라서 흉부외과 역사만을 다루기 보다는 흉부외과 전공의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중점으로 호소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흉부외과 초창기의 흉부외과의 역사를 순수하게 발굴하고 인터넷시대 이전의 흉부외과 선각자들의 사진자료와 업적기록 등을 조명하는 사업이 더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흉부외과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록위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공유되었고 이에 「사진과 함께 보는 대한민국 흉부외과 역사-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책자가 출판되게 되었다. 물론 여러 대학의 고유한 전통과 역사들을 다 싣지 못하여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믿는다.

그동안 역사기록위원회를 지원해 준 고려의대 선경 전 이사장, 가톨릭의대 심성보 전 이사장, 자료 보완에 힘을 써주신 장병철, 이성수, 곽재건 교수를 비롯한 기록위원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열심히 우리 활동을 지원해준 현 서울의대 김기봉 회장, 성균관의대 오태윤 이사장과 학회의 김정숙 실장, 최방실 대리, 화보 편찬과 벽면전시를 담당한 르베르쏠의 이명희 대표를 비롯한 임태준 차장, 최문선 실장, 형남진 실장, 편집을 맡아준 김미린 팀장, 시화전을 준비해준 푸른들의 조태례 대표와 송주은 대리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사진과 함께 보는 대한민국 흉부외과 역사'의 편찬과 학회 50주년행사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이번 50주년 사진화보집이 흉부외과를 전공하는 후배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됨은 물론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8년 10월 흉부외과 역사기록위원회를 대표하여 **박국양** 역사기록위원장



박 국 양 역사기록위원장



PICTORIAL HISTORY AND PIONEERS OF KOREAN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1968

흥부외과의 길을 열다

- 20 우리나라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
- 22 국내·외 폐수술의 시작
- 25 국내·외 심장수술의 시작
- 27 우리나라 일반 흉부외과의 시작 고병간 교수
- 30 우리나라 심장외과의 시작 한격부 교수

우리나라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

한국 최초로 흉부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는 누구일까? 안타깝게도 바로 을사오적의 한명인 이완용이다. 한 애국 지사의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이완용 암살 미수 사건'을 통해 한국사 최초의 흉부외과 관련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사건은 1909년 12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21세의 청년 이재명은 오전 10시 종현성당(명동성당)에서 벨기에 총영사 주최로 열린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 2세의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이완용에게 칼을 들고다가가 암살을 시도한다. 그를 태우고 가던 인력거꾼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재명의 칼은 이완용의 왼쪽 어깨와 등을 뚫고 폐를 관통했으며 체포되어 잡혀가는 순간에도 이재명은 암살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었지만 이완용의 명을 끊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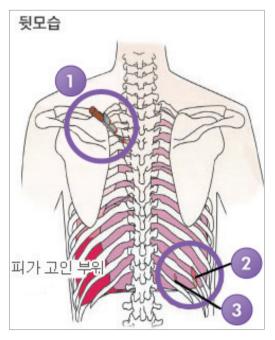
이완용은 많은 출혈로 중한 상태였으나 생명은 유지되었고 당시로서는 대한 제국 최고 의료기관인 대한의원 (1908년 개원.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시계탑 건물)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되었으며 이재명은 사건직후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심문을 거쳐 다음 해에 사형이 집행되고 만다. '이완용 암살 미수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이재명의 칼에 의해 입은 상처와 수술과정이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일본인 의사가 작성한 '감정서'를 보면 '좌견갑골 내측 자창이 폭 7cm, 깊이 6cm 였으며 제 2,3늑간을 자통하면서 늑간 동맥을 절단하여 과다출혈을 일으키고 폐를 손상하였으며 창공으로부터 출혈 및 호흡에 수반된 공기출입이 있었다'고 기술되어있다. 즉 자상(stab injury)에 의한 혈기흉(hemopneumothorax)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창상을 치료하여 회복되었다는 기록과 함께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후 환자의 호흡음이 미약하여 천자술 (thoracentesis)을 시행하였는데 혈성 장액(serosanguinous blood)을 700 mL나 제거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이 러한 기록은 비록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의사에 의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흉부자상과 흉부 외과 수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김원곤. 한국사 최초의 흉부외과 관련의학기록. 대한흉외지 2009:42:813-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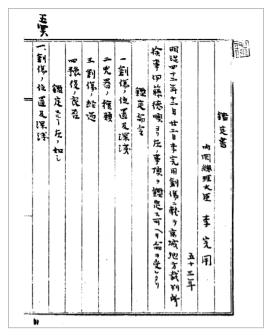




애국지사 이재명(좌측)과 을사오적중 한명인 이완용(우측). 애국지사 이재명이 1909년 12월 22일 을사오적의 대표격인 이완용을 명동성당앞에서 칼로 살해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인해 이완용은 우리나라에서 흉부외과 첫 수술을 받은 환자가 되었다.



김원곤 교수가 위 논문에서 밝힌 이완용의 자상부위와 혈흉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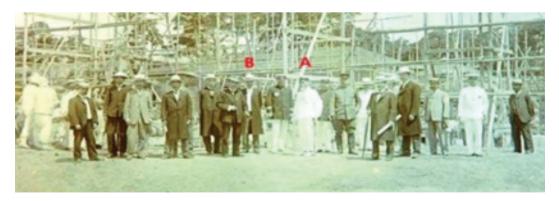
일본인 의사에 의해 작성된 이완용의 상처 감정서의 일부. 당시 이완용의 치료책임자는 대한의원 원장인 기쿠치, 수술집도의는 스즈키고노스케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김원곤 교수 논문 제공).



이완용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대한의원(1908년 개원)의 건립직후 모습. 이완용은 이 건물 제5호실에 입원하였다. 이 시계탑 건물은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대병원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명동성당앞에 설치된 거리석. 이재명 애국지사의 거사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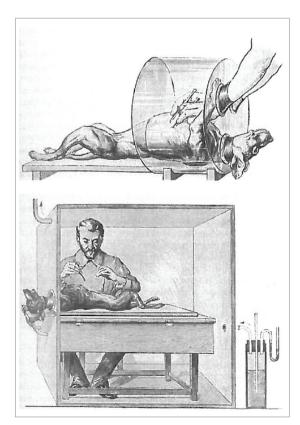
대한의원 착공식 사진. A가 이토히로부미, B가 이완용이다. 착공식에 귀빈으로 참석한 이완용은 병원이 완공된 후 아이러니칼 하게도 애국지사 이재명의 칼을 맞고 이 병원에서 흉부자상 수술을 받고 완쾌되어 퇴원하게 된다.

국내·외 폐수술의 시작

결핵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있었지만 특히 1800년대와 1900년대 초는 세계적으로 결핵의 시대였다. 화학요 법은 1943년 10월 19일에 러트거스 대학교의 셀먼 왁스먼 연구소에서 알버트 샤츠(Albert Schatz)가 처음으로 스트렙토마이신을 발견하고서부터 그 때까지 치명적이던 결핵의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치료제의 개발이 급속히 진전되어 PAS · Isoniazid(INH) 등이 개발되게 되었다. 왁스먼과 그의 연구소에서는 여러 항생제를 발견하였는데, 그 중 스트렙토마이신과 네오마이신은 이 연구소의 대표적인 항생제로 다양한 감염병의 치료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다. 스트렙토마이신은 당시에 결핵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항생제였다.

결핵약이 개발되어 사용되기 이전까지 수많은 결핵환자들은 각혈, 농흉, 호흡 부전 등 폐기능 저하로 서서히 죽어갔다. 1882년 3월 24일 Robert Koch가 Berlin Physiologic Society에서 폐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전염성질환이라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1895년에 Roentgen에 의해 X—선이 발견되면서 유럽 의학계에 결핵에 대한 실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유행하던 결핵환자의 이야기는 수많은 문학과 오페라, 시의 주제가되었으며 근대 흉부외과 치료의 역사는 폐결핵 치료와 같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핵에 대한 흉부외과적 치료의 초창기 기록을 살펴보면 프랑스 나폴레옹에 의한 이집트 원정시(1798) 나폴레옹의 주치의였던 Barron Larrey가 기흉을 치료한 기록이 있고 역시 프랑스에서 1800년대 말 Empyema에 대한 drainage술이 시도 되고 있었다. 다른 외과 분야의 수술보다 흉곽장기에 대한 수술 특히 폐결핵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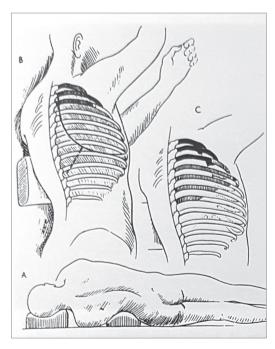


독일의 Sauerbruch가 개발한 음압 수술 실험장치, 당시까지만 해도 수 많은 폐결핵 환자들이 사망하였지만 흉곽을 열 경우 폐수축으로 사망하여 폐수술은 염두를 내지 못하였다.

폐절제술이 늦어진 이유는 당연히 늑막을 열었을 경우 폐가 수축되면서 환자의 호흡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유명한 Dr. Ferdinand Sauerbruch가 폴란드의 전설적인 외과의사 Mikulicz—Radecki 문하에서 배우고 있을 때 Mikulicz는 '수십만 명이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수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흉곽을 열수 없기 때 문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History of Thoracic Surgery, Shield's General Thoracic Surgery).

이후 Doyen과 Tuffier등에 의해 폐절제술이 시작되었고 1912년 Morrison에 의해 폐엽절제술(dissection lobectomy)이 성공되었다. 미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현재의 기도삽관 마취가 Magill에 의해 임상에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폐절제술의 individual ligation technique이 Blade, Kent, Churchill 등에 의하여 1943년에 발표되었다. 실질적인 대한민국 흉부외과 수술의 역사는 해방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해방 전에도 일본인 의사들과 이들의 수련을 받은 한국인 의사들 특히 고병간 교수나 한격부 교수 등에 의해 흉부외과적 수술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무슨 수술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기가 힘들다.

1945년 해방 이후 1950년 한국동란이 발발할 때까지 5년 동안 한국 폐외과는 선진국과의 의학지식교류의 부진, 마취기술의 미숙, 심장과 폐 수술에 대한 지식축적의 미흡, 투여 가능한 항생제나 항결핵제의 보급이 미흡하여 부진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과의사에 의한 흉부외과 분야의 수술은 해방 후에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서서히 시작되었다. 한국에는 1950년까지도 폐결핵 치료약의 도입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 당시 penicillin은 어느 정도 보급되고 있었으나 항결핵제인 Streptomycin, PAS, INH 등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폐결핵 수술을 위한 폐 절제 수술은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폐결핵 환자에 관한 흉곽 성형술이 해방 후 2~3년 후 부터 보고가 되기 시작한다.



홍곽성형술의 모식도. 흉부외과수술은 흉곽성형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폐결핵 환자에서 결핵부위의 폐를 허탈시켜 용적을 감소하여 치료하던 방법으로 흉부 X-선이 발견되기 10년 전인 1885년에 de Cerenville (Lausanne)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Dr. Carl Semb, Lateral thoracoplasty 홍곽성형술은 이후 더욱 발전하여 폐결핵이 빈발하는 폐첨부 허탈술 (apicolysis) 로 발전하였는데 위 사진의 Carl Semb (Oslo)이 이 술식에 크게 기여하였다. Semb retractor로도 알려진 Dr. Semb은 국립의료원 홍부외과 과장으로도 봉직하였다.

흉부외과 폐수술에 대한 기록의 시작은 고병간 교수에 의해서이다. 고병간 교수는 1948년 10월 6일 국립 마산 결핵요양소에서 폐결핵 환자에 대한 흉곽성형술을 최초로 시행한 바 있으며 1949년 5월 5일과 1949년 6월 7일에 대구의대에서 국내 최초로 폐결핵 환자에 대한 전폐전제술을 국소마취하에서 성공하였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 폐결핵 환자 증례에서는 수술이 모두 국소마취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유승화 교수의 회고록)

대구의대에서의 두 번째 폐절제술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다. 이때는 전쟁 중이라 대구의대가 군병원으로 접수되어 운영되던 시절이었다. 국소마취로 폐절제술에 성공한 팀은 기관지 삽관법이 도입되어 전신마취를 통해 두 번째 폐절제술을 안전하게 시행하기를 기대하고 시도하였으나 환자는 수술대 위에서 환자 사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성행 교수가 3년 후에 George Washington 대학으로 유학을 갔을 때 같이 유학을 온 당시 마취과 의사 (Y 소령)에게 그때 환자가 왜 사망했냐고 물었는데 Y 소령이 대답하기를 '마취가스를 위생병이 운반해와 서로연결하는 과정에서 마취가스와 산소관을 서로 잘못 연결했다'고 하였으며 이 Y 소령은 한국에 있을 때는 차마이 사실을 발설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성행 교수 회고록)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러한 황당한일이 초창기 우리나라 마취역사에서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흉곽성형술은 폐절제술이 발달된 현재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는 폐결핵 환자에서 결핵부위의 폐를 허탈시켜 치료하던 방법이었다. 흉부 X-선이 발견되기 10년 전인 1885년에 de Cerenville (Lausanne)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으며 독일의 Ferdinand Sauerbruch (1875-1951)에 의해 발전되었다. Dr. Sauerbruch의 문하생이 일본의사 도리가다(島瀉) 였고 이 도리가다의 제자가 고병간 교수이며 고병간 교수의 문하생이 세브 란스 출신의 유승화 교수와 이성행 교수라고 할 수 있다.

고병간, 유승화, 이성행 교수는 공주결핵요양원, 미산 결핵병원, 이대병원, 대구의대병원, 또는 선교사가 세운 여러 병원 등에서 단독 혹은 협력하여 폐결핵 환자에게 흉곽성형술, 폐절제술, 전폐절제술 등을 국소마취 하에 시행하여 우리나라 일반 흉부외과의 선구자가 되었다.



일제시대에 사용하던 인공기흉기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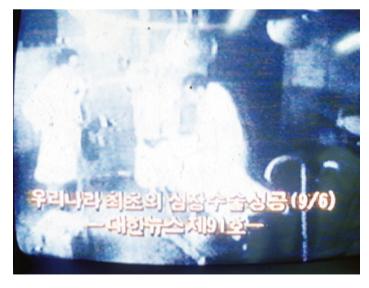
국내·외 심장수술의 시작

심장외과는 1947년 5월 대한의학협회에서 서울대병원 외과 한격부 선생이 국소마취로 실시한 교약성 심낭염에 대한 심낭 절제술을 보고한데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초 미국에서의 문헌소개, 한국전쟁에 참가하였던 미국 군의관들의 수술 시연, 국내 각 대학 교수들의 미국 유학의 영향에 힘입어 심장외과 증례가 차차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 이후 에는 미국에서 흉부외과를 수련한 젊은 외과의사가 속속 귀국하여 소속 대학으로 복귀하면서 우리나라 흉부외 과는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그중 대표적인 분이 1949년 도미하여 1955년 미국 Dallas의 Baylor University Medical Center 에서 흉부외과 레지던트를 수료하고 세브란스병원으로 귀국한 홍필후 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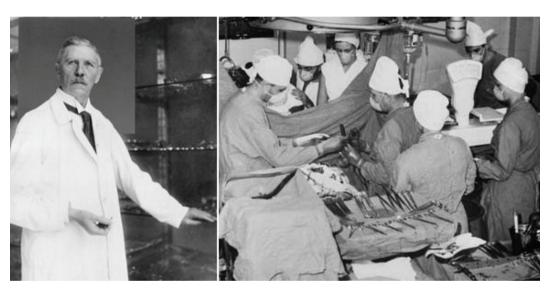
홍필훈 교수는 한국동란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심장내과 등과 팀을 이루어 승모판협착증을 수술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하였다. 홍필훈 교수의 대표적인 수술로는 1956년 승모판협착증에서 폐쇄식교련절개술, 1957년 활로사징증 환아에서 Pott's Smith 단락술이 있다. (대한외과학회 보고)

세계적으로 최초의 심장수술은 누가 했을까? 일반적으로는 독일의 외과의사 Ludwig Rehn(1849—1930)으로 알려져 있다. Dr. Rehn은 1896년 9월 8일 새벽 3시 반경 독일 Frankfurt 주립병원의 응급실로 방문한 22세 된 청년에게 우심실 봉합으로 심압전증을 치료하였는데 이것이 기록에 의한 인류최초의 심장수술이다. 이 청년은 며칠 전인 8월 31일 부정맥으로 군에서 의병제대한 정원사였는데 입원 전날 밤 산책도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싸우다가 칼에 찔려 의식을 잃고 길에 누워있다가 주변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칼에 찔린 상처는 1.5cm 정도로 흉골에서 3횡지 정도 왼쪽으로 제4늑간에서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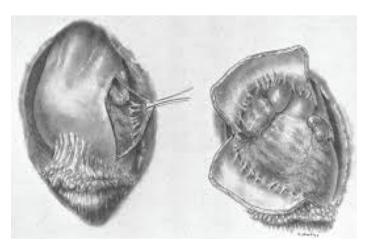


1956년 9월 6일 국내 최초로 승모판협착증 환자에서 승모판교련부절개술에 성공하여 대한뉴스 제91호에 발표(영화뉴스필름에서 복사함). 심장내과 조광현 교수(좌)와 홍필훈 교수(우)

입원 후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가 다음날 Rehn이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환자의 상태는 거의 사망 직전이었다. Dr. Rehn은 수술장으로 이 청년을 옮겨서 수술을 집도하였는데 수술소견은 심낭에 혈액이 가득 차있었고 우심실이 1.5cm 가량 파열되어 출혈이 되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파열부위를 누르고 나서 3개의 실크봉합사로 우심실상처를 봉합하였는데 이후 환자는 회복하여 퇴원하였다. Rehn은 6개월 후에 이 증례를 독일 외과학회에 cardiorrhaphy 증례로 보고하였고 바로 이 증례가 공식적으로 세계최초의 심장수술이 되었다.



세계 최초의 심장수술인 우심실 봉합술을 시행한 독일의 외과의사 Ludwig Rehn과 수술장면(1896년)



한격부 교수가 1940년대 말에 시행했다고 하는 교약성 심낭염에 대한 수술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아마도 결핵환자에 대한 부분적 심낭적출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 최초로 심낭절제술을 보고한 한격부 교수

우리나라 일반 흉부외과의 시작

- 고병간 교수

고병간 교수는 일반 흉부외과의 개척자이면서 후에는 대학교육 행정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1919년 3·1운동 때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평양형무소에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25년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한 이후 외과학 교실에서 2년간 수련을 마치고 1927년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기독교계 병원인 제혜병원 외과과장으로 부임했다.

1934년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대 의학부에서 도리가다(島瀉) 교수 밑에서 흉부외과를 전공하고자 연구에 몰두했고, 1937년 4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외과 교수로 취임했다. 해방 후 1945년 9월 대구의학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여 활발하게 폐결핵 환자의 수술치료에 매진하였으며 1948년 10월 6일 국립마산결핵요양소에서 폐결핵 환자에 대한 흉곽성형술을 처음으로 시행해 우리나라 일반 흉부외과의 창시자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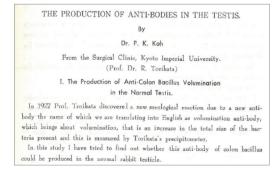
마산결핵병원에서의 첫 흉곽성형술은 기관내 삽관 전신마취법이 도입되기 이전에 프로카인 국소마취하에 이루 어졌다고 한다. 이 당시 마산결핵요양원은 수백명의 결핵환자로 가득 차있었는데 안정, 영양, 대기요법이 치료의 주종을 이루었고 일부환자는 인공기흉, 인공기복, 늑막유착, 횡경막 절단술로 수술 받는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시기에 이름도 생소한 흉곽성형술이란 수술이 진행되었는데 수술실 주위로 환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고병간 교수



대구의과대학 학장시절의 고병간 교수 (하얀 원표시)



고병간 교수가 일본교토대학에서 스승인 도리가다(島瀉) 교수의 지도하에 작성한 학위논문 (1935년)



1960년도에 경북대학교에서 발행 한 고병간 박사의 기념논문집



경북대학교내에 세워진 고병간 교 수의 동상

어 기대, 호기심, 두려움 등으로 쳐다보았다고 하며 수술이 성공하자 수술증례가 급증하였다 한다. 1949년 7월 까지 총 15례의 흉곽성형술이 집도되었으며 수술 사망 례는 한명도 없었다. 유승화 교수는 후일 회고담에서 '환자나 의사나 독한 사람들 이었다'고 기술하였다.

마산에서의 흉곽성형술이 처음으로 성공한 이후 다음 해에는 대구의과대학병원에서 한국 최초의 전폐절제술 (1949. 5. 5)이 이루어졌는데 이 증례 역시 국소마취 하에서 이루어졌다. 유승화 교수의 회고에 의하면 '환자는 24세 남자로 1년간이나 인공기흉 요법을 받았는데도 우측 폐는 전체적으로 허탈 된 상태이나 공동은 폐쇄되지 않고 우상엽에 남아있었으며 결핵균은 양성이었다. 당시 대구의대 부속병원에서는 마취의사도 전신마취기도 없었으나 장기간의 예비기흉이 되어있는 상태였음으로 평압 개흉을 하여도 호흡곤란과 같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국소마취와 평압 개흉하여 폐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몰핀과 아트로핀의 전처치 후 1% 프로카인으로 침윤 국소마취를 하였으며 제 6늑골을 절제하고 개흉하였다.

1. 韓國 胸部外科 黎明期(1945~1954)

1)胸廓成形術의 成功(1948.10.6)

우리나라에서 폐결핵 환자에 대한 흉곽성형술의 제1호가 1948년 10월 6일 마산 국립 결핵요양원 수술실에서 高秉幹 교수의 집도로 시행되었으며 세브란스 의대의 劉承華가 조수로 섰다."



高秉幹 教授 존경받는 외과의 교육자, 흥부외과개척자 필자의 은사

高乘幹(1900) 교수는 1925 년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후 1935년 京都제국대학 외 과의 도리가다(島隝) 교수 의 지도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다. 도리가다 교수 는 독일의 Sauerbruch 교수 의 문하생 시절에 그로부터 Sauerbruch법의 흉곽성형술 을 배운 일이 있었고 高교수 도 도리가다로부터 이 수술 방법을 이수하였다. 세브란

스 의전에 돌아와서 Sauerbruck 홍곽성형술을 실시한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1948년 대구의대 학장 겸 외과교수로 재직하면서 도미하여 Sweet 교수 등 저명한 흥부외과 교수를 찾아 현대 흥부외과 수술법을 두루 시찰하였으며 Alexander의 개량 흥곽성형술을 보고 귀국하였다.

Sauerbruch법의 성형숱은 1차에 제1늑골에서 9~10번 늑골까지 절

이성행 교수는 흉부외과 수술의 시작이 고병간 교수의 흉곽성형 술(1948년 10월 6일)로 시작되 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폐는 비후된 늑막으로 덮여있고 종격동은 고정되어 있어서 호흡에는 지장이 없었다. 병변이 우상엽기관지에 너무 인접해 있어서 전폐적출술을 하기로 하였다. 시간은 3시간 55분 소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49년 6월 7일에는 대구의대병원 (현재 경북대병원)에서 폐결핵 환자에 대한 전폐전제술을 multi-ligation 법즉 기관지와 혈관을 한꺼번에 결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국소마취로 성공하였다. 고병간 교수는 유승화, 이성행 교수에게 수술법을 가르친 흉부외과의 은사이며 이러한 일반 흉부외과 수술활약을 통해 흉부외과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유승화 교수의 회갑기념논문집 회고록에서)

1951년 문교부차관, 1952년 경북대 총장과 이후에 연세대 총장을 역임하였고 1966년 작고하였다. 고매한 인격과 정의감의 소유자였고 학문의 개척자정신이 뛰어났으며 별명이 '고불통'일 정도로 불굴의 의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성격을 지녔다. (이성행 교수의 회고록)

도 소실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술을 희망하는 환자수가 많아 졌으며, 1949년 7월까지 총 15예를 수술하였고 그 성적도 만족할만 하였으며 수술 사망에는 1예도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劉承華는 희갑 희고담에서(1979)³¹ '지금 생각하면 의사나 환자나 모두 대단히 독한 사람이었다'라고 술희하고 있다.

1949년 劉承華는 세브란스 의대로 복귀하고 마산에서 수술은 계속되었으며 대구의대 외과의 필자와 李憲梓(후에 연세의대 뇌신경외과 주임교수 역임)가 교대로 출장하여 수술을 도왔다.

2) 韓國 最初 肺切除術 (1949.5.5)

한국 최초 폐절제술이 1949년 5월 5일 대구의대 부속병원 수술실에서 高秉幹 교수의 집도로 성공하였다" 李聖行은 그 해 2월부터 동대학 외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세브란스 병원의 전임강사로서마산 국립 결핵요양원에 파견 근무중이던 劉承華와 대구의대의 李憲梓가 수술을 도왔으며 수술은 국소마취하에서 시행되었다.

환자는 24세의 남자로서 1년간 인공기홍요법을 받았는데도 우측 페는 전체적으로 허탈된 상태이나 공동은 폐쇄되지 않고 우상엽에 남아 있었으며 결핵균은 양성이었다.

당시 대구의대 부속병원에는 마취의사도, 전신마취기도 없었으나 장기간의 예비적인 기흥이 되어있는 상태였음으로 평압(平壓) 개흥 을 하여도 환자는 호흡곤란과 같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국소마취하 평압 개흥하여 폐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몰핀과 아토로핀의 전처치 후 1% 푸로카인으로 침윤 국소마취를 하였으며 제6늑골을 절제하고 개흥하였다. 페는 비후된 늑막으로 덮 여있고 종격동은 고정되어 있어서 호흡운동은 지장이 없었다. 병변 이 우상엽 기관지에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폐절제술을 하기로

이성행 교수의 회고록에 의하면 마산결핵병원에서의 흉곽성형 술에 이어 대구의대 부속병원 (현 경북의대)에서 1949년 5월 5일 한국최초의 폐절제술이 고 병간 교수팀에 의해 성공하였다 고 한다. 서울의대의 한격부(韓格富) 교수는 1913년 4월 18일 함경남도 정평출생으로 1941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뒤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부산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부산스웨덴 적십자병원 흉부외과 과장, 국립의료원 흉부외과 과장을 거친뒤에 한격부 외과를 개설하여 의료일선에서 헌신하였다.

40대 장년의 나이로 스웨덴에 유학하여 스톡홀름대학 및 영국 런던 Royal Chest Centre에서 흉부외과학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여 불모지인 한국에서 흉부외과학의 초석을 다졌다. 1947년 5월 대한 의학협회 학회 석상에서 유착성 심당염에 대한 심당 절제술을 국소마취하에서 시행한 경험을 학술강연 초록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해방 이후 의학 수준을 참작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당시에는 흉부외과가 창립되기 이전으로 한격부 교수는 일찍부터 흉부외과학을 한국 외과학의 하나로 정립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호(我號)를 사석(捨石-버려진 돌)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대학에서 초창기 흉부외과 학 문정립에 정진하였다. 1959년 서대문구 의사 회장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의사 회장, 대한 의학 회장을 역임 하였고 흉부외과학회 제1대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이러한 의료계 요직을 역임하는 동안 의사 동원령 발동 (이른바 追伸三項파동), 의협회관건축, 제7차 아세아대양주 의학협회 연맹 서울대회 개최, 금전등록기 설치 파동,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보험수가 제정작업 등 당시 험난했던 의료계 난제를 돌파하는데 지대한 노력을 하였다. 부인 강귀분여사가 1993년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지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인의 병상을 지킨 일화는 유명하다. 한격부 교수는 본인이 90대에 저술한 "그래도 남는게 있는 捨石 90星霜"이라는 책의 75페이지에서 서울대 이영균 교수에 대해 회상하면서 "李寧均씨는 신경외과학을 공부하다가 흉부외과학으로 전공방향을 옮긴 경우다. 부산 서전적십자병원에서 張起呂 선생이 촉 선생의 하악골부 수술을 해주었다.



한격부 교수는 아호를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흉부외과를 위해 자신을 버린다 는 뜻으로 사석(捨石)이라고 지었다.

그때 이 선생이 나에게 서울대학교에서 미네소타플랜에 의해 미국으로 연수를 가는데 심혈관 분야 연수를 하고 싶다고 문의했다. 나는 기꺼이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것이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적극 추천했다. 이렇게 해서 한사람 두사람 흉부외과를 공부하는 의학도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처음 흉부외과를 시작한 이영균 교수의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국내 흉부외과학의 개척자로 불리는 한격부 대한의사협회 명예 회장은 노환으로 힘겹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서울의대 흉부외과발전을 위해 현금 5 억원을 기부하였다. 捨石(사석) 한격부(韓格富, 92) 박사는 흉부외과학이 기피과로 분류되고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 고자 오래전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격부 교수의 큰이들인 한수환 대표도 흉부외과 50주년을 맞아 격려금으로 1,000만원을 학회에 기탁해주었다. 사진은 2018년 7월 27일 한수환대표사무실 (종로구 교북동 11-1 부귀빌딩 7층 용진 ENC)에서 기증식을 하는 장면으로 오태윤 이사장이 함께 하였다.



PICTORIAL HISTORY AND PIONEERS OF KOREAN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1968

● 한국전쟁과 외국 흉부외과의사들의 역할

- 34 한국 의료발전에 밑거름이 된 스칸디나비아 3국과 인도, 이탈리아의 의료지원
- 40 이동외과병원 (MASH,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
- 42 한국전쟁과 Dr. Frank C. Spencer
- 45 한국전쟁에 파견된 미국 흉부외과 의사들의 역할
- 47 한국전쟁 당시 덴마크가 보낸 최첨단 병원선 유틀란디아(Judlandia)호
- 50 한국전쟁과 군진의학 (Military Medicine)

한국 의료발전에 밑거름이 된 스칸디나비아 3국과 인도, 이탈리아의 의료지원

부산 태종대입구에는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 탑은 1976년 9월 22일 국방부에서 건립한 것으로 이곳에는 6·25전쟁 시에 의료팀을 파견하여 한국을 도운 스칸디나비아 3국과 인도, 이탈리아 의료팀에 대한 활동을 기록하여 그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3국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말한다.

스웨덴은 1950년 9월 23일 적십자병원선을 보내 부산 서면에 있는 옛 부산상고 (현 롯데백화점) 자리에서 200병상의 서전적십자병원을 운영하면서 한국전쟁 시에 유엔군과 한국군, 일반인들 전상자들을 치료하였고 휴전 후에는 600병상까지 늘어난 병원규모로 대민의료봉사를 하다가 1957년 4월 10일 귀국하였다. 부산 스웨덴(서전)적십자병원에서는 張起몸 선생이 서울대 이영균 교수의 하악골부 수술을 해준 곳이기도 하며 사석 한 격부 초대 흉부외과 회장이 근무한 곳이기도 하다.



부산영도에 있는 〈의료지원단 기념비〉 앞에 서있는 박국양 교수



전면에 새겨진 이 휘호는 박정희 대통령의 서체이다.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 전경

П

덴마크에서는 유엔에 스스로 병원선을 파견한다. 〈유틀란디아〉병원선이 부산에 도착하여 1951년 3월 7일부터 부산항 앞바다에서 전상자들을 치료하게 된다. 이 병원선은 이후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전쟁부상자 및 대민 진료활동을 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 1953년 8월 16일 귀국을 하게 된다.

노르웨이에서는 1951년 6월 22일 부산항에 의료진과 장비를 갖춘 야전병원부대를 파견하였는데 이 부대는 동두천지역에서 활동하다가 1954년 10월 18일 귀국하였다.



한국전쟁시 의료 지원단을 파한한 다섯 나라의 지원약사와 역대 지휘관들의 이름을 나라별로 새긴다는 글과 함께 활동한 지역을 우측지도에서 표시하였다.



부산항에 도착한 스웨덴 야전병원부대를 환영하는 한국부인들과 육군군악 대(1950년 9월 23일)



최전방 전선에서 전선을 응시하는 노르웨이 의료부대병사. (1952년. 좌측위에 사진은 이 사진을 촬영한 작가)



인도군의 최초 전장구호작업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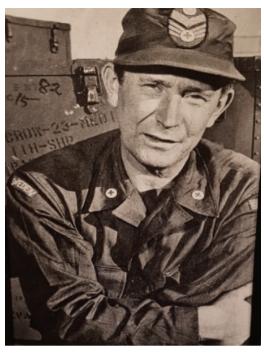
동두천에 위치한 노르웨이 이동병원의 전경



한국전쟁시에 부산 서면에 스웨덴(서전) 적십자병원으로 파견된 스웨덴 적십자 간호사 Ingrid Jarnald 간호사가 LIFE 잡지의 표지모델이 되었다. 얼굴이 1950년대 스웨덴 출신의 할리우드배우인 Ingrid Bergman을 연상케 한다.



유엔기, 스웨덴기, 적십자기가 게양된 서전(스웨덴) 병원입구



부산 서전(스웨덴)병원 초대 병원장 그루트 대령



한국전쟁시 파견된 부산 스웨덴(서전)병원 의료진



부산 스웨덴(서전)병원에서 치료중인 어린이들. 폭격으로 손과 다리가 절단되어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스웨덴 참전기념비



스웨덴(서전)병원에서의 군인과 어린이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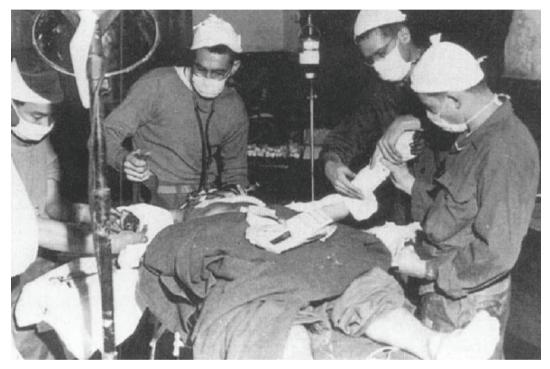
한국전쟁당시 스웨덴(서전)병원에서의 환자들



한국전쟁당시 부산 스웨덴(서전)병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

이동외과병원 (MASH,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

전쟁은 무수한 인명손실을 초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과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을 통해 의료가 발전하는 것은 이러한 전쟁에 목숨을 걸고 지원을 해서 의료기술을 실험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외과의사가 있을 때 만 가능한 것이다.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 200만명, 미군만 5만 명의 인명손실을 가져온 6 · 25 전쟁에서는 많은 군의관, 특히



제 8063 이동외과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하지절단술 장면 (1950년 11월 4일, 한국전쟁시 이동외과병원)



이동외과병원(MASH)의 개념은 미국 흉부외과의사인 Dr. De Bakey에 의해 2차 세계대전 때 고안되었다. 전투현장에 가까운 곳에 차려진 이동외과병원으로 헬리콥터 이송을 통해 전상자가 신속히 이동하여 수술을 받음으로서 전상군인들의 생존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동외과병원(MASH)에서의 수술장면. MASH는 전투현장에서 멀지 않는 곳에 천막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수술을 하고 부대가 후퇴하면 바로 따라나서야 한다.

미국에서 파견된 흉부심장혈관외과 의사들의 참전으로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흉부심장혈관외과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이동외과병원(MASH)은 2차 세계대전때 Texas의 흉부외과 의사인 Dr. Michael DeBakey에 의해 제안되고 실행에 옮겨진 제도이다. 종래에는 전상군인을 매우 먼거리의 후방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하였기 때문에 이동 중에 숨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전선에서 가까운 곳에 천막 병원을 설치하고 전상을 입은 군인, 특히 분초를 다투는 흉부심장혈관분야 전상환자들을 이곳 MASH에서 신속하게 치료하게 함으로서 전사자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동외과 병원(MASH)은 한국전쟁에서의 실제 상황을 묘사한 〈MASH〉라는 드라마로 제작되어 한동안 군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미국인들에게도 매우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였다.



한국전쟁(6·25)에서의 최전방 전투지역에서 부상자는 헬기에 의해 이동외과병원(MASH)로 이송되었다.



한국전에 파견된 MASH 팀에서 1952년 새해를 맞아 본국에 보내는 신년축하 사진



드라마 MASH에 출연한 배우들사진. MASH는 한국전쟁 당시 이동외과 병 원을 묘사한 드라마로 매우 인기가 높았던 TV 연속극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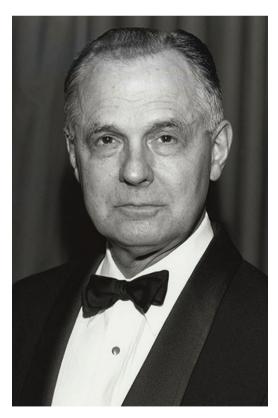


한국전쟁에 참가한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의 Dr. Bernhard Paus가 38선에 서서 촬영한 사진

한국전쟁과 Dr. Frank C. Spencer

Frank C. Spencer는 미국 AATS(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oracic Surgery)의 63대 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흉부외과의 세계적 저명인사이다. Johns Hopkins에서의 인턴 과정을 마치고 Dr. William Longmire가 이끄는 UCLA group에 합류하였을 때 한국에서는 $6 \cdot 25$ 가 발발하였다. 미해군 군의관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EZ medical company의 1st medical battalion이된 Dr. Spencer는 혈관외과 팀을 맡게 된다. 당시까지 제 2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인해 미해군에서는 하지에 총상을 입고 혈관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감염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하지 절단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왜냐 하면 당시 하지총상 환자의 치료를 하기위해 후송을 하는데 평균 10시간이 걸렸는데 이송하는 동안 환자는 감염. 괴사, 신부전으로 사망하기 일쑤였기 때문이었다.

Dr. Spencer는 한국에서의 첫 환지를 판문점에서 2마일 떨어진 전선에서 보게 되는데 미해군 공식 지침에 의한 하지절단이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침을 어기고 하지 절단 대신 혈관성형술을 택하게 된다. 이후 이러한 결정으로 수많은 전상자들의 하지절단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후에 그는 '왜 미 해군의 지침을 어겼느냐" 하는 질문에 회상하기를 '환자를 위해 단지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그의 수술성공은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이후에는 베트남전쟁 등에서 수많은미군들의 하지 절단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



Dr. Frank C. Spencer. 한국전쟁동안 미군해군군의관으로 파견되어 혈관봉 합술로 수많은 미군의 하지절단을 막은 업적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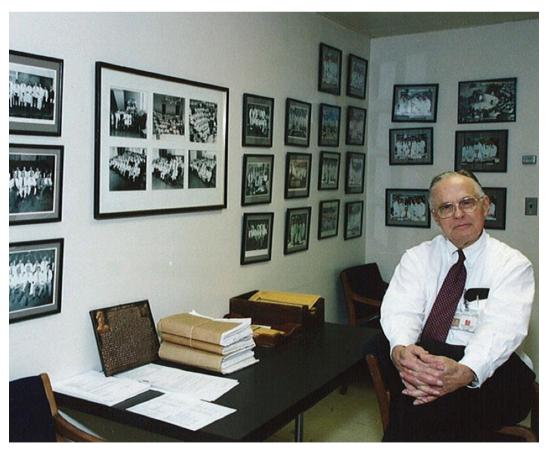
한국전에 참가하여 촬영한 사진(1952년), 왼쪽에서 두 번째가 Dr. Frank C. Spencer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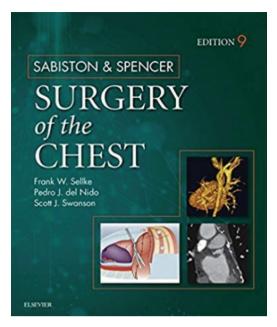
한국전쟁시 해군군의관으로 한국에 파견된 Dr. Frank C. Spencer는 전선에 서 부상당한 전상자들을 헬기를 이용해서 비교적 신속하게 이동외과병원으로 이송하여 혈관성형술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위 사진은 1951년 5월 23일 가리산에서 전상자를 헬기로 이송하는 모습.

그는 한국전쟁 이후 귀국하여 미해군 병원인 Bethesda Naval Hospital에서 근무하다가 Johns Hopkins의 Dr. Blalock의 요청에 의해 다시 Johns Hopkins 로 돌아와 레지던트 과정을 하게 되고 이후 Kentucky 대학에서의 5년 과정을 거쳐 New York University 에 정착하여 32년 동안 과장으로 봉직하면서 후학들을 위한 교과서 저술, CABG 수술 등에 있어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Abe De Anda Jr. et al.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oracic Surgery: Frank C. Spencer, JTCS 2013, April)

가톨릭의대의 이용각(李容珏) 교수는 이때 Dr. Spencer와 함께 혈관 외과팀에 종군하였는데 전쟁 후에 한국의 혈관외과를 개척하게 되고 1963년 4월 13일 국내에서는 최초로 복부대동맥류 절제술에 성공하게 된다. 이때 사용한 인조혈관은 3x7cm의 DeBakey knitted Dacron graff였다. 이용각 교수는 1945년에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Dr. Spencer와의 인연으로 1954—55년 Houston의 Methodist 병원에서 인턴, 1955—58년 Baylor의대 외과 레지던트를 수료하였으며 흉부심장혈관외과를 전공한 이후 1962년 가톨릭의대 교수로 부임하여 1969년 최초로 신장이식의 업적을 이루는 등 우리나라 혈관 발전에 큰 공헌을하였다.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장, 초대 혈관외과학 회장, 인하대학 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하였다.



뉴욕대학 집무실에서의 Dr. Frank C. Spencer (JTCS 2013;145:906-908)



Dr. Spencer 는 그의 탁월한 수술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후학들을 위해 훌륭한 흉부외과 교과서를 남겨 제자들을 교육하였다.



Dr. Spencer와 함께 한국전 당시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혈관수술을 배운 가톨릭의대 이용각 교수. 이용각 교수는 이후 1969년 한국최초로 신장이식 에 성공한다.



가톨릭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진의 회식자리에서. 왼쪽부터 이용각, 윤덕선, 김희규, 배수동 교수

한국전쟁에 파견된 미국 흉부외과 의사들의 역할

미군에서는 Dr. Frank Spencer의 혈관외과 팀 외에 육군 군의관 Dr. Hughes와 Dr. Jahnke을 각각 지휘관으로 한 동맥외과 팀을 한국에 파견하여 혈관손상 환자의 진료와 연구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Spencer는 신선 보존 동맥을, Hughes는 미국에서 공급한 동맥을 이식하는 임상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여 한국동란이 세계 혈관 외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셈이 되었다. 미국 군의관으로 한국에 온 Dr. Thomas Hewlett은 미군 121병원에서 근무하면서 1950년부터 수년 동안 흉부외과 영역의 수술을 담당하였는데 우리나라 군의관들도 여기서 많은 지도를 받았다.



한국전쟁은 수많은 고아를 이 땅에 남기게 되었다. 부모를 잃고 어린동생을 업고 있는 한한국 소녀가 M-26 탱크 앞에 서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서울 행주 산성앞. 1951,6.9.) (U.S. Navy/Maj. R.V. Spencer, UAF)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을 위문하고 있는 마 릴린 먼로



용산에 있는 121 병원의 입구전경



서울 용산에 있는 121 Hospital의 본관 건물 내부



서울 성모병원을 방문한 주한미군 121 병원장(로버트 폴스턴 대령)과 그 일 행(2013년 3월 12일)



계명대 동산병원을 방문한 주한미군 121 병원장(에리카 클락슨) 일행 (2017년 6월 22일)



삼성 서울병원을 방문한 주한미군 121 병원장과 삼성서울 병원장(송재훈) 일행 (2015년 4월 6일)

한국전쟁 당시 덴마크가 보낸 최첨단 병원선 유틀란디아(Judlandia)호

1950년 6 · 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결의에 따라 잘 알려진 대로 세계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보내 북한침략군과 싸웠는데 전투 병력은 아니지만 의료진을 보내 부상병은 물론 민간인들까지 치료해주면서 한국을 도운 나라들이 있다. 잘 알려진 스칸디나비아 3국과 인도, 이탈리아이다.

이중 덴마크는 가장 먼저 인도적인 의료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나라로 덴마크의 동아시아선박회사에서는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8,500톤 크기의 〈Judlandia〉호를 제공하게 된다. 이 배는 1934년 덴마크의 나크스코프 조선소에서 화물과 여객 겸용으로 건조되었는데 전쟁 중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하는 천사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병원선으로 개조된 유틀란디아호에는 4개의 수술실과 356개의 병실을 구비하고 있었다. 또한 이 병원선과 함께 덴마크에서는 병원선에 가장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군인과 민간인을 치료하게 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42명의 간호사를 선발하는데 무려 4000명이나 지원하여 가장 우수한 간호사들만 선별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든지 수혈을 할 수 있도록 혈액형까지 고려하여 선발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1952년 가을부터는 인천 항으로 옮겨서 활동하였으며 999일 동안에 연인원 630명이 근무하였다.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의약품과 의료장비들을 유엔한국재건단(UNKRA)를 통해 각 민간병원에 기증하고 1953년 8월 16일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국가 기록원 대통령 기록물 관리 번호 AA0000430인 1951년 12월 19일자 기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주 덴마크 한국대사관에 개관된 〈Judlandia Hall〉

'덴마크는 1951년초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추고 부상병 치료와 한국민 구호를 목적으로 '유틀란디아' 적십자병원선을 파견하였다. 병원선은 부산항에서 부상자와 환자를 치료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UN 군 사령관의 요청에 의하여 다시 환자 300명을 치료할 준비를 갖추고 부산항에 돌아왔다. 이 중 100명은 외국인 장병환자. 200명은 한국인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하니 우리 군병원에서 치료불가능한 중환자나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선별해서 병원선으로 후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성행 교수의 회고록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덴마크 병원선에서는 우리나라 젊은 의사들에게 전문분야별로 단기연수를 실시했다. 서울의대 이찬범, 경북의대 이성행, 이화의대 유승화가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호에서 2개월간 흉부외과



유틀란디아에서 근무중인 덴마크 의료진들의 모습



덴마크에서 파견하여 부산앞바다에 정박중인 유틀란디아호의 모습. 4개의 수술실과 300여개의 병실을 갖춘 당시로서는 초특급 병원선이었다.

수련을 받았다. 초현대식 시설과 완벽한 수술 장비를 갖춘 병원선은 가난한 후진국 의사들의 눈에는 바로 꿈의 궁전이었다. 전신마취하에 전상(戰傷)으로 인한 폐손상과 혈흉(血胸)에 대한 수술을 주로 했는데, 그러한 개흉술은 당시 우리 손으로는 불가능했다. 여기에서 수련을 받은 세 사람은 그 후 흉부외과의 초석을 닦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을 남겼다'고 회고하고 있다.

주 덴마크 한국대사관에서는 〈유틀란디아〉호 파견 65주년이 되는 2016년을 맞아 대사관내에 유틀란디아의 사진과 모형, 각 종의료품들을 전시한 〈유틀란디아홀〉를 개관하기도 하였으며 한국 참전용사회에서는 유틀란디아가 정박하였던 코펜하겐 랑에리니에(Langeliniekaj)부두에 표지석을 세워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유틀란디아가 덴마크로 돌아간 뒤에 정박해있던 코펜하겐 랑에리니에(Langeliniekai)부두에는 1990년 6월 15일 한국 참전용사회가 제작해 기증한 기념비가 제막되었다.

한국전쟁과 군진의학(Military Medicine)

6·25사변 당시 대학 교수들은 대학병원이 군병원으로 흡수됨으로 인하여 대다수가 군문에 들어갔으며 한미 협정에 따라 1952년 경 부터 군의관을 미국에 있는 군병원으로 파견하여 의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 당시 민 간인으로 도미 유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힘들었지만 국가에서 파견하는 수련목적의 미국연수는 활발하여 한국의 의학이 국군병원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흉부외과와 마취과 의사도 미국 교육계획에 포함되었다.

특히 미육군병원 Fitzimons Army Medical Center는 한국전쟁동안 군진의학파의 연수중심병원으로서 한국흉부 외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병원은 1차 세계대전의 전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1918년 개원하였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전투 중 처음으로 사망한 Lt. William T. Fitzimons를 기념하여 명명되었다. 1999년 시민들을 위한 생명과학센터로 변경되었는데 한국흉부외과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50년대 초반에 서울대의 이찬범(李燦范) 교수는 육군에 입대하여 곧 미국의 Fitzimons 육군병원에서 흉부외 과를 연수하고 귀국한 후 마산 제 36병원에서 1953년 3월 부터 폐절제술에 착수하였다. 이 마산 병원으로 부산의대의 김진식(金珍植) 교수와 경북의대의 이성구(李成久) 교수 그리고 정진택(鄭鎭澤), 장명규(張明珪) 교수들이 후일에 합류하였는데 1953년에서 1966년까지 640례의 폐절제수술을 시행했다.



한국전쟁시 군진의학파의 연수중심병원이 되었던 미국 Colorado주의 Fitzimons Army Medical Center

우리나라 폐수술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이후 이찬범 교수는 서울대로 이성구와 이현우 교수는 경북의대로 김진식 교수는 부산의대로 돌아갔다. 국립의료원의 유회성 과장도 이 Fitzimons 병원에서 연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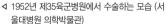
해군의 송전무(宋全武) 선생은 한국전쟁전인 1947-1948년에 미국 남가주대학(USC)에서 일반외과를 연수하고 그후 6개월간 Washington 대학의 Evart A. Graham 교수 지도하에 흉부외과를 연수하였는데 사변 직후에는 해군에 입대하여 진해 해군병원에 근무하면서 미국 해군병원에 유학한 심구복(沈龜福, 1952), Bethesda 해 군병원에 유학한 이홍균(李弘均, 1955) 교수, 그리고 김기전(金紀典) 교수, 미국 Oakland 해군병원에서 마취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김인현(金仁顯, 1953) 교수와 함께 팀을 이루어 해군장병의 폐결핵에 대한 폐절제술을 1954년 6월부터 시작하였다. 1958년까지 100례 수술 성적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2명의 사망 례를 보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적은 한국 흉부외과에 있어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성행 교수는 '1950년 한국동란이 발발했을 때 당초 흉부 손상 환자들에 대한 underwater sealed tube drainage조차 보급돼 있지 않아 고민하며 제7육군병원에서 일하던 시절을 상기할 때 한국동란을 계기로 한국의 흉부외과 특히 폐외과는 실로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기록하였다.





△ 한국전쟁시에 군진의학(military medicine)의 토대가 되었던 미국 Colorado주의 Fitzimons 육군병원의 휘장







△ 군진의학회는 매년 학회를 개최하여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사진은 2014년 10월 23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45차 군 의학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 한국전쟁시 서울대병원 전경(서울대병원 의학 박물관)



PICTORIAL HISTORY AND PIONEERS OF KOREAN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1968



한국전쟁 후 각국의 의료지원사업

- 54 Minnesota Project와 Dr. Walton Lillehei
- 57 Dr. George Schimert와 서울의대 흉부외과
- 59 스칸디나비아 3국에 의한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외국 흉부외과 과장들의 업적
- 64 서독 적십자병원

Minnesota Project와 Dr. Walton Lillehei

미국 국무부와 국제개발처(AID)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 원조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 서울 대 교수진을 보내 의학, 농업, 공업 분야의 선진학문 및 기술을 전수시키는 교육원조 즉 일명 '미네소타 프로젝트 (Minnesota Project)'를 계획하였다. 이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1955년부터 7년에 걸쳐 서울대학교 교수진 226명이 장단기 초청연수를 갖게 되었으며 의학분야에서는 77명(의대 교수 62명, 간호대 9명, 보건대 4명, 행정 2명)이 연수를 받게 되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참가한 서 울의대교원수와 연수기간



서울대와 미네소타대학의 협정체결 사진(1954년 9월 5일). 가운데 최규남 총장, 오른쪽은 프리먼 미네소타 주지사

이러한 미네소타 프로젝트에는 당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각 교실의 창설자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하여 연수를 받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기생충학의 서병설 교수, 소아과의 홍창의 교수, 미생물학의 이호왕 교수, 내과의 진병호 교수, 이비인후과의 백만기 교수, 생리학의 이상돈 교수, 약리학의 임정규 교수, 감염내과의 전종휘 교수, 생화학의 이기녕 교수, 임상병리학의 김상인 교수, 신경외과학의 심보성 교수, 방사선학의 김주완 교수, 흉부외과의 이찬범, 이영균 교수 등이 있다.

흉부외과의 이영균 교수는 1957년부터 1959년까지 미네소타에서 연수를 하게 되고 이영균 교수가 귀국한 후에는 이찬범 교수가 파견되어 1959년부터 1964년도까지 폐수술을 배우게 된다. 이영균 교수가 미네소타에서 연수를 받는 동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Dr. Christiaan Barnard와 Dr. Shumway도 Lillehei밑에서 심장수술을 배우고 있던 때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미네소타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미국 흉부외과 의사인 Dr. George Schimert가 파견되어 나와있던 시기였다. Dr. Lillehei 는 1952년도에는 저체온법을 이용한 개심술에 성공하였고 심폐기가 아직 실험단계에 있던 1954년도부터 1955년도까지 어머니의 심장과 폐를 심폐기로 사용하는 소위 'cross circulation'법에 의한 선천성 심장수술을 45명에게 성공시키기도 하여 '미국 심장수술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흉부외과의 개척자이다.

이영균 교수는 하악골수술을 장기려 박사에게 받기도 했는데 이후 흉부외과를 시작한 사석(捨石) 한격부 교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역시 한격부 교수의 권유로 미네소타 project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격부 교수의 회고록). 이영균 교수에 의하면 당시 열악한 조건의 한국 실정에서 심장수술을 확립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Dr. Walton Lillehei의 심적, 물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고 그 후 우리나라 개심술 정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Dr. Walton Lillehei가 수술실에서 headlamp를 쓰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을 보면 초창기 headlamp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제6차 아시아 흉부 및 심장혈관학회에 연자로 초청되었을 때 Dr. Lillehei가 가천대 길병원 박국양 교수와 함께 촬영한 사진 (1983년 4월 21일. 롯데호 텔 1층 커피숍).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의 이영균 교수와 이찬범 교수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인해 미네소타 대학의 Dr. Lillehei, Dr.Schimert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사진은 서경필 교수의 회갑연 때 모인 서울의대 흉부외과 의국원 사진. 두번째 줄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박영관, 김창호, 이영균 교수와 서경필 교수 부부, 김 근호 교수 부부, 손광현 교수가 보인다.

OCTOBER 31, 1957 – TRAGIC POWER FAILURE AT MINNESOTA HOSPITAL SPURS LIFE-SAVING INVENTION



Dr. Walter Lillehei and young patient with portable, battery-powered pacemaker invented by Medtronic's Earl Bakken. Photo: University of Minnesota Archives

Dr. Lillehei는 당시 portable pacemaker를 처음 시술하여 인공박동기삽입의 수술의 초석을 다진바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인공박동기는 wall power에 의해 작동되고 있었다. 위 사진은 1957년 10월 31일 Halloween day때 발생한 정전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portable pacemaker 를 개발하여 설치한 Dr. Lillehei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을 보도한 언론자료사진.

Dr. George Schimert와 서울의대 흉부외과

2000년 12월 미국 동부지역 신문 및 병원 정보지에 한 미국 흉부외과 의사의 사망기사가 게재되었다. 일견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한 원로 외과의사의 평범한 죽음으로 보이는 이 기사에는 우리로서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Dr. Schimert는 미네소타 의과대학 파견으로 한국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흉부외과를 확립한 후에 1957년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심술을 시행하였다'라는 내용이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미네소타대학으로부터 한국에 파견된 자문관 중 의과대학으로는 총 11명이 배치되어 의학지식 및 기술의 전수뿐 만아니라 당시 전반적인 의료행정의 개선 및 의학교육 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Dr. Schimert는 이중 한사람이다. Dr. Schimert는 당시 의학교육, 의료행정, 임상진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참여하여 활동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본인 전공분야인 흉부외과에서 적지 않는 기여와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

Dr. Schimert는 한국으로 파견되어 귀국할 때 까지 (1958.7 \sim 1959.10) 총 25편의 서신을 남겼으며 이 서신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는 Emory 의대에서 외과를 하던 중 1953년 5월에 시행된 Dr. Gibbon의 심폐기를 이용한 심장수술성공소식을 듣고 흉부외과를 선택하기로 결심한다. Maryland에서 흉부외 과수련을 마치고 펠로우 과정을 마친 뒤 당시 심장외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던 미네소타에서 심장외과 수 련을 받기로 결심하고 Dr. Lillehei 문하에서 2년간 펠로우를 다시 시작한다.



Dr. Schimert와 Mrs Schimert, 이찬범 교수(앞줄 가운데) 가 서울대 흉부외과 의국원들과 촬영한 기념사진(1958년 말 경), 이영균 교수는 이때 Minnesota에서 연수 중이어서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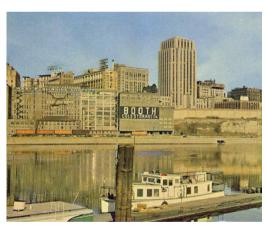
미네소타에서는 한국파견 자문관으로 Dr. Schimert를 추천하였는데 본인은 미지의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기를 망설였던 것 같다. 당시 미네소타에서 외과 과장을 맡고 있던 Dr. Wangensteen은 편지를 통해 "자네가 얼마전에 나에게 한국에 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뜻을 표했을 때 나는 같은 제의를 했던 Dr. Lillehei에게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었네. 그러나 내가 직접 나서 대신할 만한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네. (중략) 내키지는 않지만 나는 학장의 요구에 따라우리과에서 자네를 내 보낼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네"라고 적었고 이후 Dr. Schimert는 한국에 파견된다.

그는 한국에 와서 다른 세명의 스탭과 같이 5세 된 한국 고아를 입양하게 되고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인공심 폐기의 셋업과 사용법에 대한 교육, 심장수술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흉부외과 수술의 시범, 철저한 수술 전 평가와 적절한 수술 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라고 보고하였던 점으로 보아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의 초창기 정착에 큰 토대를 이루었음을 알수 있다. 그러한 실례로 1958년 10월 Dr. Schimert와 이찬범 교수는 승모판막 협착증 환자에 대한 판막성형술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1959년 10월 7일 한국을 떠나면서 후임자인 Dr. Gault에게 인계를 하게 된다.

스위스에서 태어나 항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자라고 독일 Freidrich Wilhelm University에서 의대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젊은 의사가 아무 인연이 없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머나먼 이국땅에 찾아와 서울대학교 흉부외과의 초창기 토대를 이루어준 것이다. 그에게서 시작하여 이찬범 교수, 이영균 교수로 그 학문의 명맥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Dr. Schimert를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김원곤. 반세기전 한국에서 근무하였던 한 미국 흉부외과 의사. 대한 흉외지 2008;41:189—201)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로 파견(1958년 7 월—1959년 10월1된 Dr. George Schimert.



1960년대 미네소타의 도심풍경



뉴욕 버팔로 Forest Lawn Cemetery에 있는 Dr. George Schimert 의 묘비

스칸디나비아 3국에 의한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외국 흉부외과 과장들의 업적

6·25 한국전쟁 당시 스칸디나비아 3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인도, 이탈리아에서는 유틀란디아호의 파견(덴마크), 야전 이동외과병원의 운영 등으로 우리나라를 돕다가 전쟁 후에 대부분 철수하였으나 스칸디나비아 3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의료지원을 하기로 결정한다. 스칸디나비아 3국은 전쟁 직후 UNKRA(유엔한국 재건단)과 함께 병원(국립의료원) 설립에 공동성안을 발표했고 1958년 10월 2일 을지로 6가에 국립중앙의료원(NMC, National Medical Center) 건물을 준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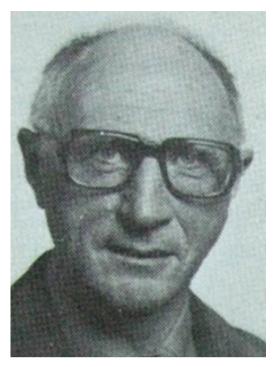
국립의료원 (NMC) 흉부외과의 역사는 1950년대 말 취약하기만 한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였다. 1958년도에는 노르웨이의 Sven Hjort 교수(1958~1959)가 초대 과장으로 취임하여 폐결핵에 대한 흉곽 성형술을 활발하게 시행하였고 이후 2대 과장인 노르웨이의 Frank Bergan 교수(1959~1961)는 closed mitral valve surgery를, 3대 과장인 노르웨이의 Axel Sanderud 교수(1961~1962)는 1962년 surface cooling을 이용하여 심방중격결손증 수술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이후 4대 과장으로 Alexander Tuxen (노르웨이), 5대과장 Kay Clauser (덴마크) 등이 부임하여 근무하였고 이후 과장으로 부임한 Ottosen 교수는 한국에서 김창호교수를 덴마크로 데려가 혈관외과 연수를 시켜주었는데 이후 김창호 교수는 귀국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Jatene 술식을 이용한 대혈관전위증 교정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국립의료원 초대 과장인 노르웨이의 Dr. Sven Hjort (앞줄 우측에서 두번째). 1959년 촬영한 국립의료원 흉부외과 의국사진으로 뒷줄 왼쪽이 유회성 교수이다. 앞줄 좌측으로부터 두 번째는 Dr. Madson (조수)



유회성 교수가 국립의료원 2대 괴장인 Dr. Bergen과 야유회에서 촬영한 모습(1960년)



국립의료원 3대 과장인 Dr. Axel Sanderud



Dr. Axel Sanderud가 퇴임한 후 본국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모임에서의 모습



국립의료원 개원 초기 전경. 국립의료원은 1958년 이승만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20병상, 의사 24명, 간호사 및 기사 46명, 행정직 19명으로 개원하였으며 당시 최고의 시설을 자랑했다.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제1회 가관식 (1959년) 에서 외국인 교수가 학생에게 간호사 cap을 씌워주고 있다. 당시 각과에 임상 과장들도 스칸디나비아에서 파견 된 의사들이었지만 수간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스칸디나비아 외국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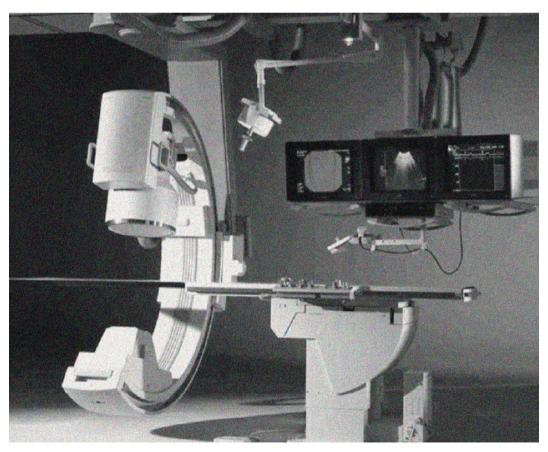
스칸디나비아 의료진과 한국의사가 함께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국립의료원 부설 간호학교 제1기생 졸업식 장면 (정부기록물)

Ш

국립의료원에는 또한 1958년 한국에서는 최초로 스칸디나비아 의료진의 후원으로 Siemens X-선 기계가 10 여 대 들어왔는데 1,000mA-1,500KVP의 고성능 기계와 1초에 6매까지 찍히는 고속연속 촬영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혈관 조영술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 흉부외과는 물론 영상의학 과(당시 방사선과). 혈관 외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지금은 cineangiography 기계가 도입되어 이보다 는 훨씬 정밀하게 자동연속 촬영을 하지만 당시 국립의료원에 도입된 것은 초기 연속 촬영기로 이 당시로서는 모든 다른 병원의 부러움을 살 만큼 획기적인 장비였다. 이 연속 촬영기가 도입되기 전에는 움직이는 심장의 혈관을 촬영하기 위해서 몇 개의 필름통을 넣어두고 한 개씩 X-선이 발사되는 신호가 떨어지면 그 필름통을 꺼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촬영을 할 때는 조수가 두꺼운 납으로 된 차폐옷을 입고 서 있다가 X-선이 발사 되는 신호가 떨어지면 꺼내곤 하였다 (박국양 교수 회고).



최근의 Cineangiography 장비

서독 적십자병원

독일의 경우 의료지원활동이 정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동안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방 부는 6 · 25전쟁 68주년을 계기로 서독을 6 · 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독일의 의료지원 활동이 정전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지원 의사 전달은 전쟁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서독의료지원단의 임무가 전후 구호사업이 아니라 유엔군 지원을 목표로 했으며, 유엔군 산하 의료기관으로서 활동했고, 기존 물자지원국 기준도 정전 이후 활동을 포함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국방부는 늦었지만 서독의료지원단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역사의 일부로서 영원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산 서독적십자병원 모습. 6·25 한국전쟁직후였던 1954년부터 1959년까지 부산 서독 적십자병원에서 일했던 수간호사 수녀(샤를로테 코호수녀)가 106세까지 생존하였음도 확인되었다 (주독 한국대사관제공).



부산 서독적십자병원에 몰려든 환자들. 이 병원에서는 117명의 독일 의료지원단이 파견되어 우리나라 국민 25만 명을 치료하고 신생아 6,025명의 출산을 도운바 있다.

Ш

서독은 1953년 5월 6 · 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을 지원하기 위해 야전병원 파견 의사를 유엔본부에 전달하였고, 이듬해에 80여명 규모의 의료지원단을 부산으로 파견했다. 서독 의료지원단은 1954년 5월부터 1959년 3월까지 서독적십자병원이라는 이름으로 환자 진료, 출산 지원 및 의료진 양성 사업 등의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독일을 방문한 계기로 독일 6 · 25전쟁 의료지원단 엔지니어로 활동했던 칼 하우 저씨를 만나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고, 독일의 6 · 25전쟁 의료지원활동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2016년 11월 독일의 6 · 25전쟁 의료지원단 단원과 후손들을 한국에 초청하기도 했으며 독일이 6 · 25전쟁 의료지원국으로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에도 독일의 의료지원활동에 대해 예우해온 바가 있다. 이성행 교수는 회고록에서 '1954년에는 부산에 서독 적십자병원이 개설되었는데 서독에서 온 의료진이 극빈 환자 진료에 종사하였고 이 병원의 초청으로 이성행 교수 등이 폐엽절제술 등을 집도하였는데 특히 식도 협착에 대한 전흉벽, 공장, 식도재건술을 시행하기도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국방부는 2018년 6 · 25전쟁 68주년을 계기로 6 · 25전쟁 의료지원국에 독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 서독적십자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서독간호 사들이 한국의 고아를 업고 돌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전쟁직후 부산 서독적십자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



PICTORIAL HISTORY AND PIONEERS OF KOREAN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1968

선교 병원의 설립과 초창기 흉부외과수술

68 전주 예수병원

70 대구 동산병원

72 광주 기독병원 (제중병원)

74 부산 메리놀병원

75 부산 침례병원

2018

한국의 의료수준을 향상시킨 외국인들의 손길은 전쟁 중에 파견된 〈유틀란디아〉 병원선, 스칸디나비아 3국과 인도 이탈리아 병원부대, 121병원, 부산 서면의 스웨덴 적십자병원등과 한국전쟁 후 스칸디나비아 의료진에 의해 설립된 국립의료원, 서독 적십자병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전쟁전에 설립된 선교 병원들도 한국 흉부외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병원들로는 전주 예수병 원. 대구 동산병원, 광주 기독병원, 부산 침례병원, 부산 메리놀 수녀 병원 등이 있다.

전주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은 이름이 말해주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선교사에 의해 선교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이다. 1898년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북부 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마티 잉골드 여의사(Dr. Mattie B. Ingold)의 부인환자 진료로부터 시작되었다.

1935년 화재와 1940년 일제 신사참배로 문을 닫는 등 시련을 딛고 1969년 설대위 원장(Dr. David J. Seel)이 취임하면서 병원신축 등 발전을 크게 이루었고 1987년 정영태 병원장 이후 한국인 병원장이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58년 9세 어린아이에게서 장폐쇄증 수술을 할 때 1,063마리의 기생충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기생충박멸운동을 처음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에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폐절제술을 시행하여 광주지역에서도 결핵환자 수술은 모두 예수병원으로 보낼 정도였다고 한다.



전주 예수병원의 초창기 직원들 모습. 이곳에서도 1960년대 많은 폐결핵 환자에 대한 폐절제술이 이루어졌다.



전주 예수병원을 시찰중인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 (1959년 10월 9일, 정부기록물)



설대위 (Dr. David J. Seel) 원장에 의해 신축된 전주예수병원의 낙성식모습(1971년)



전주예수병원의 최근 모습

대구 동산병원

대구동산병원은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존슨(Woodbridge O, Johnson) 의료선교사에 의해 1899년에 설립되었다. 존슨은 약전골목 제일교회에 있던 초가 한 채에 제중원을 세우고 대구·경북 최초로 서양의술을 펼치며 근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대구 제중원은 1903년 현재의 동산동으로 이전했고, 풍토병 치료, 천연두 예방접종 등 보건계몽을 통해 우리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으며, 1909년 나환자 요양소(애락원 전신)를 설립하여 당시 만연한 나병퇴치 와 나환자 진료에 앞장섰다. 제중원은 제2대 플레쳐 (Archilbald G, Fletcher) 병원장 때부터 동산병원으로 불리 게 되었다.

1949년 취임한 제7대 마펫(Howard F. Moffett) 병원장은 국내·외 활발한 모금운동으로 병원 시설을 신축·확 장하고 현대식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동산병원이 종합의료원의 면모를 갖추게 하였다. 또 의사와 직원들을 의료 선진국에 유학 보내 유능한 의료인력으로 육성하여 1960~70년대 동산병원의 의술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동산병원은 1980년 계명대학교와 병합하여 1982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으로 거듭난 후 의과대학, 간호대학, 대구동산병원, 경주동산병원을 산하에 두고 진료와 선교를 넘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의료기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흉부외과분야에서는 국립의료원에서 수련을 받은 유영선 교수가 1978년 부임하여 동산병원 흉부외과의 심장 수술과 폐수술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큰 도약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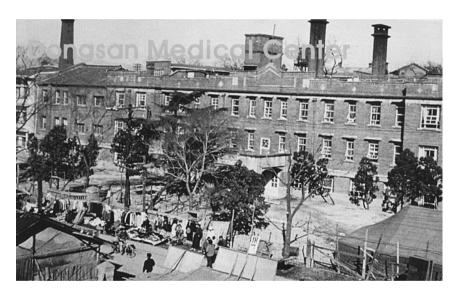
대구 제중원은 개원할 당시 제일교회에 속한 초가집에서 시작하였다. (대구 동산의료원 사진첩, 1899년)



미국약방으로 간판을 단 동산병원 초창기 약국(대구 동산의료원 사진첩)



1930년대 병원 모습(대구 동산의료원 사진첩)



1950년대 병원전경 (대구 동산의료원 사진첩)



최근 동산병원 전경 (대구 동산의료원 사진첩)

광주 기독병원 (제중병원)

제중병원(현 광주 기독병원)은 1905년 놀란 선교사 (Dr. J.W. Nolan)가 이 지역에서 최초로 현대의료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놀란 선교사는 1904년 8월 15일 한국에 도착하여 목포에서 의료사역을 시작하였으며 1905년 11월 20일 오후에 9명의 환자를 진료함으로서 광주에서의 의료사역을 시작하였다.

이후 2대원장인 Dr. Wilson에 의해 현대식 제중병원 (Ellen Lavine Graham Hospital)이 건립되었으며 3대 원장인 Dr. Brand가 화재로 소실된 제중병원을 재건축하고 결핵전용 병동을 신축하였으며 4대 원장인 Dr. Preston 때는 일제에 의해 병원이 폐쇄 되기도 하였다. 이후 5대 원장인 고허번 선교사 (Dr. H.A. Codington -미국 코넬의대졸업)가 1951년 재건하여 25년간 결핵환자를 치료하는데 헌신하였으며 특히 흉곽성형술을 많이 시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6대 원장인 심부선 선교사 (Dr. W.L.Simpson - 멜버른의대졸업, 일반외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는 부인과 함께 내한하여 1964년부터 폐절제술 등 결핵환자 치료에 전념하였다.

이전에는 폐절제술 대상환자들은 전주 예수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제중병원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제중병원은 이후 7대 원장인 이철원 선교사 (Dr. R.B. Dietrick)가 1976년까지 봉직하였으며 이후 한국인이 원장자리를 이어받아 오고 있다 (광주기독병원 홈페이지 자료).



광주 제중원의 최초모습(1905년 개원)



제중원의 뜻은 많은 사람을 널리 구제한다는 것이다. 1933년 화재로 소실된 후 재건축된 광주제중원 사진 (1934년)



광주기독병원의 최근 전경. 총 31개괴와 625병상의 규모이다. 기독병원에서는 1976년 이후 한국인 병원장이 부임하였다.

부산 메리놀병원

부산 메리놀병원은 메리놀 수녀회에 의해 1950년 개원되었으며 메리놀의원에서 시작하여 한국전쟁시에는 병원 밖까지 몰려드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메리놀 수녀회의 수녀들이 간호사와 의사로 봉사하였으며 한국인 최초로 윤금자 여자의사, 이생득 남자의사가 후에 합류하게 되었다. 1954년에는 미군부대의 도움으로 신축병원이 완성되었고 1965년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발돋움한 이후에 메리놀수녀회에서는 1967년 병원을 부산교구에 헌납하였다.

메리놀병원의 김 미카엘라 수녀와 연세대 조범구 교수와는 인연이 깊다. 조범구 교수는 회고 하기를 '1978년도 인가? 미8군 군의관이 하나 나와있는데 (토머스 페즐라) 이 사람이 흉부외과 전문의인데 수녀님이 있는데를 다니면서 심장환자가 있는데 나보고 수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갔더니 메리놀 병원 강당에 환자, 보호자가 가득 모여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한달에 한번씩 그 애들을 봐주러 가기 시작한게 25년 동안 다니게 된거에요. 그리고 여기저기 돈 모아서 해주고 그런식으로 해서 수술 굉장히 많이 해줬죠."라고 하였다.



초창기 메리놀병원의 수녀회 수녀들 모습



초창기 메리놀병원 수녀들의 간호모습



메리놀병원 수녀간호사에 의한 외래접수



메리놀병원 최초의 한국여자의사인 윤금자 선생의 진료장면

부산 침례병원

1955년에는 부산 왈레스 기념 침례병원이 개설되었고 Dr. Wright가 원장을 맡으면서 이성행 교수가 이 병원으로 초빙되어 폐수술과 승모판막 절개술 같은 심장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때로는 Mary Knoll병원의 환자 중 승모판 협착 환자를 침례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하였다고 한다. 마취는 미국인 수녀 마취의사가 도왔으며 부산 서독병원으로 출장하여 수술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부산침례병원의 현재 전경. 부산지역의 의료의 큰 축으로 활동을 하다가 최근 파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PICTORIAL HISTORY AND PIONEERS OF KOREAN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1968

한국전쟁 후 - 우리나라 흉부외과의사들의 역할

- 78 심장판막 수술의 시작 세브란스병원 홍필훈 교수
- 83 저체온법을 이용한 최초의 개심술 경북의대 이성행 교수
- 87 교과서 제작에 앞장서다 이찬범 교수의 강의록, 홍필훈 교수의 저서
- 92 폐수술의 개척자 유승화 교수
- 96 선천성 심장병수술의 시작 김영섭 교수
- 97 심폐기를 이용한 최초의 개심술 성공 서울의대 이영균 교수
- 102 폐식도외과의 발전 국립의료원 유회성 과장
- 104 한양대 흉부외과의 주춧돌 김근호 교수
- 105 심근보호의 연구 가톨릭의대 이홍균 교수

심장판막 수술의 시작

- 세브란스병원 홍필훈 교수

국내 최초 심장판막 수술의 역사는 1956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시작되었다. 미국 Baylor University Medical Center 에서 1954년까지 수련을 받고 1955년 귀국한 홍필훈 교수는 한국동란 후 시설과 장비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 차례의 동물실험을 거쳐 1956년 9월 6일 서울역 세브란스병원에서 승모판 협착증으로 고생하던 22세 남자환자를 폐쇄식 승모판 절개수술로 치료하는데 성공하여 우리나라 심장수술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어 1957년에는 활로사징증 환아에서 Potts—Smith 단락술 2례를 성공하여 1958년 대한의학협회지에 보고하는등 심장수술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홍필훈, 임의선. 활로씨 사징증 – 2 수술치험 보고—. 대한의학협회지, 1958;2:326).

최초의 승모판막성형술 성공 후 대한뉴스에서는 '세브란스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는 9월 6일 국내최초 심장절 개수술에 성공했습니다. 22세 유내영군은 2년 동안 호흡곤란으로 고통을 받아오던 중 조광현 박사의 진단으로 심장수술적응증이라는 것이 밝혀져 홍필훈 박사의 집도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의 왼편가슴을 절개하고 늑골 두개를 잘라낸 뒤 협착된 심장승모판으로 인해 호흡이 곤란하던 것을 넓혀주었습니다. 환자의 수술 후 경과는 매우 좋다고 합니다. '라고 비교적 자세히 보도하였다.

그 후 홍필훈 교수는 1961년 현재의 신촌지역으로 세브란스병원이 신축 이전한 후, 1962년 6월 8일에 저온법을 이용한 심방중격결손의 봉합에 성공했으며 이는 대구의대의 이성행 교수의 업적(1961년 9월 13일)보다 9개월 가량 늦기는 하나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진 쾌거라고 할 수 있다. 1963년 11월 20일에는 심방중격결손을 가진 18세 남자환자에게 처음으로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에 성공했으며 이는 서울대 이영균 교수 (1963년 3월 26일)보다 불과 8개월 이후의 업적이다. 이후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홍필훈 교수에 의해 다양한 판막질환과 선천성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홍필훈 교수는 세브란스의대출신으로 한국인으로서 미국흉부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최초의 인물이다. 1956년에 폐쇄식 심장판막 교련절개술에 성공하였고, 1962년 6월에는 저체온법을 이용한 개심술, 1963년 11월에는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에 성공하여 한국 흉부외과의 개척자역할의 큰 축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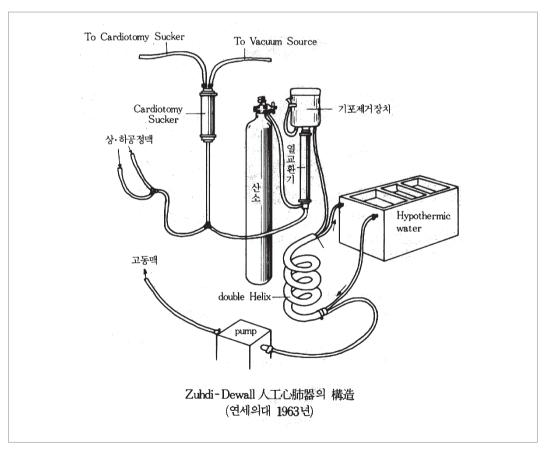


홍필훈 교수에 의해 1956년 9월 6일 성공한 최초의 승모판막절개수술(closed mitral commissurotomy) 성공 보도뉴스, 환자의 오른쪽이 홍필훈 교수이고 왼쪽은 조광현 교수이다.

홍필훈 교수는 1921년에 평양에서 개신교 목사 집안의 6남매 중 넷째로 출생하였으며 1942년 세브란스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였고 졸업 후에는 평양기독병원에서 인턴과정을 거쳤고 평안북도 만포에서 잠시 개업을 하기도 하였다. 해안경비대에서 2년 동안 복무를 하였고 제대 후에는 서울 교통병원 외과에서 근무하였는데 흉부외과를 하기 위해서 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도미하여 1949~1953년 뉴욕주의 Binghampton 시립병원 인턴과 일반외과 레지던트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953~1955년 베일러 대학병원, 파크랜든 기념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를 마친 뒤 1961년 미국흉부외과 전문의 취득함으로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흉부외과 전문의를 수료하게 되었다.

홍필훈 교수는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하였는데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귀가길에서는 무장공비의 총 탄과 마주쳤을 정도로 불안정한 시기였다. 세브란스병원도 정전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돗물이 단수가 되기 일쑤 였다. 1956~1967년 세브란스의과대학 외과학 교수와 1969~1980년 하와이대학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였 으며 1980~1984년에는 모교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봉직하였고 1984년부터 2년간 제7대 의무부 총 장 겸 의료원장을 맡아 의료원의 발전을 이끌었다. 1987년 3월 2일 정년퇴임을 한 후 2004년 하와이에서 별 세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 홍필훈 교수는 원칙주의자이자 엄격한 스승으로 유명하여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특히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가 조금이라도 어설프면 즉시 불호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직 의사들은 수시로 환자상태를 체크하여 보고에 대비하였는데 환자 때문에 전화를 하면 새벽 2시건, 3시건 짜증을 내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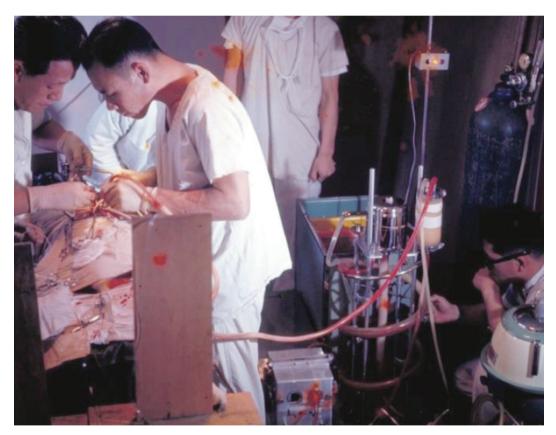
홍필훈 교수에 의해 사용되었던 Zuhdi-Dewall 심폐기의 구조 (1963년)



1950년의 홍필훈 교수



홍필훈 교수는 김봉화여사와 1956년 10월 5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두었는 데 첫째인 Sleve와 둘째인 Walter는 의사이고 셋째인 Robert는 은행원이다.



홍필훈 교수가 초창기 동물실험 때 사용했던 Sigma-Motor pump로 helical reservoir oxygenator와 heat exchanger를 구비하고 있었다.

의대洪弼勳교수에게FACS수여

"American college of Surgeonsol 4"

이번 본대 野正 의과 대학 홍필 甚里个七 American College of Surgeonsol. 수여하 Fellow



of American College of eons를 지난 7월14일자로 수여 반

Fellowship & American colle 공 ge of Surgeons에서 지정한 기관 에서 연구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일정한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 하는 것으로서 한국에서는 이번이 로는 본 대학교 의과대학 의과과장 민광석(開光被)淳士가 수여 받은 바일다.

그런데 이번에 F.A.C.S.를 받은 홍교수는 금년 A.C.S.부터 수여발 은 31人中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과거 美國의 Binghamton City Hos pital (1949~1953), Baylor Universi ty Hospital (1953~1954). Parkla nd Memorial Hospital (1954~195 5)에서 타낸간 연구 하였으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휴작외과의 토서 의고 권위자로 알려져있는 바이다. 또한 홍교수는 지난 3월 28일에 A 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 Is에서 수여하는 F.C.C.P. (Fellow of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 sicians)를 받은바 있으며, 한편 박사에게는 China Medical Board로 부터 연구비로서 6000분을 받게 되 었다고 한다.

이번에 F.A.C.S.를 받은 홍교수는 앞으로 더욱 그의 심혈을 기우려 많은 일을 하여 보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젊고 유능한 홍교수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큰 바 있다.

개최하리라 한다.

그런데 봉 발표회는 전국 대학원 정,상, 농정학과 재학생들로서 인상 자들에게는 각 대학총장을 비롯하 여 각계 인사들의 시상이 있으리라 한다.

한편 등 학회에서는 많은 일반 한 생들의 경청을 바란다고 한다.

(9일은 2시부터) (10일은 9시부터)

의대 SCA 임원개선

기독학생 활동을 활발히 하고있는 의과대학 S. C. A서는 57년도 이학 기를 맞이하여 정기총회를 의대[에 비슨] 홈에서 개최하였다. 먼저 김 상익회장의 사회로 무의 농촌사업용 무번째로 수여 받은 것이미 첫번째 비롯한 경과및 결산보고가 있은 다 음 이어서 이학기 임원개선으로 들 어갔다. 투표결과 새로운 임원은 아래와 같다.

> 장 張日雅 半 회 장 張星文 平 文英基 刘 对 李戴官 기 権又善 종교부장 全東數 지육부장 李星浩 봉사부장 金永明 ﴿



지난 10월23일 본교구장에서는 실|최 업야구팀의 패자 조선 운수팀을 마 지하여 친선 야구전을 지행 하였다.

홍필훈 교수는 미국 American College of Surgeons에서 Fellow 자격을 수여 받았다. 이 사진은 1955년 (단기 4288 년) 연세춘추 제2권 112호 1면에 보도 된 홍필훈 교수의 FACS 수여내용



홍필훈 교수의 집도로 1963년 11월 20일 인공 심폐기를 이용하여 개심술에 성공한 첫 환자



1987년 촬영한 세브란스 익국원들 모습. 아랫줄 가운데가 홍필훈 교수이고 왼쪽에 홍승록 교수, 오른쪽에 조범구 교수가 보인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혈관센터에서는 2016년 2월 24일 홍필훈 교수의 흉판제막식을 가졌다. 흉판 우측에 조범구 교수, 장병철 교수, 박영환 교수가 보이고 좌측에 강면식, 백효채, 유경종 교수가 보인다.

저체온법을 이용한 최초의 개심술

- 경북의대 이성행 교수

동강(東崗) 이성행(1919년) 교수는 경남 창원출생으로 1942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으며, 1949년 대구의과대학(경북대 의과대학)에 조교로 부임했다. 1954년 11월 한미재단 장학금으로 도미하여 미국 George Washington대학 흉부외과에서 레지던트과정을 마치고 Pittsburgh 대학 흉부외과에서 fellow 과정을 연수하였다. Allegeny 종합병원에서 본격적으로 흉부외과를 전공한 뒤 1957년 8월에 귀국했다.

1950년대 초는 세계적으로도 심폐기가 개발되어 사용되기 전으로 심장수술을 하려면 저체온법을 사용하거나 심장병을 가진 어머니의 심장과 폐를 이용하는 미네소타 대학 Dr. Lillehei 의 소위 'cross circulation'법이 전부였다.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수술은 1950년대 후반에 자리를 잡게 된다. 저체온법은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1952년 9월 2일 미네소타대학의 Dr. Lillehei에 의해 성공하였고 심폐기를 이용한 수술은 1953년 5월 6일 필라델피아의 Dr. Gibbon에 의해 18세된 대학생 환자(ASD)에서 처음 성공하였다.

한국에서는 1961년 9월 13일 경북의대 이성행 교수에 의해 선천성 심방중격결손증을 가진 8살 소년에게서 저체온법을 이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심술이 성공하였다. 이성행 교수가 이 당시 사용한 저체온법은 1954-57년 조지 워싱턴대학 유학시절 Dr. Blades의 지도하에서 연수한 방법이었다. 환자를 전신마취한 후 얼음물속에 넣어 소위 체표냉각법으로 냉각하였으며 체온이 32도일 때 환자를 얼음물에서 들어내어서 수술대위에 눕히고



대구의대 시절의 이성행 교수

그 다음 가슴을 열고 심장을 노출하면 체온은 계속 하강하여 29-30도에 머물게 된다. 30도 이하로 체온이 하 강하면 심실세동이 오기 때문에 이 온도를 유지하면서 혈류를 차단하고 심장봉합을 하는 것이다. 이성행 교수는 유학 후에 50여 마리의 개실험을 통해 저체온법 수술을 익혀오던중 1961년 9월 13일 역사적인 저체온법하 개심술에 성공한 것이다. 이성행 교수의 나이가 42세 때의 업적이었다. 참고로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은 서울 대 이영균 교수에 의해 선천성 심방중격결손증을 가진 28세 남자에게서 1963년 3월 26일 성공하게 된다. 이성행 교수는 폐외과의 선구자인 대구의대의 고병간 교수의 문하생으로 흉곽성형술, 폐절제술, 식도 위문합술 등을 1949년부터 조교(당시 부의무관)로서 참여하였으며 1958년도에는 심도자법을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같은 해 건강인의 폐기능 검사를 처음으로 측정하여 발표하기도 함으로서 명실공히 한국의 폐, 심장외과의 개척 자로 위치를 확실히 하였다. 1974년 흉부외과 학회장, 1982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대구 YMCA와 대한 YMCA연맹의 이사장을 지냈으며 불우 청소년의 직업교육사업도 추진하였다. 또한 대구 YMCA에 속한 의대생과 약대생들로 구성된 아스트라스클럽을 조직하여 20여년동안 무의촌 봉사를 하기도 하였다. (1989년 연세대학교 총장 박대선 회고)



대구매일신보에 실린 2013년 특별 기획 취재기사중 대구를 빛낸 의료인 특집 기사 8편에 〈심장과 폐의 선구자-고병간,이성행,박희명〉을 집중 조명하였다.



국내최초로 저체온법을 이용한 개심술(1961년 9월 13일)을 받은 환자 (가운데)가 27년이 지난 1988년 건강한 모습으로 이성행 교수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최초의 개심술 기념강연회(1998년 9월 12일)를 보도한 언론자료 및 기념강연회 포스터, 저체온법을 설명하면서 동물의 동면원리를 이용하여 수술하였다고 신문기자에게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字型汗教授 胸部外科小史 古稀自述

1980

이성행 교수는 1989년 고희(70세)를 맞아 집필한 〈胸部外科小史〉에서 유승화 교수의 〈還甲記念論文集〉에서처럼 흥부외과 초창기 역사에 대해 소상히 회고하여 흉부외과 역사의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되고 있다.

V

東崗 李聖行 教授 略歷

原 籍:慶南 昌原郡 東面 本浦里 418

本 籍:大邱市 中區 三德洞 1街50

現 住 所:釜山市 沙下區 槐亭洞 國際아파트1-201

學歷, 經歷 및 受賞

1925年 4月 昌原郡 昌原公立普通學校

1928年 4月 昌原郡 東面 新方公立普通學校

1931年 3月 馬山 昌信學校長 卒業計

1932年 11月 慶南 濠州基督教宣教會 中學獎學生으로 選拔됨. 이 宣教會에 서 美國宣教會 教育機關인 大邱啓聖學校에 應試케 함

1933年 4月 大邱 啓聖學校에 入學함

1938年 3月 同校 卒業計. 本校開校 以來 처음으로 慶尙北道教育會賞을 受賞함

1938年 4月 서울 세브란스 醫學專門學校에 入學함

1942年 9月 同校号 卒業計

1942年 10月 大邱 東山基督教院 인턴

1943年 12月 慶南 固城郡 固城邑에서 醫院을 開設함. 固城郡 公醫任命

1949年 2月 大邱醫科大學(現 慶北大學校 醫科大學의 前身)의 外科의 副醫 務官으로 勤務

1949年 3月 同 大學의 助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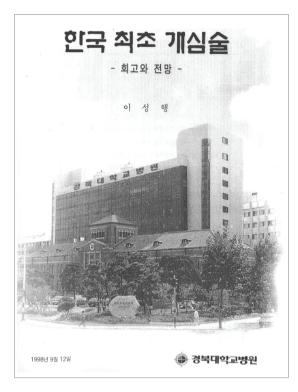
1950年 6月 同 大學의 講師

1950年 6月 20日 馬山 交通療養院에 派遣勤務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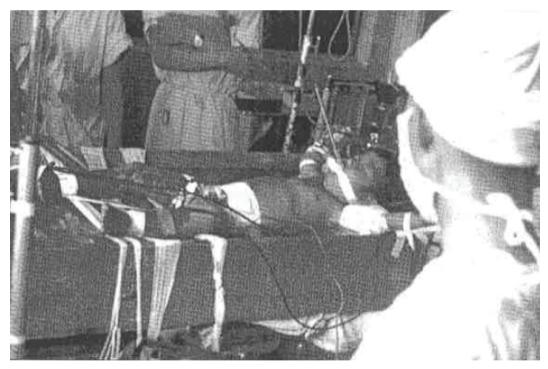
1950年 6月 25日 六・二五事變 勃發하여 大學病院은 陸軍이 使用함

1952年 4月 1日 派遣勤務 끝내고 大學病院으로 復歸하여 大學病院의 南 쪽 一棟을 軍에서 明渡받아 大學病院으로서 再出發함, 外科의 專任講師로 任命됨

1953年 6月~7月 陸軍軍醫學校 初等軍事班課程을 履修함. 陸軍大尉로 豫編됨



이성행 교수는 1998년 발간한 '한국최초 개심술 – 회고와 전망- '이라는 소책자에서 저체온법을 이용한 개심술에 대해 소상히 기록해두고 있다.



저체온법을 이용한 개심술 수술 당시 저체온을 유도하기 위해 수술대위에 저온탱크를 설치한 당시 사진모습

교과서 제작에 악장서다 - 이찬범 교수의 강의록, 홍필훈 교수의 저서

초창기 흉부외과를 가르쳤던 교수들은 무슨 교재로 학생들을 가르쳤을까? 당시에는 외국교과서를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여건이 아니고 종이 한 장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학생들은 교수들이 가르치는 말을 종이에 필기해서 외웠을 것이다. 그런 시대에 학생을 교육하겠다는 집념으로 직접 자필로 강의록을 작성한 이찬범 교수와 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한 세브란스 홍필후 교수의 열정은 가히 본 받을 만하다.

서울의대의 이찬범(李燦范) 교수(1915-1967)는 국내 흉부외과 개척자중의 한사람으로 1957년부터 1967년 암으로 투병 사망하기까지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을 역임하였다. 경성제대 의학부(1941) 출신으로 외과 의사로 활약하다 6·25동란과 함께 육군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흉부외과 특히 흉부전상환자에 대하여 흉부 파편 적출. 만성농흉에 대한 흉막박피술 등을 시행하였고 특히 1953년 8월 13일에는 폐 부분절제수술을 성공 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군의관시절인 1952년에 미육군병원인 Fitzimons 병원에서 연수할 때 구입한 두 권 의 책을 후에 서울대 병원에 기증하기도 하였는데 이중 한권의 맨 마지막에는 '1952년 10월 19일 밤 미국 콜 로라도주 덴버시의 Fitzimons 육군병원 BOQ에서 이 책을 완전히 읽었다'라는 서명을 남기기도 했다.

이찬범 교수가 서울대 의대 외과에 근무할 당시 상황은 미네소타에 이영균 교수가 파견되어 연수 중이었고 미네 소타에서는 Dr. George Schimert가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에 자문관으로 파견되어 흉부외과 수련을 담당하고 있 었다. 따라서 이찬범 교수는 Dr. Schimert와 같이 근무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후 미네소타에 연수를 마친 이영균 교수가 1959년 귀국하면서 이찬범 교수가 자연스럽게 미네소타로 연수를 떠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찬범 교수는 Dr. Schimert와 함께 1957년에는 활로 4징으로 확진된 증례에 전류(轉流) (shunt) 수술을 실시 하였으며 1950년대 말에는 개방성 동맥관에 대한 수술을, 1958년 10월에는 승모판 협착증에 대한 교련 절개 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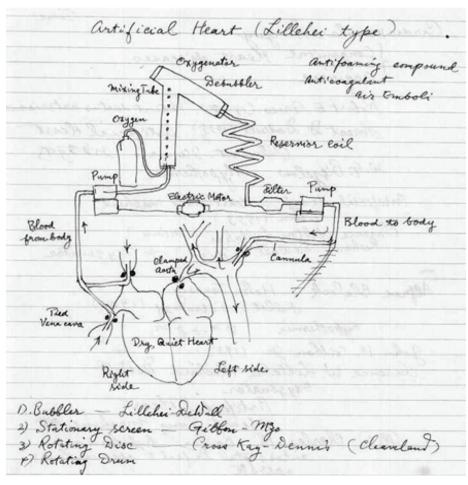
1957년 군의관생활을 끝내고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를 새롭게 책임지게 된 그가 임상진료 이외에 당시 학생 교육에도 큰 책임과 의무감을 느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이찬범 교수의 생전 학생강의 록이 발견되었다. 전량 자필로 기록된 이 강의록과 시험문제는 1957년 초부터 1959년 미국 미네소타로 연수 를 떠나기 전까지 2년 반에 걸쳐 만든 것으로 총 27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75편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어 서 국내 흉부외과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소중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강의록과 시험문제를 보면 학생교육에 대해서 매우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이 강의록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일반 흉부질환에서는 오늘날의 취급 질환과 크게 다르지 않아 폐, 식도, 횡경 막, 기관 등을 기술하고 있고 심혈관질환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듯 선천성 질환 일부 (개방성 동맥관, 대 동맥 축착증. 팔로 사징증 등)와 승모판 협착증 등 일부 후천성 심장질환 만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김원곤 교수는 이 저서를 직접 읽고나서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 자료구하기도 쉬운데다 그림도 복사기를 이용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당시에는 직접 그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강의록에 있는 그림 은 컴퓨터 등 첨단기기가 발전한 오늘날에서 볼 때에도 한 개인의 흔적을 떠나 그 존재 자체로서 이미 역사이 며 경외심마저 느낀다'라고 적었다. (김원곤. 50년전 한 흉부외과 의사의 강의록. 대한흉외지 2009.42;807-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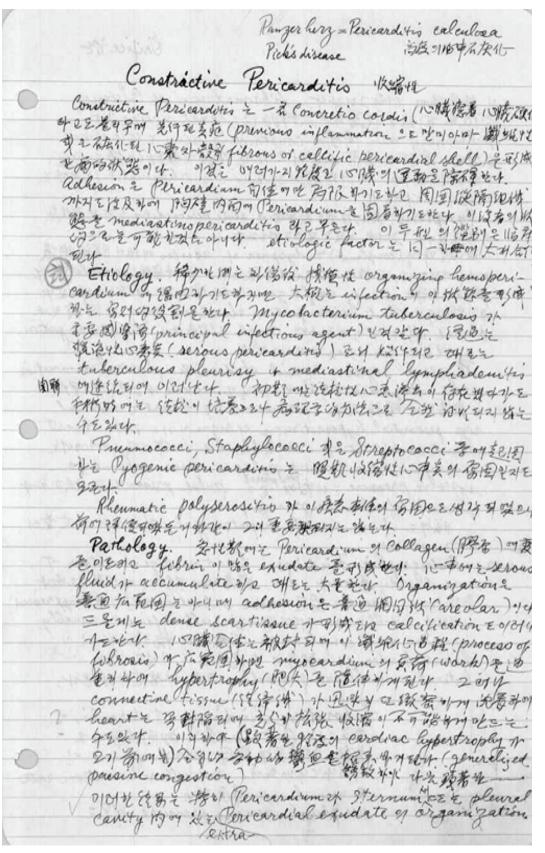
또한 서울의대 15회 졸업생인 재미의사 최지원씨의 회고에 따르면 이찬범 교수도 '장기려 박사와 같이 수술을 해주고 수술비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당시 한국 최고의 갑부인 이병철씨가 하지에 불치의 피부병이 발생하여 여러 피부과에 가보고 일본 동경에도 가보았으나 못고치는 것을 이찬범 교수가 피부이식으로 고쳤다. 그런데 이찬범 교수가 치료비를 받지 않아 장충동 집을 이병철씨가 제공하여 두 딸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 이찬범 교수의 따뜻한 인격이 드러나 보인다. 세종병원 박영관 이사장의 회고에 따르면 본인이 흉부외과를 하게 되었을 때 분위기가 '서울대학교 이찬범 교수와 이영균 교수가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 폐, 식도, 심장수술까지 하면서 흉부외과라는 학문이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1964년도에 미국에서 돌아와 서울의대 교무 과장을 역임하였으며 1967년 8월 19일 51세로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아울러 홍필훈 교수도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흉각외과학" 교과서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이 저서는 표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화의대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저술한 것으로 세브란스병원외에 이화의대에 가서도 강의를 했음을 알수 있다. 책제목이 흉곽외과가 아니고 '흉각외과'로 되어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이 책은 현재 연세의대 내의 동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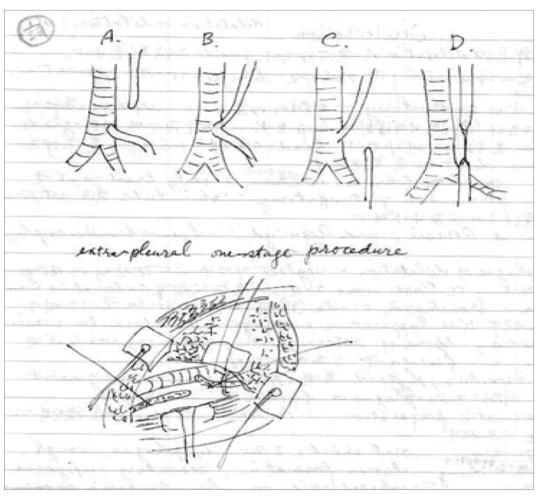
이찬범 교수의 자필 강의 노트중 'Artificial Heart (Lillehei type)'에 대한 강의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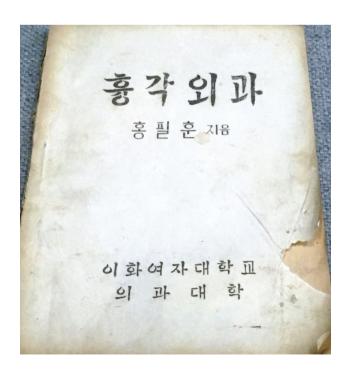
이찬범 교수의 강의록 중 'Constrictive Pericarditis'에 대한 강의록 일부분. 당시에는 결핵성 늑막염, 심낭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0년대 말 한격부 교수의 첫 심장수술도 심낭염에 의한 심낭비후 환자에서의 심낭절제술이었다.

	500		· -exacety/	SERVICE SERVICES
	13		Inspiratory capacity	#2 at
	147		MAN	泛往.
	*17-1-	1	maximal Ins	pereture
10	1	Inspiratory	Nital Capacity	Copins
157	12 10 138	Inspiratory Reserve Vol.	1 intercepting	TO THE
	1 1 3	3 30 30 30 30	1 0.49	white on Fterke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Reating 11/1/	17/17 anies 2	napiration Fig. 34
	3 0	Resting Tidal Wol.	Equilis	Chium Bose line
	S T Y WE WE	Fanisatory	17	laium Base line
	7414	Reserve Vol.	Ø	
	100		1 Maximal 3	X/2/Lation 数大時免侈
	1 大学 改美	Thue	The sales	数大呼免伦.
	1 1 2 2	True Residuel Vol.	AND THE STREET	•
_	W V 1 1 1 K		8 17 182 W.D C 2018 b	能股化.
	0		The state of the s	MILIT.
	Subdine	non of lung volume	. Terminology as sugge	sted by
	SI-NIME	May Condition	00 000	appenheimer
	0.1.	. 6. 1. Sun 7	AND AN ISSUED TO THE TOTAL OF THE	(1950)
	lquelibr	ium [i:Kwilibriam]	8.3 (1995)	
		54	2 - 7 - 1 - 2	
		Total capacity	5500 CC	
		Inspiratory expects	re vol 4000	-03
		Fortunt ory capacit	1500-20	00 4000
		Expersetory Resers		7,000
		Resting Fedel Vo True Residual	Time Joo	,
		The table of	1000	-
	,	-54	188 - 0	
	ventilate	ory cue le sellottes	positoyy) lung no	lume &
	1 7 7 34 4	Hotal was tolar	of total lung capa	CYT(TC)
	equities	brium capacity o	(2) Residual volum	e (RV) &
	(Chest or	\$0381 expansion	可可以是对如 新维斯	課 姓名
	(closed	-circuit rebreath	ing system) 179 &	3047hd 12
- 4	1227	2 00 0% (Switch) to	12 3x1 12 8 44 Holch	1 2 1 1 2 1 N
_44	1 102 1	The equilibrium o	apacity 3 78110 -	12 emiratory
_	reserve	- volume & it shop	residual volume	274976716
-	1004	A STATE OF THE PARTY OF THE PAR		
_	(家路	Eresiduelair ir	22 Wint & funct	ional
	Midera	V Warune (FRV)	キールショントングなどは	0/2/4/15/6/
	4 供完工	Ech: up nitrogen	党使用外之间的对人	98818
		Capacity	7. 7 - 1.17	

호흡곡선을 직접 그리고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여 놓은 노트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여 전혀 오래되어 보이지 않는다.



한눈에 보아도 식도-기관지 누공에 대한 type을 기술한 노트인데 위에 '誠'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에게 출제한 시험문제 (試驗問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홍필훈 교수의 초창기 '흉각외과' 교과서.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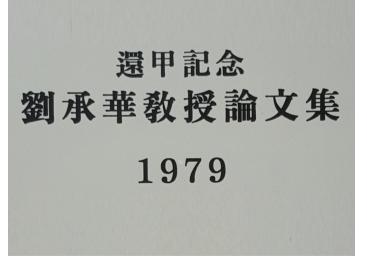
유승화 교수는 1943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현 연세의대)를 졸업하였다. 한국전쟁 중에는 이성행, 이찬범 교수와 같이 유틀란디아호에서 두달동안 수련을 받기도 하였다. 세브란스 外科副手(현 조교수에 해당)에 근무 중국립 마산결핵요양원외과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에 고병간 교수의 한국 최초의 흉곽성형술과 폐절제술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1956년 미국 Michigan의 Herman Kiefer병원 및 Harper 병원에서 흉부외과 레지던트를 이수하고 Pennsilvania주 Philadelphia시에 있는 Hahnemann병원 (Bailey Clinic)에서 흉부외과를 연수하였다.

1959년 이화의대로 복귀하여 우리나라 폐장외과 발전에 큰 공을 세웠으며 1964년에는 동생 유승헌 박사와 같이 삼일병원을 개원하였고 1972년 흉부외과 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유승화 교수는 이성행 교수 등과 같이 대구의대의 고병간 교수 문하에서 폐결핵에 대한 폐수술을 개척하였는데 본인이 저술한 자서전에서도 고병간 교수를 스승으로 매우 존경했다고 한다.

유승화 교수가 참여한 고병간 교수팀의 수술은 해방 후 여러가지 의학적인 여건으로 보아 도저히 폐절제술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1940년대 말에 폐결핵 환자에 대한 전폐절제술 2례를 수술하였는데 2례 모두 국소마취하에 multi—ligation technique을 사용했었고 수술 후 환자는 생존하였다. 그 제1례는 1948년 6월 7일 고병간 선생이 대구에서(경북의대) 시행하였고, 제2례는 1949년에 유승화 교수가 마산국립결핵요양소에서 집도하였음이 보고되고 있다. 유승화 교수는 1948과 1949년 불과 2년 동안 마산결핵요양원 외과에 근무하면서 총 흉곽성형술 15례와 폐전적출술 2례를 집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마취술이 전무한 해방 후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소마취 하에서 폐를 허탈시키고 이러한 수술들을 집도하였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되는 어쩌면 무모하기까지 한 수술이었다는 점에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유승화 교수는 고병간 교수를 매우 존경하였으 며 그의 폐결핵수술의 기법을 가장 잘 전수받은 제자로 알려져 있다.



유승화 교수의 화갑기념 논문집은 초창기 흉부외과의 역사 특히 폐수술의 역사를 잘 기록하여 이성행 교수의 기록과 함께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흉부외과 학회 사본 보관중)

劉 承 華 教授 略歴

本 籍: 서울特別市 中區 新堂洞 402-8

住 所:서울特別市 冠岳區 大方洞 375-22

姓 名:劉承華(劉銓의 三男) 學歷 및 經歷

生年月日:1919年 5月 23日

		生年月日 . 1919年 5 月 23日
1939年	3月	京城第一公立高等普通學校 卒業
1943年	9月	세브란스醫學專門學校卒業
1943年	10月	세브란스醫學專門學校 外科副手
1948年	9月	國立馬山結核療養院外科 勸務
1949年	8月	세브란스醫科大學 專任講師
1950年	11月	陵軍大尉任官
1952年	1月	丁抹病院船 Judlandia 派遣勸務
1954年	12月	陸軍少領으로 豫編
1954年	12月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 副教授
1956年	1月	美國 A.C.C.P 會員
1956年	7月	美國 Michigan 洲 Detroit市 Herman Kiefer Hospital 및 Harper
		Hospital 胸部外科 Resident
1958年	7月	Pensilvania 洲 Philadelphia市 Hanneman medical College
		Thoracic Surgery (Bailey Clinic) Fellow
1959年	11月	梨大復職
1960年	3月	教授被命
1960年	5月	大韓外科學會 常任理事
1961年	9月	醫學博士學位(서울大)
1962年	5月	外科專門醫
1964年	8月	梨大辭職 同講師
1964年	8月	三一病院 開業
1964年	10月	大韓外科學會宿題報告"重症肺結核의 外科的 療法"을 畢む.
1965年	5月	延世大醫科大學外來教授
1968年	5月	大韓胸部外科學會創立委員 및 常任理事
1970年	10月	A.C.C.P. 第十一代會長
1970年	5月	胸部外科專門醫
1970年	5月	大韓胸部外科學會副會長
1972年	5月	大韓胸部外科學會 會長
1974年	5月	大韓胸部外科學會諮問委員
1974年	9月	慶熙大學校 外來教授

나의 回顧

中・日戦争이 한참이던 1943年에 세브란스醫專을 卒業한나는 在學時에 가 장尊敬하던 高秉幹教授의 門下에 副手로 入局하였다. 故高秉幹教授는 先親 (前세브란스醫專化學教授, 京都大卒, 工學士)과도 親分이 있어 入局은 容易 하였다. 高教授는 意慾이 大端하시고 進取性이 強한 外科醫였다. 高教授는 세브란스醫專外科教授로 就任하신後 日本 京都大學 鳥瀉教室에서 外科學을 工夫하시였다. 이鳥瀉教授는 獨逸의 Sauerbruch氏門下에서 胸部外科를 工 夫하였다한다. 이러한 緣由로 高教授는 一般外科는 勿論, 胸部外科에도 積 極性을 가지시고 肋骨結核의 肋骨切除及一期縫合이라든가 肺結核에 関한 虚 脱療法의 一種인 Sauerbruch 氏法에 依한 paravertebral extraperiosteal thoracoplasty等을 手術하시였다. 勿論 나도 이러한 手術에 末席이나마 参與 하였다. 이 paravertebral extraperiasteal thoracaplaty 라는는것은 背部에 20~25cm의 縱切開를 加하여 第2肋骨부터 第8.9肋骨까지를 露出시킨後各 肋骨을 約4~7cm式 切除함으로써 肺結核의 空炯을 壓縮閉鎖시키는 肺結核 의 外科的療法이였다. 참으로 凄惨한 手術이였다. 이러한 手術도 當時에는 局所麻醉로 實施하였으니 至今 生覺하면 醫師나 患者나 모두 大端히 毒한사 람이었다.

1945年 韓國은 解放을 맞이하였다. 우리 外科에도 많은 變化가 왔다.

即 敬愛하던 高秉幹教授는 大邱醫大學長으로 榮轉되여 가셨다. 其後 세브 란스醫大外科는 2個의 Service group으로 分離되어 나는 朴鏞源教授를 모시게되었다. 朴教授는 日本 慶應大學出身으로 解放前에 學位를 받으시고 解放後 세브란스醫大에 副教授로 就任하시였다. 朴教授는 性品이 温厚하신 키가 훌쩍큰 青年外科醫였다. 同時에 最新醫學을 두루工夫하신 秀材型으로 先生의 醫學知識은 一般外科,整形外科,腦神經外科까지 四通八達 無窮無盡하였다.

나는 朴教授에 師事하여 不撤晝夜 外科工夫에 專念하여 좋은 外科醫가 될 것을 決心하였다. 朴教授도 醫局員指導에 專念하시었다. 많은 새로운 手術도 배웠다. 即 Lamincstomy, Cisterna puncture, joint의 mobilization等等 새로운 많은 手術手技를 익혔다. 其當時에 처음으로 論文을 쓴것이 1. 特發性大網膜炎의 一例, 2. 脊椎카리에 쓰의 統計的觀察 3. 盲腸壁의 部分

유승화 교수는 1979년 서울 대방동 자택에서 저술한 그의 논문집에서 약력과 함께 회고록을 적었는데 대한민국 폐외과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소 상히 밝히고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자료 – 이대 김광호 교수 제공)



삼일병원 설립자인 산부인과 전문의 유승헌 원장은 유승화 교수의 친동생으로 유승화 교수를 '우리나라의 흉곽외과의 pioneer야. 폐절제술하고 미국 Herman Kiefer 병원에서 5년동안 공부하고, 이주 유명한 사람이지'라고 회상하였다.

선천성 심장병수술의 시작

- 김영섭 교수

선천성심장병 수술은 세계적으로 Dr. Gross 에 의한 PDA ligation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활로씨 4징증 (TOF) 환자에 대한 Blalock—Taussig 단락 수술이 1940년대에 이루어진데 비해 한국에서는 전남대학교병원의 김영섭교수에 의해 1953년도에 청색증이 있는 환아에게 폐동맥판막 확장술을 실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6 · 25 전쟁 이후 군산도립병원에 파견되어 영국 의사들의 선진 의학에 영향을 받은 김영섭교수는 당시 국소마취하에 선천성 폐동맥 협착증 (활로 4징 추정)에 대한 폐동맥 판막 절개술을 시행하였는데, 늑연골을 제거하고 폐동맥을 절개한 후 확대기를 삽입하여 협착부를 확대하였다고 하였으며 3례 중 2례에서 수술 후 운동량이 증가하였다고 강연 초록에서 보고하였다. 이 보고는 선천성 심장 질환 영역의 수술에 대한 최초의 연구 업적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선천성 심장 수술의 초석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성행교수의 회고록)



김영섭 교수(전남대학교 교수, 농촌개정연구소 근 무)

심폐기를 이용한 최초의 개심술 성공 - 서울의대 이영균 교수

서울의대의 이영균(李寧均) 교수(1921-1994)는 1921년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 춘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 였고 1944년에 서울의대 전신인 경성의대를 졸업하였으며 서울의대 외과학교실에 재직하였다.

1957~1959년 2년간 당시 미네소타프로젝트(The Minnesota Project)의 일환으로 미네소타 대학병원에서 연 수 중에 Dr Lillehei와 인연을 맺게 된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한국전쟁 후 1955년부터 1961년 까지 당시 한국 의 대표적 국립대학이었던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재건 프로그램이었다. 이영균 교수는 이 프로젝 트에 참여하여 (추후 이찬범 교수가 참여) 당시 태동기과정에 있던 한국 흉부외과의 초기 개척자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영균 교수는 귀국 후에 다시 1965~1966년 스웨덴의 Upsala대학에서 연수하였으며 1968년 서울대 병원 외 과에서 흉부외과를 분리 독립시키는 등 서울의대 흉부외과학교실과 한국 심장외과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이영균 교수는 미네소타대학의 Dr. Lillehei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야기 할 수가 없다. 그것은 6 · 25동란 후 서 울대학교 전체가 미네소타 프로젝트와의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미네소타 프 로젝트에 의해 이영균 교수가 미네소타대학의 Dr. Lillehei에게로 연수를 떠났고 이후 이찬범 교수는 이영균 교 수가 귀국한 후 폐외과를 배우기 위해 미네소타대학으로 연수를 다녀오게 된다. Dr. Lillehei의 문하에서 심장수 술을 배운 이영균 교수는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지속적인 서신교환을 통해 본인의 처한 상황과 심장수술의 진 척도를 알려주게 되며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게 된다.

195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Dr. John H. Gibbon에 의해 심폐기를 사용한 심방중격결손증 수술이 성공(1953)하 기는 했지만 이후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던 때였다. Dr. Lillehei는 교차순환(cross circulation)이라는 천재적인 기법으로 미국 미네소타에서 1954-1955년에 걸쳐 45례의 소아환자에서의 개심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는 교육에도 큰 관심을 보여 많은 국내외 흉부외과 의사들을 양성하였는데 이영균 교수 외에도 Dr. Norman Shumway, Dr. Christian Barnard, 기포형 산화기를 개발한 Dr. Dewall 등이 그의 제자들이다.

당시 한국의 초창기 개심술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는 이영균 교수가 Dr. Lillehei에게 보낸 편지 중 몇몇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영균 교수가 Dr. Lillehei에게서 심장수술을 배우고 귀국한 해인 1959년 8월 7일에 서울대에서 최초의 심장수술이 시도되었지만 이후 연이어 실패를 거듭하기만 하여 좌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하 기가 힘들 정도 였을 것이다. 1961년 3월 14일 편지에는 심장수술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당시 한국의 비참했던 재정적 환경에 대해 숨김없이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학장과 두 교수들이 3번의 수술에 필요한 혈액을 살 수 있는 돈을 도와주었습니다.'라는 글에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당시 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 특히 편지 말미에 쓴 '저의 집에서는 심폐기에 대한 이야기 를 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의 4세 된 딸조차도 뜻도 모르면서 심폐기를 말하기도 하고 어 린 한국아이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당신의 이름도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초창 기 심장수술 개척자들의 열정이 그대로 느껴져 사뭇 숙연해지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1961년 7월 10일자 Dr. Lillehei의 답장을 보면 Dr. Lillehei는 디스크 수술을 받은 그의 개인적 근황과 함께 이 영균교수가 요청한 헤파린용액을 보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11일자 편지에서 당신이 요청한 대로 헤파 린용액 500 cc 72병을 무료로 보냅니다. 이 500cc 병에는 1.500units의 Penheparin이 들어있습니다...(중

략)...답장 늦게 해서 미안합니다. 최근에 경추디스크 수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후략)' 오늘날에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항응고제인 헤파린조차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였던 당시의 정황과함께 제자의 요청들에 흔쾌히 응하고 있는 Dr. Lillehei의 모습에서 끈끈한 사제지간의 정을 엿볼 수 있다. 이영균 교수는 1963년도 3월 26일 심방중격결손증 환자를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로 성공을 하고 나서 다음날인 3월 27일 자 Lillehei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침내 7, 8번째 수술에서 생존 case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중략)이 성공은 비록 보잘 것 없지만 제가 귀국한 뒤 줄곧 저의 목표였습니다. (중략)저의 바람은 단지 동물실험과 환자수술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963년 6월 6일 Dr. Lillehei는 이영균 교수에게 "당신이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심술을 훌륭하게 출발시킨데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승리는 종종 가장 어두울 때 오기 때문입니다"라고 답장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원곤. 50년 전의 편지에서 오늘의 흉부외과를 되돌아 본다 -1958년 4월에서 1981년 12월까지 고 이영균 교수와 닥터 릴리아이와 연관된 서신 39편의 분석~. 대한 흉외지 2009;42:543~559)



이영균 교수(1921-1994년)



이영균 교수가 개심술 100례를 마치고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 (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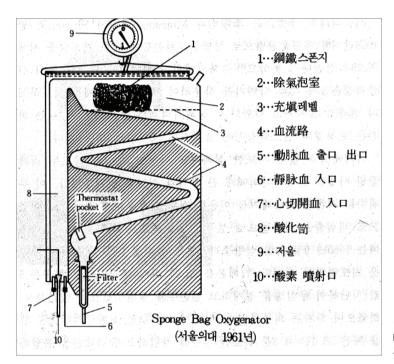


이영균 교수가 환자의 맥박을 만지면서 서경 필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영균 교수는 세종병원에 근무 중 1994년 식도암으로 타계 하였다

V

「 東京植 0/5681 加 26 7466	728348 Fulm. the mode advanced common toplorating thoractering the state of the summer
	A NEWBOARD OF THE PROPERTY OF
野 1 分位 01570以 f vo 財 文作時 01570日 和 2 7.20 7.45 8.14 分 財 外替 3 01587 9 f y 2 7.28 8.18 分 財 財 対 対 3 01587 9 f y 2 7.28 8.18	the use will closed institution of the
初 3 世 4 3 2227 7 10.6 新山 - 8.1 おん 8.20 月 17 17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Windleson, at this are of Mylos problem being of Carolia coners. 1 1935 74 75 Carolia coners. 1 1935 338 438 permitter. Permitters. 1 1955 338 438 permitter. Permitters. 1 1956 1956 1956 1956 1956 1956 1956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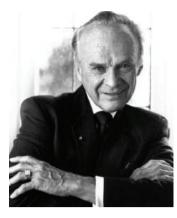
서울대 병원 흉부외과 수술환자 입퇴원기록장부에 의하면 1959년 8월 7일에 서울대병원에서 최초의 개심술에 의한 심장수술이 이영균 교수에 의해 시도되었다.



1963년 이영균 교수가 사용했던 sponge bag 기포형 산화기의 모식도(이성행 교수 회 고록)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연수중인 이 영균 교수(우측에서 두 번째)와 Dr. Lillehei(맨 좌측)



Dr. Walton C. Lillehei 교수(1918년-1999년)의 근영



이영균 교수의 서울대 병원장 취임식 장면. 이영균 교수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서울대학교 제 4,5대 원장을 역임하였다. 병원장 재임 시에는 동양최초로 대학병원 규모의 어린이병원을 신축하여 준공하였다.



Dr. Lillehei는 이영균 교수의 멘토로 자기 자식들 도 '릴리하이'하면 누구인지 알아볼 정도였다고 한다. 1970년대 본인의 연구실에 앉아있는 이영 균 교수사진으로 벽에 Dr. Lillehei 사진이 걸려있 음을 알수 있다.



이영균 교수 퇴임식(1986년 8월). 이영균 교수는 퇴임 후 세종병원 심장연구소 소장으로 재임중 1994년 8월 타계하였다.

V

The 6th Aslan Congress For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April 20-24, 1983 Seoul, Korea



The 6th Congress Secretariat
Suite 7606, Dept. of Thorac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8, Yunkun-Dong, Chongro-ku,
Seoul 110, Korea.
Tel: (02) 7601-2346

OFFICERS

President: G. B. PARULKAR, M.D. India

Chairman of Congress & Vice President: YUNG-KYOON LEE, M.D. Korea

Past Presidents: ROMEO D. ZAMORA, M.D.

Philippines
JURO WADA, M.D.

Japan (LATE) IAN MONK, M.D.

ALEXANDER GRANT, M.D. Australia

YOUSIF D. AL-NAAMAN, M.D. Iraq

Treasurer

LUIS MONTEMAYOR, M.D. Philippines

Secretary: SOLOMON VICTOR, M.D. India

ORGANIZING COMMITTEE

Chairman: YUNG-KYOON LEE, M.D.

PILL WHOON HONG, M.D. SUNG HAING LEE, M.D.

Secretary General: KUN HO KIM, M.D.

Treasurer: KYUNG PHILL SUH, M.D.

Dr. Lee: 秦树的外世纪之 叶小七比视智引上 仲政を節の宅内一安かり2. 大学をり 四學子 012. 中于四四里气 德台二至 生物外经报言 大温泉的在代刊28日末停车逐渐到日 二年世家者だり出勤中リ上、CS. Bondman 6年194月支 り門記 CS 等的 OHS 芒 和的 active か の 育 op cases & 600 (31) 7 1) 取職年 計2 (8) \$7313) 400份 D. 基立 展点特出 ASAM和学教室测設者小 到可见多 刻去鮑動和的 我也教生之到校 截山4717 花颜山生 創始者的岩町科教育 随中知行 (文文7) 8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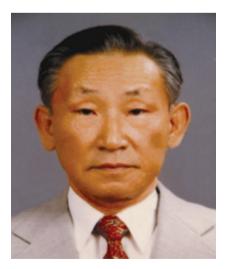
이영균 교수가 경상대 의대 흉부외과 이상호 주임 교수에게 보낸 편지내용으로 편지를 보낼 당시 정년퇴임을 하고 세종병원에 출근중이라는 것과 신설되는 경상대학의 흉부외과교실을 위해 각고 근면하고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이니 노력과 끈기로 성공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폐식도외과의 발전

- 국립의료원 유회성 과장

스칸디나비아 의료진 아래서 직접 교육받은 국립의료원의 유회성(柳會性) 과장(1928-2012)은 1953년 세브란스의대를 졸업하고 1954~1955년 Fitzimons 육군 병원에서 흉부외과를 연구하고 그 후 국립의료원에 복귀하였는데 1964~1965년 영국의 London Heart Institute와 덴마크의 Aarhus 대학에서, 1972~1973년에는 일본 동경여자 의과대학에서 각각 흉부외과 연수를 하였다. 1974—1976년 흉부외과 이사장을 1978—1979년에는 7대 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89년까지 국립의료원 흉부외과 과장을 역임하면서 한국의 폐식도 외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1959년부터 양잿물 식도 협착증에 대해 식도 결장 문합술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1983년에는 300여 명의 수술 경험을 보고하여 매우 귀중한 임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국립의료원에서는 국가적으로 의료보호 (yellow card)지원을 받은 가난한 환자가 거의 무료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자살 목적으로 양잿물을 삼키고 식도협착이 발생한 환자들이 국립의료원으로 몰려들어 식도 협착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매우 많았다. 유회성 과장은 무슨 수술을 하던지 반드시 수술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고 다음날 아침 과 회의에서 몇 시간이고 과원들과 토의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 특히 토요일 오전에는 수술이 없어 오전 내내 회의를 진행하는 바람에 전 과원들이 회의가 끝나면 점심 먹을 힘도 없이 쓰러져 잠을 자기 일쑤였다. 줄담배를 피울 정도로 애연가였으며 결국 폐암으로 가톨릭의대에서 성숙환 교수에게 폐절제술을 받고 회복되었으나 2012년 3월



2일 사망하였다.

유회성 교수는 1953년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Fitzimons 육군병원에서 연수 후 국립의료원에서 근무하였는 데 식도, 폐외과의 수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중국 베이징아시아 학회(2010년 10월)에 참석했을 때 유회성 교수(좌측은 박국양 교수, 가운데는 가천대 길병원 흉부외과 양지선전문간호사)



이성행 교수와 유회성 교수는 세브란스동문이다. 이성행 교수는 1942년, 유회성 교수는 1953년 졸업을 했으므로 11년 선후배 차이이지만 두 분 다 흉부외과에 밑거름이 되어 서로 도움을 주었다. 유회성 교수 정년 퇴임식 때 축하를 하러 온 이성행 교수와 같이 촬영한 사진



유회성 교수 부부의 젊은 시절 (좌측은 최혜숙약사-이대 약대졸업)

大韓胸部外科學會誌 第6卷 第1號 Vol. 6. No. 1, June, 1973

Cancer of the Esophagus and Cardia among Korean A clinical review of 108 patients (1)

Hoe-Sung Yu*, M.D. PhD., Ho-II Lee*, M.D.

Cancer of the esophagus and cardia has usually been reported as having a poor prognosis.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main etiologic factors of cancer of the esophagus and cardia remain unknown. The incidence of the disease vari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but it is particularly common in certain parts of Africa and the Far East. The treatment of Carcinoma of the esophagus and cardia with radiotherapy, radical surgery or both have been tried by many surgeons and radiotherapists in other countries without satisfactory result yet. Particularly, there

examined. The diagnosis of cancer of the esophagus and cardia was considered complete on radiologic or histologic findings or both in 108 patients. The tumor was classified as cervical, upper, middle, or lower third of thoracic esophagus and cardia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upper most part of tumor. The esophageal and cardia tumor extended from pharynx and stomach have been excluded.

Result

Pathology

In 13 cases, histological evidence of the

김근호 교수는 1924년 함경남도 함주 출생으로, 해방 전 중국 하얼빈의과대학에 입학한 후, 해방이 되자 귀국 하여 1949년 광주의과대학 (현 전남의대) 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당시에 심장수술 분야에서 최고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는 독일로 유학하여 뒤셀도르프대학병원 심장혈관외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전남의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1972년부터는 한양의대 흉부외과 학과장으로 취임하였다.

1976년 한양의대 최초의 개심술을 성공시켰으며 1981년 식도하부 절제 후에 공장을 이용한 수술법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열정적인 학문적 업적과 진취성을 바탕으로 학회 초기에 학회가 자리를 잡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최초로 흉부외과학이 전문과로 인정된 1972년에 발족된 아시아 태평양 흉부심장혈관학회에서 council member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1976~78년, 1982~83년 두 차례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을 1980~81년, 1987~88년 두 차례 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한양대 의대 학장으로 후진양성에 힘을 쏟다가 1989년 퇴직하였다.



한양대 흉부외과를 이끌었던 김근호 교수

심근보호의 연구

- 가톨릭의대 이홍균 교수

가톨릭대학의 이홍균(李弘均) 교수(1927)는 1949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55~1956년 미국 Bethesda 해군 중앙병원에서 흉부외과를 연수한 후, 1964~1965년 서독 Freiburg대학에서 흉부외과를 이수하였으며 1962년 가톨릭의대 흉부외과 주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초연구, 특히 심근보호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1976~77년, 1984~85년 두 차례 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우리나라 심장 수술의 발전에 중요한 두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심정지액의 도입이고 두 번째는 심폐기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심정지액이 도입된 것은 197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가톨릭의대의 이홍균, 김세화 등은 심정지액을 이용한 개심술을 1978년 발표하였으며 경북의대의 이성행 등은 Young solution으로 급성 심마비를 유도한 후 Glucose—Insulin—Potassium (GIK) 액을 주입하는 방법을 1979년 보고하였다.



가톨릭의대 흉부외과의 초석이 된 이홍균 교수의 근영



가톨릭의과대학 외과의국원들. 앞줄 왼쪽이 윤덕선 교수, 오른쪽이 이홍균 교수



PICTORIAL HISTORY AND PIONEERS OF KOREAN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1968

V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발전

- 108 흉부외과 학회의 창립
- 111 심도자검사의 시작
- 112 판막수술의 역사
- 114 식도외과의 발전
- 116 심폐기와 심정지액의 도입
- 120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시대의 개막 홍승록 교수
- 123 흉강경 수술(VATS)의 시작 김광호, 이두연 교수
- 126 심장이식과 심장·폐이식
- 130 국내 최초의 폐이식 이두연 교수팀
- 132 하이브리드 수술의 도입
- 134 국내 최초 Bridge to Transplant 장병철 교수
- 139 에크모(ECMO)의 도입과 상용화
- 143 로봇수술의 시작
- 144 국내 첫 생체 폐이식 성공

흉부외과 학회의 창립(1968. 5. 18)

-가톨릭의대 강당(명동)

대한흉부외과학회는 1968년 2월 3일 국립의료원 강당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1968년 5월 18일 가톨릭 의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서 정식학회로 우뚝 서게 되었다. 37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칙과 사업계획, 예산안을 확정하였으며 매년 1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집담회는 1년에 2회, 흉부 외과학회 잡지는 당분간 년 2회 발간하기로 하였다. 학회 창립을 시작으로 각 병원의 외과학 교실에 소속되어 폐와 식도, 심장 수술을 하던 교수들이 이제는 명실 공히 독립된 학회의 소속 교수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었다.

초대 흉부외과 회장으로는 서울대 한격부, 부회장은 김기전, 이사장은 이영균, 감사 서경필, 상임이사에 이영 균, 유승화, 이세순 등 이사 19명을 선출하였다. 총무로는 손광현 교수가 맡았다. 학회 창립이후인 1968년 7월 6일 서울 미장그릴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학회의 영문 명칭을 'The Korean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ical Society'로 하는 동시에 학회잡지 명칭을 '대한흉부외과학회지(大韓胸部外科學會誌)' (The Korean Journal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로 정하였다. 그해 12월 대한 흉부외과학회지 창간호가 발간



흉부외과 학회는 1968년 2월 3일 국립의료원 강당에서 발기인 총회를 한 후 가톨릭의대 강당에서 1968년 5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 명실공히 학회 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흉부외과 학회는 2018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Half Century for Patients, Half Century for Future'라는 catch phrase를 걸고 추계 학술 대회 및 기념식을 갖는다. 되었고 1969년 5월 1일 대한 의학협회 분과학회 협의회 가입이 인준 되었다.

1969년 5월 24일에는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제 1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는 데 정회원 및 준회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개 연제가 발표됨으로서 학회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한격부 선생의 '그래도 남은 게 있는 捨石 九十星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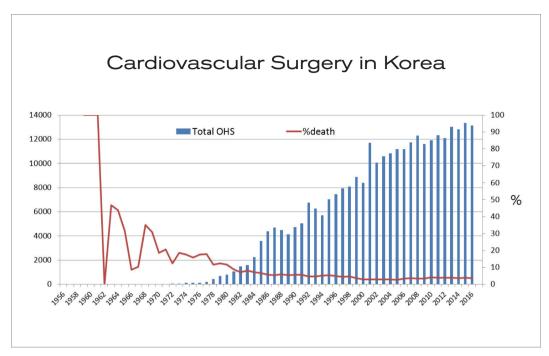
50주년을 맞은 2018년 현재 우리 학회 회원은 정회원 1245명 준회원 97명 원로회원 77명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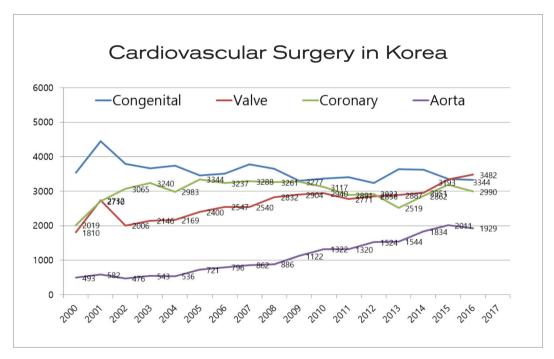
용부외과의 초대원로 교수들의 일본 학회 참석 후 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 좌로부터 가톨릭의대 이홍균 교수, 세브란스 홍승록 교수, 한양의대 김근호 교수, 서울의대 이영균 교수, 국립의료원 유회성 교수.



흉부외과 원로회원들 사이에는 누가 무슨 업적을 먼저 이루었는가 하는 경쟁도 있었겠지만 우의도 돈독했다고 알려져 있다. 위 사진은 국립의료원 유회성 교수의 회갑연(1988)때 촬영한 사진으로 뒷줄 왼쪽부터 덴마크의 김창호, 두 사람 건너 서울대 서경필, 세브란스 홍필훈, 서울대 이영균, 한양대 김근호, 세브란스 홍승록 교수가 보인다.



용부외과 심장수술은 학회 창립이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그 성적이 향상되었으며 2018년 현재 그 성적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한국심장재단 자료)



한국심장재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개심술의 종류는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류마치스성 질환이 줄어들고 퇴행성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관상동맥의 경우 PCI & Stent 시술의 영향으로 소강상태이고 소아심장수술은 신생아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심장재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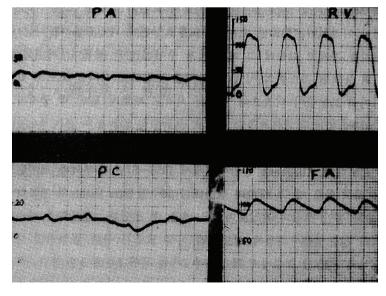
심도자 검사의 시작 (1950년대 말)

1950년 말부터 심장기형 및 진단에 필요한 심도자 검사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3~4개 대학병원에서 실시되어 심장외과 발전의 기본적 초석이 마련되었다.

경북의대의 이성행 교수는 1958년 가을 서울의대 강당에서 거행된 대한 외과학회 석상에서 그동안 경북의대에서 실시한 심도자법을 보고하였는데 제목은 '파랑동이 3예에 시행한 우심도자법에 대하여'였다. '파랑동이'라는 용어가 의학계에 등장한 것에 대해 이성행 교수는 '미국에서는 입술과 손톱, 발톱이 푸른 아이를 blue baby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청색이(靑色兒)라고 하는데 조산원에 물어보니 이런 아이를 '파랑동이」라고 불러왔다는 것이다.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회 강연제목으로 등장시켰다'라고 하였다.

심도자법은 심장내 압력을 기록하는 것과 혈액개스 분석이 기본이다. 지금은 ABGA기계가 혈액만 넣으면 oxymeter로 순식간에 분석을 해주지만 당시만 해도 Van Slyke manometric apparatus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다. 이성행 교수는 미국 연수중인 1956—1957년에 Pittsburgh의 Allegeny 종합병원에서 심도자법을 심장내과 교수인 Don Fisher에게 배웠다고 한다.

심도자 검사의 실시는 심장병의 진단뿐만 아니라 심장외과 발전의 필수조건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데 서울대에서는 보건대학원장을 역임한 서울대병원 소아과 홍창의 교수가 국내에서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미국 휴스턴대학에서 귀국한 서정삼 교수와 뒤를 이어받은 차홍도 교수가 1966년 심도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성행 교수는 미국 Pittsburg의 Allegeny 종합병원에서 심도자법을 연수하였다. 귀국 후 Control Box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록한 심장내 압력곡선(1958년)

판막수술의 역사

연세의대의 홍필훈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1956년 9월 6일 승모판 협착증 환자에 대한 폐쇄식 교련절개술 (closed mitral commissurotomy)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경북의대의 이성행 교수도 1957년 12월 승모 판 교련절개술에 성공하였으며 1961년도 저체온법 개심술 성공 때까지 45례의 승모판막 협착증 수술을 시행한 있다. 이후 서울의대의 이찬범 교수도 1958년 10월 승모판교련절개술에 성공하였는데 3개 대학병원에서의 이러한 연속적인 수술성공은 이후 심폐기의 도입과 더불어 심장수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국립의료원의 2대 과장인 Frank Bergan도 재임기간 동안(1959~1961)에 closed mitral valve surgery를 여러 증례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연세의대의 홍필훈 교수는 1962년 6월 8일 남자 26세의 순수판성 폐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에 대해 30℃ 의 저온법 하에서 개심술을 실시하여 혈류 차단을 2분 10초 동안 하면서 0.5cm의 판막 구의 협착을 절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환자는 수술 후 12일 만에 퇴원하였다.



국내 최초의 승모판협착증 환자에서 승모판교련 부절개술은 홍필훈 교수에 의해 1956년 9월 6일 성공하였다.



김종환 교수는 서울대병원에서 1968년 6월 17일 대동맥 판막치환술에 처음 성공하였다.



베트남 호치민시 카펜티어판막성형술 연수에 참가한 한국대표들(1994년 9월)

판막 치환술은 세계적으로 1961년 미국 Oregon 의 Albert Starr에 의해 성공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서울대병원에서 1968년 6월 17일 대동맥 판막치환술이 김종환 교수에 의해 성공하였다. 1971년도에는 서울대 이영균 교수팀에 의해 승모판막치환술이 보고되었다 (양기민 등. KJTCS 1971;4:51-54).

판막수술은 1950년대의 폐쇄식 승모판막확장에서 1970년대의 심장판막 치환술로, 다시 1990년대에는 판막성형술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로봇수술, sutureless valve의 도입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심장판막 성형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계기가 있다. 1994년 9월 베트남 호치민시(구 사이공) 심장센터에서 열린 판막 성형술에 대한 live 심포지엄이다. 프랑스의 Dr. Alain Carpentier 는 이때 본인이 건립한 이 심장센터에 주 연자 및 수술시연자로 참석하여 이제까지 세계적으로 시행되어온 판막치환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가능하면 환자의 판막을 살려주는 성형술 (Carpentier technique)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승모판막성형술에 사용되는 Carpentier Ring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이기는 하였지만동아의료기의 이형근 전무의 적극적인 소개로 많은 한국의 의사가 참여하여 이러한 수술시연을 지켜보았는데당시까지 판막에 대해서는 치환술이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알고 있었던 참가자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으며이후 한국에서도 판막 성형술이 크게 유행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당시 Live 심포지엄에 참여했던 교수로는 김삼현, 안혁, 우종수, 박국양, 이재원 등이 있다.

최근 심장판막질환은 과거의 류마티스성 후천성 심장병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카테터를 통한 대동맥판막 거치술(TAVI, transfemoral aortic valve implantation) 이 심장내과의사에의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판막질환의 치료가 흉부외과 의사의 전유물이 아닌 심장내과 의사와의 경쟁구도로 바뀌는 변화와 격동의 시기가 되었다.



호치민시 심장센터에서 연수를 마치고 Dr. Carpentier와 기념촬영(당시 미국에서는 Dr. Starr도 참석하여 대동맥 판막성형술 시연을 보였다)

식도외과의 발전

식도외과는 해방 전부터 자살을 목적으로 수산화나트륨(양잿물)을 섭취하여 발생한 식도협착 환자 치료로부터 발전하였다. 이들 식도협착 환자들은 이비인후과에서 Bougie로 확대하거나 무단 소식자(無端 消息子)로 확대하여 치료하였는데 부지법은 식도 천공의 위험이 많았고 무단 소식자 법으로는 협착과 확대가 반복되어 연하 곤란이 해결되지 않았다.

경북의대 이성행 교수와 고병간 총장은 1952년 당시에 20세의 식도 협착 환자에 대한 기관 내 삽관 전신 마취하에 개흉으로 식도 위문합술을 대동맥궁 하방에서 실시하여 성공하였다.

한편 개정농촌위생연구소의 김영섭 등도 식도협착 환자에서 공장을 유리하여 전흉부 피하로 거상하여 경부에서 식도공장문합술을 실시하여 1953년 보고하였으며 4례 중 2례에서 성공하였다. 이 당시에는 국소 마취하에 이러한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한다.

Incidence of esophageal cancer in Korea

Year	Esophageal cancer	Total no. of malignancy	Ratio (%)	Crude rate /100,000
1999	1,864	101,032	1.84	4.0
2000	1,769	101,772	1.74	3.7
2001	1,908	111,234	1.72	4.0
2002	1,946	117,089	1.66	4.0
2003	1,932	125,707	1.54	4.0
2004	1,983	134,476	1.47	4.1
2005	2,044	146,858	1.39	4.2
2006	2,046	154,583	1.32	4.2
2007	2,101	167,675	1.25	4.3
2008	2,201	182,129	1.21	4.5
2009	2,166	195,842	1.11	4.4
2010	2,233	207,085	1.08	4.5
2011	2,268	221,013	1.03	4.5
2012	2,354	226,216	1.04	4.7
2013	2,382	225,343	1.06	4.7
			KCCR: The Korea	Central Cancer Regi

국가 중앙암등록센터에 발표된 년도 별 식도암 환자 비율. 이 표를 보면 식도암의 비율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인구 10만명당 비율은 변화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유회성 과장도 1958년 국립의료원에서 좌측 개흉을 통한 식도적출술 후 식도 위문합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 1984년 논문에서는 90례의 식도암 환자중 63례에서 수술이 가능하였고 문합부 누공은 14.3%에서 사망률은 14.3%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하였다. (유회성.남충희, KJTCS;1984)

서울의대 흉부외과 송요준 등은 1959년부터 1973년까지 식도암 수술 47례를 보고 하면서 문합부 누공은 8례가 있었고 사망률은 10.6%였다고 보고하였다. (송요준.이영균. KJTCS;1973)

심영목 교수는 1987년 서울원자력 병원 흉부외과로 부임한 이후 년간 60-70건의 식도암 환자들을 수술하며 식도암은 수술 후 합병증이 많아 수술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선입견을 바꾸어 놓았다. 국내에서는 흉부종양외 과학회의 전신인 폐식도외과 연구회의 발전, 식도암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고, 국제적으로는 Asia Thoracic Surgical Club 및 International Society for Disease of the Esophagus를 통한 국제교류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식도암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2000년대 중 후반부터는 식도수술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흉강경 및 복강경 또는 로봇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도 시행되면서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치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국가암등록통계시스템 (http://ncrs.cancer.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에서 주요 암 등록 및 통계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자료를 보면 식도암에 대한 변천도 알 수가 있다.

Esophageal cancer: 5-year survival rate (National data)

Year	No. of patient	5-yr survival rate (%)
1993-1995	3412	12.7
1996-2000	7743	15.2
2001-2005	8756	21.2
2006-2010	9290	29.6
2009-2013	9665	33.4
		Korean National Statistics www.kostat.go.kr

국가 통계청 자료에 보면 식도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에 12%대에서 2010년대에 33,%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폐기와 심정지액의 도입

흉부외과 초창기에는 체외순환 기사가 따로 없었고 흉부외과 의사가 심폐기를 가동하곤 했었다. 전문 체외순환 사가 심폐기를 전담하던 시기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략 1970년대 후반 경으로 보건계열학과를 졸업한 기사 가 주로 이 역할을 맡았으며 90년대 말 이후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가 체외순환사 (심폐기사)역할을 맡 게 되었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에서도 개심수술을 위한 흉부외과 의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시기로 특히 개심수술에 필요한 인공심폐기의 작동과 이와 관련된 관류액(충진액)에 관한 연구로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세브란스병원의 홍승록 교수는 충진액과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여 학회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조범구 교수는 Evarts A. Graham 장학생으로 미국연수를 다녀온 뒤 심정지 액을 세브란스병원에 도입하였다 (1978년). St. Louis의 Barnes Hospital, Washington University의 Evarts A Graham 초상화 앞에서 조범구 교수와 Dr. James L Cox (1987년)



초창기 bubble type oxygenator 모습(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제공)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심폐기에 대한 많은 발전이 있었다면, 1970년대 말에는 심장수술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수술 후 심장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심정지액의 도입으로 수술결과가 향상되어 특히 여러 개의 판막질 환과 복합심기형의 수술이 가능하게 된 도약기라 할 수 있다.

1977년 미국 AATS (American Association of Thoracic Surgery)에서 수여하는 Evarts A. Graham Fellowship을 받고 1978년 귀국한 조범구 교수는 미국 버밍햄의 알라바마 대학병원이나 휴스턴의 Texas Heart Institute에서 사용하는 High K+ crystalloid cardioplegia를 세브란스병원에 도입하였다. 이전에는 수술 중 관상동맥으로 20—30분 마다 혈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수술하였으나 수술 중 시야가 나쁘고, 심실세동으로 인한 수술의 장애, 수술 후 허혈성 심근손상으로 인한 저심박출증후군 등이 많았다. 그러나 심정지액을 도입한 이후에는 2시간 이상 심장을 정지해도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는 유럽에서 사용중인 St. Thomas' solution 이 각 병원으로 도입되고 덴마크의 김창호 교수에 의해 intracellular component type 심정지액인 Bretschneider solution이 국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초창기(1960년대)의 Sigma-Motor pump와 Helical Reservoir Oxygenator 및 열교환기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장병철 교수 제공)



1960년대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의 심장수술 장면(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장병철 교수제공)



사진속 원안의 인물은 서울대 서경필 교수로 이영균 교수가 심장 수술할 때 심폐기를 가동하고 있는 모습.



1960년대 말 세브란스병원에서 사용한 인공심페기 (Helical Reservoir Pump-Oxygenator with Sigma-motor pump). 맨 좌측부터 조범구 교수, 서상현 교수 가 보인다.

大韓外科學會進誌 第10卷 第7號 Vol. 10. No. 7, July, 1968

低温法 및 體外循環法을 併用한 開心術施行時의* 灌流量 및 充填液決定에 關한 研究

洪 承 祿**

= Abstract =

Studies of Optimal Flow Rate and Priming Solution in Extracorporeal Circulation Combined with Moderate Hypothermia and Hemodilution Technique

Sung-Nok Hong,** M.D.

1968년 대한흉부외과학회지에 투고된 세브란스 홍승록 교수의 심폐기에 관한 연구



2018년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심폐기는 일정기간이상 수련을 받은 전문 간호사 (체외순환사)에 의해 가동되고 있다. 사진 속 심폐기를 가동하고 있는 인물은 고대의대 안암병원 김광자 간호사로 가천대 길병원에 근무할 당시 국내에서는 최초로 흉부외과 분야 전문 간호사가 되었다.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시대의 개막 - 홍승록 교수(1977년)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 말에 판막성형술로 부터 시작된 심장수술은 1960년대에 이르러 저체온법을 이용한 개심술 그리고 1963년대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로 이어지면서 험난한 대항해를 시작하게 된다.

폐쇄식 승모판막 수술은 1956년 9월 6일에 세브란스의 홍필훈 교수가 최초로 성공한 이후 경북의대의 이성행 교수(1957년). 서울대 이찬범 교수 (1958년). 국립의료원의 Bergan 2대 과장(1959년)에 의해 연이어 성공하였 다. 경북의대의 이성행 교수는 1957년 12월 승모판 교련절개술에 성공한 이후 1961년도 저체온법을 이용한 최초의 개심술 성공 때까지 45례의 승모판막 협착증 수술을 시행한 바 있다.



관상동맥이식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Argentine출신의 Dr. Rene Geronimo Favarolo. (1923-2000). Cleveland Clinic에서 1967년 5월에 Saphenous vein을 이용한 CABG를 처음 시작하였다. Favarolo 는 아르 헨티나에서 Favarolo Foundation을 만들어 조 국에 대한 심장병치료로 헌신하고자 하였으나 부도를 맞고 국가도 도움을 외면하여 2000년 7월 29일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Dr. Favarolo와 관상동맥조영술의 개척자라 고 할 수 있는 Dr. Sones.

저체온법을 이용한 개심술은 1961년 9월 13일에는 대구에서 이성행 교수가 성공한 이후 1962년도에는 세브 란스의 홍필훈 교수와 국립의료원의 Dr. Axel Sanderud에 의해 성공하였다.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은 1963년도 3월 26일 서울대 이영균 교수,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세브란스 홍필훈교수에 의해 각각 성공하게 된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국민 의료보험의 시작과 함께 환자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심정지액의 도입으로 수술성적도 향상 되었는데 이후 1984년에 설립된 새세대 심장재단(현 한국심장재단)으로 인하여 심장수술증례는 물론 수술성적까지 비약적으로 향상된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말에 이루어진 관상동맥이식술 역시 세브란스병원에서 포문을 열었으며 이후 관상동맥이식술의 시대를 열게 된다. 당시 신문보도는 1977년 5월 4일 우리나라 최초로 세브란스병원에서 홍승록 교수에 의해 관상동맥이식술이 시행된 것을 보도하고 있다. 세브란스에서는 홍필훈 교수 문하에 조범구 교수, 홍승록 교수가 있었는데 조범구 교수는 주로 선천성 심장병을 홍승록 교수는 후천성 심장병을 담당하였다.

미국에서는 Cleveland Clinic에서 Dr. Favarolo에 의해 1967년 5월에 대복재정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이식술이처음 시작되었으므로 한국에서는 이보다 정확하게 10년 늦게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최근에는 심폐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관상동맥이식을 하는 방법 즉 무심폐기 수술기법(OPCAB, off pump coronary artery bypass)이 도입 되어 사용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에 Ankeney, Trapp 등에 의해 좌회선지의 둔각지와 후하행동맥의 병변을 제외한 관상동맥의 병변에 대하여 사용되다가 1980년대 이후에 Benetti와 Buffalo 등이 1,000례 이상을 발표하면서 OPCAB은 일반화되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김기봉 교수가 1998년 1월부터 9월까지 50례의 OPCAB를 발표하였는데 이중 5례에서는 수술 중 심폐바이패스를 시행하는 술식으로 전환이 필요하였고 평균 3,2개의 문합을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1례에서 사망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대한흉외지 2000;33:38-44).

홍승록 교수는 1951년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였고 1963-65년 Pittsburgh대학에서 외과 전공의를 수료하였으며 1979년과 1985년에 대한흉부외과학회 회장을, 1980년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2017년 별세하였다.



세종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홍승록 교수. (좌로부터 박국양, 홍승록, 권오춘, 이영탁 교수)



홍승록 교수는 세브란스 흉부외과에서 정년퇴임 후 세종병원에서 후학 들을 지도하다가 은퇴하였는데 세종병원 근무당시 이영탁, 박국양 교수 등이 수술조수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梗塞合含め

対凱歌

延世大皇 狭心症 入豆の

방은

이고있다。 好好當一日日 美国少 朝지는 정상적인 교육율보 에 성당 구일한지 환자인 의하용어로「자가복제정 最 の号抄 好公暑四季豆

会

时

동안 현심증으로 고생하은 4일 상으의시부터 하오1 명봉N9N의 9)의 수술 郭周烈州(51・合め 若平人 な洪承禄立今からないか 까지 소시간에 절쳐 오랫 会性浮な小りそ 車弘道旦今、 金額な 지난

라이서는 처음이다. の今会らとなべ(心事子) 일반화돼있었으나 우리 일본에서는 구미에서는 75 Y.Y で五年 절취한 직정 1 · 5 배정 아서 환자의 아랫나리에서 四山見 意识の かり天会夫 今又なの な気思 平川外 世分号四 ひなのも

即五 安號十。

현심증의 통증이 없어지

며

이수술을 받은 환자산이

でんないちの かの当れ

*

실근검색수술에 성공한 洪承隸교수@연 후弘道교수@가 해싸를 진출하고있다。

지에 의해 성장적으로실

수술이 우리나라 언세대학교 의파대학수

出土

원인인 심근경

세보라스병원

本年の日

적으로 **出班和利用的田外司** 문에 배우 안전한 수있게됐다 등의 생명을 지질 할수없었던 현심증을 의파 수술의 성당으로 지금까지 로보아 2%에 불파하기때 어려운 수술이다. 會告 작는사람은 의학의 수술팀장인 洪교수보 利豆な中以州国の 中旬日 사용 예 9

包天 年的群星 经难人打七 속은 정비율 報取の 막

한국최초의 관상동맥이식술을 보도한 언론자료(1977년 5월 4 일)

것은 아니다

お枝口。

러있을때 이수술이 가능하

헌심승전부에 적용되는

보 심장혈관이 한군에가

박

할수있으며 ④생명을 연장 **ウスア あるむななる のか**

할수있다。

그러나

洪豆个

흉강경 수술(VATS)의 시작

- 김광호, 이두연 교수 (1991)

흉강경수술은 1866년 Francis Richard Cruise경이 양안 내시경 (binocular endoscopy)을 이용하여 흉막강 검사를 처음으로 시도한 이후, 1910년 Jacobaeus가 결핵환자에게 방광경 (cystoscope)을 이용해 흉막유착 박리술을 시행하면서 흉강경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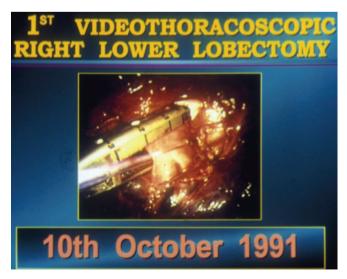
1990년도에 비디오 시스템, 내시경용 소형카메라, 그리고 내시경 수술용 기구와 자동봉합기 (endostapler)등의 개발로 인해 기흉, 늑막염, 종격동 종양 등의 흉부 질환에 대해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Dr. Lewis 등은 미국 New Jersey의 New Brunswick에서 흉강경을 이용하여 폐엽절제술을 실시하였음을 세계 최초로 보고하였다. (JTCS 1992;104:1679—1685) 1994년 폐암환자에게 비디오 흉강경을



폐결핵 환자의 늑막공동을 없애기 위해서 흉강경을 최초로 시도한 Dr. Hans Christian Jacobaeus (1879—1937년)



Dr. Jacobaeus가 조수와 함께 흉강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Annals of Thoracic Surgery 1993;56: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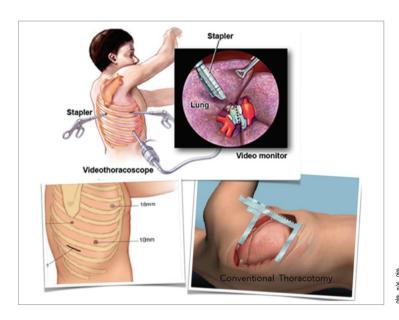
Dr. Lewis등에 의해 1992년 처음 보고된 흉강경을 이용 한 폐엽절제술의 시연비디오장면

이용한 폐엽절제술과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이 보고된 이후, 비디오 흉강경 폐엽 절제술은 흉부외과 영역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술 기법으로 점점 인식되어 가고 있다.

2006년 미국 STS학회의 General Thoracic Surgery database에 따르면, 원발성 폐암환자의 32%에서 비디오 흉강경 폐엽 절제술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1년 연세대학교 김광호,이두연 교수 팀에 의해 기흉 환자에게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이처음 보고되었고 (김광호. 흉강경을 이용한 기흉의 치료. KJTCS 1991; 24(3): 261-264), 1993년에는 연세대학교 이두연 교수팀에 의해 폐종양에서 흉강경을 이용한 폐엽 절제술이 처음 시도되었다 (윤용한 등.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폐엽절제술. KJTCS 1993;26:236-240).

이후 서울대학교 성숙환 교수, 고려대학교 김광택 교수 등이 우리나라의 초기 흉강경 수술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여러 병원에서 기흉, 종격동 종양, 다한증 등 양성 흉부질환의 수술에 다양하게 흉강경수술이 적용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폐암, 식도암, 흉선종 등 흉부 악성종양의 수술에 적용하게 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2003년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의 김관민 교수가 폐암에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폐엽절제술과



흉강경수술의 도입으로 인해 종전에 측흉부절개(우측 하단 그림)를 통해서만 접근하던 흉부수술의 절개가 최소화 되기 시작하였다.



용산타워에서 열린 제1회 single port VATS symphosium (2013년)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시작한 이후로 (Kim K. ATS. 2010), 약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다수의 흉부외과에서 비디오 흉강경 폐엽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상 성적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오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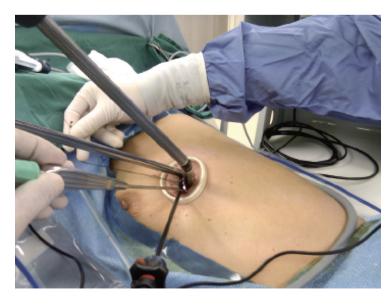
국내에서 흉강경수술이 비교적 빠르게 정착이 되었던 것은 흉강경 수술 기법에 대한 다양한 최신정보를 접할수 있는 심포지엄 및 흉강경 기구 혹은 동물 모델을 이용한 수술 교육이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잘 운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6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주최한 VATS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일반흉부외과 수술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폐암, 식도암 등 흉부 악성종양에서도 흉강경 수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젊은 흉부외과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흉강경 수술을 가능한 많은 분야의 흉부수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전상훈, 서울아산병원의 김동관, 삼성서울병원의 김관민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흉강경 수술 연구회〉를 발족하였고, 매년 워크샵을 열어 신진 흉부외과 전문의들에게 동물 모델 및 기구 교육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흉강경 수술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1년에는 〈흉강경수술 아틀라스〉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시야를 넓혀 2011년 말에 전상훈 교수가 주축이 되어 Asia Thoracoscopic Surgery Education Program (ATEP)을 설립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흉부외과 의료진에 대한 흉강경 수술 교육및 흉강경 수술 기법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흉강경기법은 최근에는 싱글포트를 이용한 기법으로 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2004년 2.5cm 크기의 절개부위 한 곳을 통해 흉강경을 이용한 pulmonary wedge resection이 시행된 이후, 2010년 싱글포트 흉강경 폐엽 절제술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국내에서는 2001년 다한증 수술에 싱글 포트 흉강경 수술이 처음 적용된 예가 보고되었고 (Cheon HC, J Korea Neurosurg Soc, 2001), 기흉수술에서는 200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처음 논문으로 출간된 것은 2013년이다 (Yang HC, Surg Endosc 2013). 폐암에 대한 싱글 포트 폐엽절제술은 국내에서 흉강경 폐엽절제술이 시작된지 불과 10년 만인 2012년 3월에 처음 시작되었고 (Kim HK, Interact Cardiovasc Thorac Surg, 2015), 다양한 흉강경 수술 기법 중의 하나로 점차 수술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2013년에는 충북 오송에는 코비디엔 이노베이션 센터가 설립되어 흉강경 수술 기법 발전과 의료진 교육 훈련을 위한 최첨단 인프라도 구축되었다.



흉강경수술은 더욱 발전하여 이제는 Single Port를 통해 폐엽절제술을 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심장이식 (송명근 교수, 1992) 과 심장·폐이식(박국양 교수, 1997)

심장이식은 세계적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크리스천 바나드 박사에 의해 1967년 12월 3일 실시되었다. 25세의 여성의 심장을 54세 남성에게 이식하는 심장이식이 최초로 실시되었으나 거부반응 등으로 인하여 심장이식을 받은 Louis Washkansky는 18일 밖에 생존하지 못했다. 이후로도 심장이식의 성적은 한동안 좋지 않다가 1980년 사이클로스포린이 임상에 사용되면서부터 장기성적이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심장이식은 국내에서는 1992년 11월 11일 서울 중앙병원에서 송명근 교수가 뇌사상태에 빠진 31세 남성의 심장을 50세 여성에게 이식함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2례에서 연이어 심장이식을 성공하였다. 이후 서울대병원에서는 노준량 교수에 의해 1994년 3월 30일, 세종병원에서는 박국양 교수에 의해 1994년 4월 6일, 신촌 세 브란스병원의 장병철 교수에 의해 1994년 11월 20일 연이어 성공하여 1994년은 우리나라에서 심장이식이 많은 병원으로 확산되는 해가 되었다. 이후 심장이식은 2000년 뇌사자에 대한 장기이식을 허용하는 입법 제정을계기로 지방병원으로 까지 확산되었으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7년 한해동안만 184건이 실시되었고 2000년 이후 2018년 8월까지 총 1,449건이 시행되었다 (한국 KONOS 통계자로).

심장폐이식은 세계적으로는 1982년 3월 9일 스탠포드의 Dr. Bruce Reitz 박사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환자는 45세로 폐동맥고혈압으로 호흡곤란이 심한 였던 Mary Gohlke였으며 수술 후 성공적으로 회복되었다. 당시 수술조수를 했던 의사로는 Dr. Reitz의 스승이자 미국심장이식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Dr. Shumway, Dr. Wallwork 등이었다. Dr. Reitz는 이보다 12년 전인 1969년 외과전공의로서 Dr. Shumway가 이끌고 있는 Stanford로 와서 미국 최초의 심장이식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가 심장폐이식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심장폐이식은 1997년 4월 20일 가천대 길병원에서 박국양 교수팀(박국양, 박철현 교수)에 의해 최초로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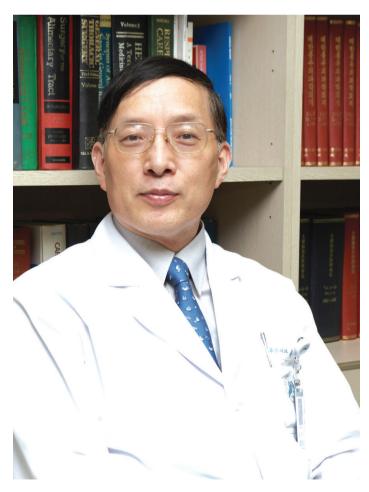
심장이식을 세계최초로 실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Dr. Christiaan Barnard



박국양 교수가 스탠포드병원 수술실안에서 Dr. Shumway와 촬영한 사진(1993년 2월). Dr. Shumway는 Dr. Lillehei 문하에서 Christiaan Barnard와 같이 심장수술을 배웠으며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심장이식을 정립한 심장이식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장기제공자는 9세 소년이었으며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뇌사가 된 상태였고 수혜자는 12 세 복잡성 선천성 심장병으로 폐동맥고혈압이 동반된 경우였다 (KJTCS 1998;31:610-614). 또한 서울대 노 준량 교수는 같은 해 10월 26일 32세된 여자환자에게서 국내 두 번째 심장폐이식을 성공하였는데 동맥관개존 증으로 Eisenmenger 중후군을 가진 환자였으며 장기제공자는 18세로 교통사고로 뇌사가 된 상태였다 (KJTCS 1998;31:1004-8). 현재 심장폐이식은 심장이나 폐의 단독이식을 우선으로 하는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점수 때문에 뇌사자에서 거의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심장이식은 허혈 허용 시간이 간이나 신장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4-5시간) 다장기 적출시 가장 우선적으로 허혈시간을 고려하여 적출되어야 한다. 거리가 먼 지방에서 심장이 적출될 경우 일반적인 교통수단보다는 헬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헬기 심장이송은 박국양 교수가 1994년 4월 14일 세종병원에서 성공한바 있다. 당시 서울 상계동 백병원에서 장기적출이 있었는데 부천세종병원까지 러시아워 시간에 이송을 하기가 힘들어 대한한공 소형 헬기를 이용하여 상계동 근처 성서대학 운동장에서 헬기를 띄우고 세종병원 근처 서울신학대학 운동장에 헬기를 착륙시켜 심장을 이송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최장거리 심장헬기 이송은 제주도 한라병원에서 서울대병원까지로 1995년 9월 27일 김기봉 교수에 의해 시행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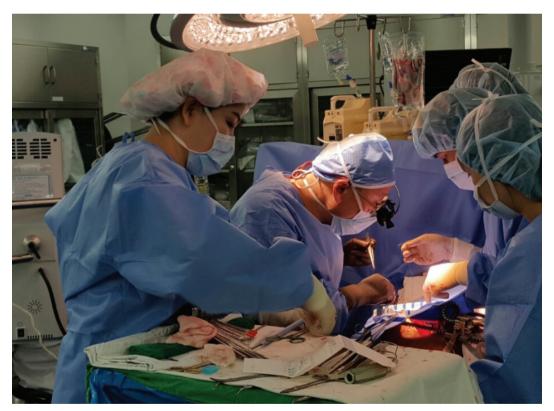
송명근 교수. 1992년 11월 11일 대한민국 최초의 심장이식에 성공하였으며 심장이식분야의 활발한 활동으로 현대자동차제품인 제네시스 1호차 주인 공이 되기도 했다.



세종병원에서의 첫 심장이식성공 후 기념사진으로 앞줄에 이영탁 교수, 박영관 세종병원 이사장, 홍승록 교수, 박국양 교수 뒷줄에는 좌측부터 김웅한 교수, 한사람건너 권오춘 교수, 나찬영 교수, 박철현 교수, 한재진 교수가 보인다.



심장이식은 허혈 허용 시간이 간이나 신장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4-5시간) 다장기 적출시 가장 우선적으로 허혈시간을 고려하여 적출되어야 한다. 사진은 세종병원에서 첫 심장이식시에 적출된 심장의 모습(1994년 4월 6일)



박국양 교수에 의한 한국최초 심장폐이식 수술장면 (1997년 4월 20일)



심장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수술 후 친목모임은 정보교환이나 심리적 연대감 등을 위해 필요하다. 사진은 2002년 가천대 길병원에서 박국양 교수에 의해 심장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모임



스탠포드에서 연수중일 때 Dr. Bruce Reitz 와 수술실 밖에서 포즈를 취한 박국양 교수 (1992년)



스탠포드 흉부외과 수술팀의 세계최초 심장폐이식술장면. Dr. Reitz의 수술을 Dr. Shumway와 Dr. Wallwork이 조수를 서고 있고 주위에 참관하고 있는 의사들은 Drs. Athanasuleas, Jamieson, Baumgartner, Giritsky이다. (1981년 3월 9일)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두연 교수팀(이두연/김해균/백효채)은 1996년 7월 7일 국내 최초로 폐섬유증환자에서 일측 폐이식수술에 성공하였다. 폐이식은 장기의 특성상 다른 장기에 비해 드물게 시행되는 수술이며이식 후 장기생존율도 다른 장기이식에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 2016년까지 20년 동안 폐이식은 전국적으로 89건만 시행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신장이식 2233건, 간이식 1469건, 심장이식 156건이 시행 된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술건수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그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매년약 80례 이상의 폐이식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폐이식 수술의 건수가 적은 이유는 공여 받는 장기의 특성과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에서 찾을 수 있다. 어렵게 뇌사자로부터 폐를 기증받는다 하더라도 폐장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이식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최종 뇌사판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상당기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이식법이 2018년 3월에 개정되어 폐장에서도 간이나 신장과 같이 생체 폐 이식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폐장은 오직 뇌사자에게서만 장기를 공여 받을 수밖 에 없었다.

폐이식 수술의 증가 현황을 보면 한 기관의 자료이기는 하나 백효채 교수팀의 자료에 의하면 첫 폐이식 후 15년에 걸쳐 50례를 시행하였으나 그 다음 50례는 3년이 조금 안 걸렸고 그 이후 100례를 시행하는 데는 2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 약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의료계 및 일반인들도 폐이식이라는 수술적 치료에 대하여 인지를 하게 되었으며 폐이식 후 생존율도 폐를 장시간 보존할 수 있는 용액의 개발, 폐이식 수술에 필요한 장비와 술기의 발전, 수술 후 다학제 진료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많이 향상되어 폐이식 후 5년 생존율이 50-60%로 세계 심폐이식학회의 성적과 유사하다. 백효채 교수팀은 2002년 11월에 심장폐이식을 시행하여 성공시키기도 했는데 당시 환자는 41세 남자, 아이젠멩거 환자였다.

전국적으로 폐이식을 시행한 기관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이산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이두연 교수, 1996년 7월 7일 김해균, 백효채 교수와 함께 국내 최초 페이식에 성공하였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폐이식팀의 국내 첫 폐이식 수술장면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대학병원,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대전을지대학병원, 서울 보라매병원, 아주대학병원 등 총 12개 병원이나 5례 이상을 시행한 병원은 7개 병원 정도이다.

다른 장기와 동시에 이식을 하는 방법으로 심폐이식 외에도 폐와 간 이식은 현재까지 세브란스병원과 아산병원에서 1례씩 시행되었고 폐와 신장을 동시에 이식한 경우도 세브란스병원 2례와 아산병원 1례가 있었다. 폐의 재이식수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 백효채 교수팀은 36세 여자환자에서 우측 폐 이식 후 1년 뒤 좌측 폐를 이식 (2005.7월) 하였고 이식한 좌측 폐를 다시 재이식 (3차 폐이식 2012.5월) 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33세 여자에서 양측 폐 이식 후 약 10년 후에 거부반응이 발생하여 양측 폐 재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2009년 12월).



국내 첫 폐이식수술 (이두연/김해균/백효채 팀) 성공 후 환자와 함께 한 의료진 (맨 우측이 이두연 교수, 우측에서 두 번째가 김해균 교수)



강남세브란스 병원은 이두연 교수팀이 1996년 7월 7일 국내 첫 페이식에 성공한 이후 2011년까지 50례의 페이식을 달성하였으며 (기념식 사진) 2017년까지 200례의 페이식을 달성하였다.

하이브리드 수술의 도입(1999)

2000년대에는 심장 수술분야와 대동맥분야에서 외과적 수술과 내과 시술적 중재술을 접목하는 소위 '하이브 리드 수술'이 도입되는 시기였다. 선천성 심장병의 경우 심장 기형의 일부는 중재술로 치료하고 일부는 수술로 치료하는 병합치료를 시행하거나 신생아 시기에는 중재술을 시행하고, 신생아 이후 시기에 심장수술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하이브리드 방법이 임상에 이미 잘 접목되고 있었으나 성인에서의 적용은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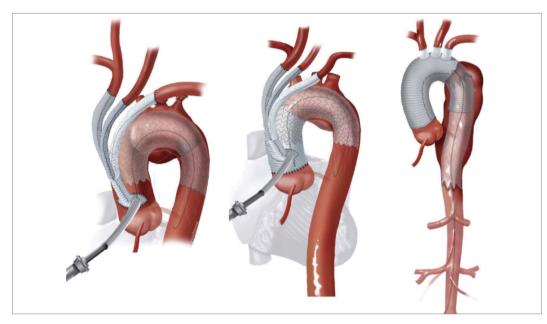
관상동맥분야에서의 첫 하이브리드 수술로는 1999년 서울의대의 김기봉 교수팀이 PTCA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anry angioplasty)와 CABG 실시례를 보고 하였으며 (장지민 등. 경피적 경혈관 관상동맥 중 재술과 최소침습적 관상동맥 우회술의 병용요법 KJTCS 1999;32:1127-30) 선천성 심질환에서는 2006년에 윤태진 교수팀이 단심증에서 하이브리드 고식술 (조원철 등, Hybrid Palliation for Functionally Single Ventricle with 제도ic Outflow Obstruction, KJTCS 2006;39:927-930)을 보고하였다. 대동맥류에서 실시하는 대동맥궁 수술에서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수술이 최근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대동맥궁의 경동맥과 쇄골하동맥을 인조혈관을 이용하여 상행대동맥으로 이동하여 주고 추후에 대동맥궁에서부터 하행대동맥까지 대퇴동맥을 통하여 stent graft를 삽입하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요법은 그 성적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에 원용순교수팀이 대·장골동맥류에서 하이브리드 수술을 보고하였고 (이재욱 등, Hybrid Endovascular Operation for Aorto-Iliac Artery Aneurysm-A case report— KJTCS 2009;42:111-114) 같은 해에 정철현 교수팀은 대동맥궁 대동맥류에서 하이브리드 수술을 보고하였다 (문덕환 등, Hybrid Procedure for Aortic Arch Repair: Arch Vessels Debranching with Supraaortic Revascularization Followed by Endovascular Aortic Stent Grafting KJTCS 2009; 42: 520-523).

특히 최근 고령 환자와 고위험 환자군이 늘어나면서 대동맥 질환이 증가하고 심장내과와 영상의학과의 stent gra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요법은 다학제 접근법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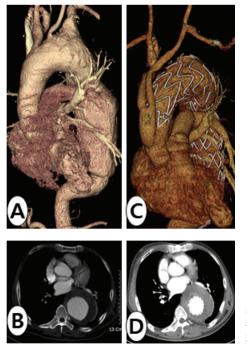


하이브리드 수술실의 전경. 하이브리드 요법을 위해서는 시술과 수술을 동시에 시행해야 하므로 조영술의 기능과 수술실의 기능을 갖춘 Hybrid Operation Room이 필요하다.

흥부외과의 입장에서는 수술 환자의 상대적 감소와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을 위한 중재적 접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회와 혼란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혈관내 스텐트삽입 후에 발생하는 후행성 A형 박리증이나 혈관누출(endoleak) 등으로 인한 부가적인 시술이나 수술로의 전환, 잦은 입원 및 경제적인 문제 등 장기성적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동반되어야 하고 하이브리드 요법을 위해서는 중재술과 심장수술을 동시에 할수 있는 수술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병원으로 보아서는 매우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시설임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요법은 관상동맥분야, 대동맥수술분야, 부정맥 치료 분야 및 선천성 심장질환분야 외에도 식도, 폐 수술분야 등에서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동맥류에 대한 다양한 하이브리드 술식의 모식도



대동맥류 하이브리드 수술 시행전후 컴퓨터단층촬영의 변화. 대동맥류에서 대동맥궁 상부혈관 우회술 후 대동맥궁 및 히행대동맥에 스텐트그라프트를 시행한 시행전(A,B) 과 시행 후(C,D) 사진. 가천의대 길병원 증례

1992년 11월 11일 송명근 교수에 의한 심장이식수술 성공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뇌사관련 장기이식이 합법화되면서 심장이식이 보편화 되었으며, 뇌사자의 부족에 직면하여 심실보조장치와 인공심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심실보조장치의 관심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법적규제로 인하여 임상에서의 사용이 교착상태에 있었는데 연세의대 장병철 교수 등이 심부전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마지막 방법인 좌심실보조장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언론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시작하였고 이후 심실보조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삽입형 좌심실보조장치 (implantable LVAD)는 2000년 7월 11일 연세의대의 장병철 교수에 의해 처음 성공하였다. 환자는 승모판막부전증이 매우 심한 말기 심근증 64세 남자로 심실개조수술 및 승모판륜 성형수술을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implantable LVAD (HeartMate I)를 삽입하였다. 환자는 수술 후 88일 안에 퇴원한 다음 집에서 재활 훈련을 하였으며, 이후 공여심장이 발생하여 LVAD 삽입 후 502일 후인 2001년 11월 성공적으로 심장이식을 하여 국내 첫 'bridge to transplant' 로 기록되고 있다.

장병철(張柄喆) 교수는 인터뷰에서 "2000년 7월 확장심근증이라는 심장병 때문에 심장을 짜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좌심실의 기능이 떨어진 김모씨(64)에게 좌심실의 기능을 대신하는 보조장치를 몸에 삽입하는 수술을 해서 생명을 연장시킨 데 이어 일년반이 지나 이 환자에게 뇌사자 곽모씨(45 · 여)의 심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체내 삽입형 좌심실 보조장치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심장 기증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면서 "김씨에게는 1년 반 동안 기계 오작동이나 감염 등의 부작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환자는 이식후 2017년까지 생존하였다. 현재 심장 보조장치로 1년 이상 생존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김씨를 포함해 10명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삼성서울병원도 2015년 8월 말기 심부전증 환자에게 '3세대 인공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조양현 교수팀에 의하면 "말기 심부전증 환자 A씨(62 · 여)에게 3세대 인공심장



국내 첫 좌심실 보조장치술(2000년 7월 11일)을 실시 한 연세의대 장병철 교수. 현재는 분당차병원 홍부외 과에서 후학지도를 계속 하고 있다.



장병철 교수가 국내 첫 Bridge to Ttransplant 환자와 함께 ambulation을 지도하고 있다. 환자는 수 술 후 88일째 퇴원하였다.

(LVAD · 좌심실 보조장치)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하였으며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LVAD를 환자 치료에 활용해 성공한 사례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거주자인 이 환자는 현지에서 관상동맥우회술, 인공심장박동기 시술 등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생애 마지막을 앞두고 고향인 한국을 찾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경우였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사용한 인공심장은미국의 인공 보조심장 전문 제조사인 Thoratec사에서 만든 '하트메이트 II(heartmate II)'라는 '3세대 인공 심장'이다. 외국에서는 2005년 첫 수술 후 현재까지 최종 7년 생존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수술건수는 매년 증가해 1,000례를 넘겼다. 수술 후 2년 생존율은 80%, 5년 생존율은 70% 이상이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이번에 수술을 받은 환자는 76세 고령으로 사실상 심장이식을 받기 어려운 환자로 인공심장을 단기간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첫 인공심장 이식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완전 인공심장이식은 세계적으로는 1982년 미국 유타주에서 실시되었다. 당시 심부전을 앓던 Barney Clark라는 치과의사에게 Dr. William DeVries가 Jarvik 으로 명명된 인공심장을 이식한 것이다. Barney Clark는 112일밖에 생존하지 못하였지만 이 수술을 계기로 인공심장과 심실보조장치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크게 증가되었다. 유명인사로 좌심실 보조장치를 받고 심부전을 이겨낸 사람 중에는 미국 전 부통령인 딕 체니가 있다. 그는 2012년 3월 25일 심장이식을 받았으며, 수술 후 활동적으로 일해왔다. 체니 전 부통령은 발전하는 현대의학의모든 혜택을 때에 맞추어 받은 행운아이자, 의료진들에게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좋은 환자로 인식되고 있다. 2013년 5월 7일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제93차 미국흉부외과학회에 참석해서는 '흉부외과 의사들과 심장수술과 관련된 의료인들의 팀워크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심부전환자는 증가하는데 비해 심장이식에 필수적인 뇌사자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고 좌심실 보조장치의 소형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향후 인공심장과 좌심실보조장치 분야는 흉부외과의 각광받는 새로운 분야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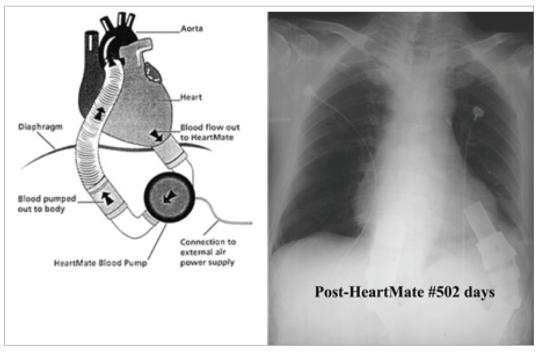
국내 첫 Bridge to Transplant 환자가 2000년 7월 11일 말기심부전증으로 삽입형 LVAD (HeartMate I)를 삽입하고 퇴원 후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모 습. 환자는 퇴원 후 부산의 김훈 원장이 돌보아주었으며, 수술 502일 후에 심장이식수술을 받고 이후 16년을 생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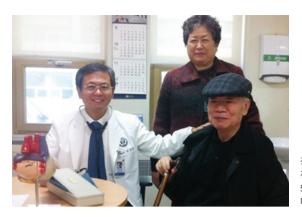
세브란스에서 2017년 11월 23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공한 소아 양심실 보조장치 이식술. 심실보조장치는 아직 완전 보험이 안되어 시술에 약 1억 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



닥체니 미국 부통령은 37세에 첫 심근 경색증을 보여 이후 1988년에 4 vessel CABG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2000년도에 coronary stent, 2001년도에는 제세 동기 장치 거치술, 2007년도에는 정맥혈전 제거술, 2010년에 LVAD 거치술, 2012년에 심장이식술을 받기까지 흉부외과의 첨단 수술을 모두 경험한 정치인 으로 알려져 있다.



연세의대 장병철 교수에 의해 2000년 7월 11일 처음 성공한 좌심실보조장치인 Heatmatel의 수술모식도



장병철 교수가 국내 첫 Bridge to Transplant 환자 (64세 남자)와 함께 진료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환자는 LVAD (Heartmate I)설치 후 502일 후 심장이식을 받았으며 심장이식술 후 15년 후 촬영한 사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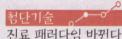
2005년 1월 3일 월요일 제270호

신년 특집 Ⅳ

메디칼 업저버

한국형 생명구조장치 'T-PLS' 상용화

박돗형 혈류 제공기능 세계 유일…美·네덜란드서 임상시험 돌입



의료를 시장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심혈관 영역에서 현재 가장 큰 시장은 관상동맥 분야이다. 약물치료 뿐 아니라 건당 의료비 발생이 큰 내과시술과 외과 수술 모두 꾸준히 늘고있으며, 특히 외과 수술인 관상동맥우회술은 그동안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약물스텐트의 등장으로 외과수술이 다소 주춤하고는 있 지만, 관상동맥우회술은 여전히 심장수술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들과 국제 마케터들의 판단 에 따르면 관상동맥 시장은 이미 포화상 태에 이르렀다고 하다 과거에는 시장적 유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으나, 몇 년 전부터는 활발 한 M&A를 통해 현재 시장의 대부분을 몇 개의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기업들은 관상동맥질환에 더 이상의 적극적인 투자 는 피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억을 극 대화하는 'cash cow'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심혈관 영역의 차세대 시장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④ 인공심장

심부전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렇다면 심부전 시장에 어떻게 진입 할 것이며, 어떤 경쟁전략이 필요할까? 어떤 부문에 투자 할 것인가? 아무도 답을 못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심부 전 치료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관상 동맥 질환의 경우는 이미 안전성과 효용 성이 증명된 많은 치료법들이 있기에 그 하나하나가 투자대상이 된다. 그러나 심 부저은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치료기 술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불리 덤벼들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심부전증에 제시되는 치료기술은 다양 하다. 베타차단제와 ACE억제제 등을 사 용하는 약물요법, Batista 혹은 Dor 술식 등과 같은 심장성형술, 심장박동기로 심 장을 재동기화하는 CRT 치료, 순환보조 장치나 인공심장과 같은 기계식 인공심 장,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심근세포이식, 형질변형 돼지심장의 이종이식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인공심장, 그리고 심장이식 등이 있다.



혀재까지 개발되 국사 이공 심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특히 최근 상용화까지 성공 한 한국형 생명구조장치(T-PIS)는 미국과 네덜라드록 중심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이며 중국의 경우는 이미 임상에 사용하고 있다.

남아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다.

심장기능이 악화되어 말기 심부전에 진 입하게 되면, 약물이나 심장성형술 같은 전통적인 내·외과 치료가 듣지 않는 상태 가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치료기술이 동원 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치료단계에서 현재 까지 최선의 치료는 심장이식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심장이식은 심장 공여자가 절대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된 2000년 이후, 심장이식은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심장이식의 차선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심근세포 이식과 형질변형 돼지심장의 이종이식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인공장기가 있다.

심근세포 이식은 몇몇 기관에서 유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임상에서 공인 된 치료기술로 정립되기까지는 아직 검증 할 요소들이 많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심 장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 인공 심장 프로젝트는 상상만으로도 외과의사 의 가슴이 설레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앞 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전통적인 기계식 인 공심장이다. 어떤 기계장치를 인공심장이 라 부르는가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공심장은 심장치환 형과 심장보존형으로 나눌 수 있다. 심장 치환형 인공심장은 완전인공심장이라고도 부르며, 병든 심장을 제거하고 기계장치로 같아 끼우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국의 Cardiowest와 Abjocor가 있다. 심장보존형은 심실보조장치라고도 부르며 자기 심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도와주는 것 이다. 한국의 AnyHeart가 대표적이다.

인공심장을 구동방식에 따라 전기구동

이들 중에 약물요법과 심장성형술과 같 식(전기식)과 공기구동식(공압식)으로 나 은 치료기술은 자기 심장기능이 어느 정도 누기도 한다. 위에 언급한 Cardiowest는 공압식이고, Abiocor와 AnyHeart는 전 기식이다.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H-VAD 는 양쪽의 장점을 취합하여 성능을 향상 시킨 hyrid형 인공심장이다. 전기식은 소 형경량화가 가능하여 이식형 인공심장에 쓰이고, 공압식은 체외형 인공심장의 주 요 구동방법이 된다.

현재까지 개발된 국산 인공심장은 엔지 니어 측면과 의학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 준이다. 특히 최근 상용화까지 성공한 한 국형 생명구조장치(T-PLS)의 경우는 세 계에서 유익하게 반동형 형류를 제공하는 생명구조장치로서 미국과 네덜라드를 중 심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돌입 할 예정이다. 중국의 경우는 이미 임상에 사용하고 있다.

의료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 회 및 전통 등의 통합적인 표현이라고 한 다. 따라서 특정한 치료기술이 임상에서 표준치료법으로 자리 잡으려면 환자와 의 사와의 관계 뿐 아니라 기업 관점에서 보 는 시장의 개념을 배제하기 힘들다. 그런 면에서 인공심장의 미래는 밝다. 최근 국 제적으로 인공심장 개발영역의 특징은 연 구 단계를 벗어나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 다. 따라서 각국의 연구진들은 시장 선도 그룹이 되기 위해 이합집산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형적인 lock-in & lock-out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인공심장 연 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안 목을 갖춘 부다하 외부환경 분석이 절실



선경 고려의대 교수 흉부외과 한국인공장기센터장 보지 갠원논설위원

한 시점이다.

메디칼 업저버에 실린 선경 교수의 인공심장에 관한 기고문 (2005년 1월 3일), 선경 교수는 한국형 인공심장을 개발한 바 있으며 위 보도사진(왼쪽아래)에서 는 고대의대 김형묵 교수와 함께 한국 최초로 개발된 인공심장을 살펴보고 있다.

chosun.com 오피니언

뉴스

오피니언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발언대] 인공 심장 이식수술, 우리는 왜 못 받나

장병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교수

일찍: 2013.07.16 03:06



잡별철 연세대 세브란스벨립 심 잡뻘광의과교수

지난 5월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미국흉부학회에는 독특한 환자 한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딕 체니 전(前) 미 부통령이다. 37세부터 심근경색증을 앓아 온 그는 69세이던 지난 2 010년 말기 심부전증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인공 심장을 이식받아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고, 작년에는 인공 심장을 떼고 심장이식 수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딕 체니가 한국에 살고 있었다면 거의 100% 사망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인 공 심장 이식수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이 지난 2000년 1세대 인공 심장, 삼성서울병원이 올해 초에 2세

대 인공 심장 수술에 성공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수술들은 '임상 연구'로 이뤄졌다. 즉 환자가 돈 내고 받은 수술이 아니라,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아 병원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연구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인공 심장은 기계 값만 1억1000여만원이다. 아직 임상 연구만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돈을 낼테니 인공 심장 이식수술을 해 달라"고 해도 병원은 응할 수 없다.

인공 심장은 작년 11월 식약처에서 일단 수입품목 허가가 났지만, 이후 승인 절차는 하세월이다. 지난 5월에 신청한 미국 인공 심장 제조회사에 대한 한국 공무원들의 현장 심사는 11월쯤이나 이뤄질 예정이다. 인공 심장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청 후 1년 이상 걸리므로 결과는 내년 6~7월쯤 나온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내후년쯤 돼야 나올 것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매년 수천명이 인공 심장 수술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절차 때문에 첨단 의료기술이 있어도 생명을 잃는 현실이다.

자선책이라도 열어줘야 한다. '개별 환자 승인제도'라는 게 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는 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장비로 국민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겠지만, 인공 심장의 안전성은 이미여러 국가에서 검증이 끝났다. 뇌사자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사용되기도 하며, 영구적인 생명 유지 장치로도 쓰인다. 한시가 급한 말기 심장병 환자들을 감안해 인공 심장 사용 승인 절차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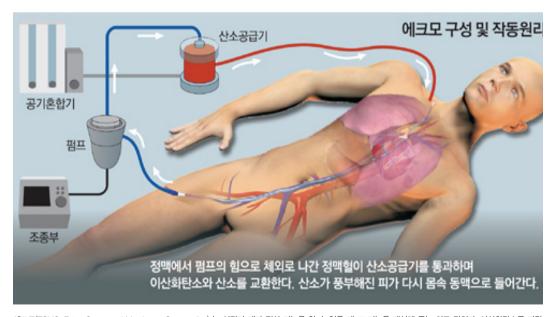
에크모(ECMO)의 도입(1994)과 상용화

에크모는 심장과 폐가 정상 기능을 사실상 거의 할 수 없을 때 그 기능을 대신해 주는 의료 장치다. 이산화탄소를 다량 함유한 정맥혈을 뽑아낸 뒤 펌프를 거쳐 산화기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고, 이 혈액을 동맥혹은 정맥으로 다시 넣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에크모의 작동 원리다.

에크모는 중증 폐부전 혹은 심부전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심장 수술이나 각종 심혈관 시술의 보조요법으로도 사용이 되며 그 적응증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심장이식이나 폐이식 대기 환자들의 가교 역할로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어 중환자 분야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치료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심장 질환과 관련해선 △급성 심근경색 △심근염 △심실성 부정맥 △심인성 쇼크 환자에게 많이 적용된다. 폐 질환의 경우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기관지 손상 △중증 기흉(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는 질환) 환자에게 주로 적용된다. 세계최초의 ECMO는 1971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Dr. Hill에 의해 실시되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대동맥파열환자에서 CPB weaning 실패로 ECMO를 삽입하였으며 환자는 생존하였다. 또한 심혈관 수술과 무관한 최초의 에크모 성공사례는 1974년 미국 미시간에서 Dr. Bartlett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당시 환자는 meconium aspiration syndrome을 가진 신생아였다.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의 에크모 증례와 같이 심장 수술 이후에 체외순환 장비를 중환자실에서 유지하여 생존한 사례는 명확히 기록되어있지 않고 몇몇 병원에서 최초의 성공 사례를 경험했다는 주장은 있다. 한편 국내심장 수술의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여러 경로로 해외의 장비나 소모품을 들여와 시행한 경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확하게 국내 최초의 에크모 성공 사례는 특정할 수 없다.

문헌에 따르면 심장 수술과 무관한 생존 사례는 영동 세브란스병원에서 홍기표 등이 전폐절제술 직후에 발생한 호흡부전증에 적용하여 성공한 증례 보고이다 (홍기표 등, Extracoporeal membrane oxygenation for p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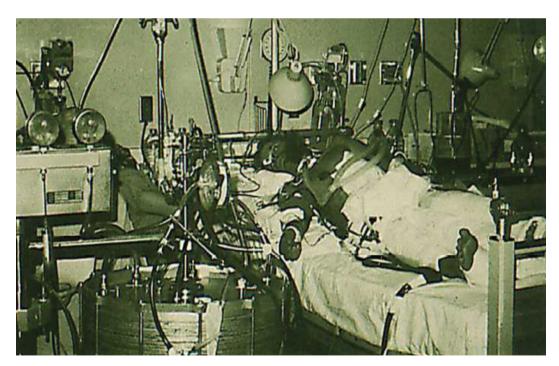


에크모(ECMO, Extra-Co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는 심장과 폐가 정상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그 기능을 대신해 주는 의료 장치다. 이산화탄소를 다량 함유한 정맥혈을 뽑아낸 뒤 산소공급기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고 산소가 함유된 피를 동맥혈로 다시 집어넣어 주는 것이 에크모의 작동 원리이다 pneumonectomy respiratory failure — a case report —. KJTCS 1994;27:60—62). 삼성의료원 성기익 등은 상업화된 현대적 에크모 장치를 이용하여 2003년 11월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영탁 등에 의해 시행되었던 증례를 발표하였다 (Sung K, et al. Improved survival after cardiac arrest using emergent autopriming percutaneous cardiopulmonary support, ATS 2006 Aug;82:651—6).

에크모는 폐이식에서 bridge to transplantation에도 유용하여 2007년 7월 15일 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등이 피부근염으로 발생한 말기폐부전 환자에게 에크모 장치를 적용한 후 3주 후에 양측 폐이식을 성공하였음을 발표하였다 (Clin Exp Rheumatol, 2009 Jan—Feb;27(1):168—9).

국내에서 에크모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계기는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동반하는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증후군) 유행이었다.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전국의 메르스 환자 중 많은 이가 에크모의 도움을 받았다. 이 중에는 현재는 메르스를 이겨내고 회복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의사 출신인 35번 환자(당시 42세)도 포함돼 있다. 메르스에 의해 많은 안타까운 환자들이 발생하였는데 이 환자들을 위해 흉부외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에크모 등을 이용한 중환자 치료에 앞장서서 많은 국민들이 에크모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삼성재단의 이건희 회장도 자택에서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인근에 있는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심폐 소생술을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에크모를 삽입하여 심장기능이 회복된 경우도 있었다.

과거에는 에크모는 단순히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크모를 이용한 치료 노하우가 크게 개선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에크모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15년에 에크모 시술 1000건을 달성하는 등 국내에서 에크모 분야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2012년 에크모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44%였지만 2017년에는 생존율은 60%까지 올라갔다. 에크모의 성적 향상으로 인해 인공호흡기, 강심제, 대동맥 풍선 펌프 등 기존의 치료법으로



세계 최초의 ECMO는 1971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Dr. Hill에 의해 실시되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대동맥 파열환자에서 CPB weaning 실패로 ECMO를 삽입하였는 데 환자는 생존하였다.

지료가 힘들 경우 조금 더 조기에 적용하여 기존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심장 혹은 폐의 기능 회복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에크모를 사용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폐이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대 에크모팀은 2007년도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에크모 환자에서 폐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한바 있다. 조양현 삼성서울병원 성인 에크모 팀장(흉부외과 교수)은 "요즘은 생존 가능성이 50% 미만일 때부터 에크모시행을 검토한다"며 "인공호흡기나 진정제 투여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일 때도 많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기도에 관을 넣고 인공호흡기를 활용하는 '기도삽관' 치료보다 △감염에 의한 패혈증 △폐 손상 △호흡 근육 약화 같은 부작용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조 교수는 "국내외에서 에크모와 관련된다양한 연구와 임상 시도가 되고 있고 다양한 장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신장 투석이나 인공호흡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준 치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장기간 에크모 치료를 적용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학적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에크모 환자에게 낮은 수준의 수면치료를 하면서 재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심장이나 폐 기능 회복 후에 더 빠르게 전신 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편 에크모 환자는 이동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병원내 각종 검사나 처치를 위한 이동은 물론 병원간 이송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현재 인력이 충분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에크모 이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이 에크모 환자들도 일반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우리 흉부외과 의사들이 앞으로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다. (고대의대 신재승 교수)

에크모에 관심있는 흉부외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 10일 에크모 연구회 창립 총회 및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 내 에크모 진료와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 에크모 실시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비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300여건에서 2017년에는 1600여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에크모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수도 2017년에는 87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에크모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의료원의 에크모 1,000례 달성에 대한 보도(2015년 10월 5일)



에크모는 현재 소형화되고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어 환자와 함께 헬기로도 얼마든지 이송할 수 있다. 사진은 삼성의료원 의료용 헬기로 이송되 는 에크모 장착 환자의 모습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사태는 2015년 대한민국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최대의 이슈였다. 총 186명의 환자 중 38명이 사망하였는데 이중 몇 명이 호흡부전으로 에크모를 장착하였으며 특히 삼성서울병원의 의사(35번)가 이 에크모를 통해 생존할 수 있었다. 이후 이건희 회장도 자택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한 후에 에크모를 통해 심장이 회복되어 에크모의 유용성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에크모연구회는 매년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서 심 포지엄을 개최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2018년 8월 부산대학교 흉부외과에서 열린 에크모 심포지 엄 포스터.

로봇수술의 시작(2005)

세계적으로 로봇수술은 1990년대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64세 된 환자에서 고관절치환술이 Robodoc이라고 불리는 로봇에 의해 성공된 이후 미국 FDA에서는 2000년에 들어서서야 Da Vinci 로봇을 미세수술을 위해 허가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아산병원 이재원 교수팀에 의해 심장수술에서 로봇수술이 처음 적용된 예가 보고되었고 (조성우 등. 수술로봇을 이용한 심장수술 첫 체험. KJTCS 2005;38:366—370), 일반 흉부수술에서는 2006년 에 연세의대 정경영 교수팀에 의해 처음으로 논문에 보고되었다 (김대준 등. 다빈치 수술로봇을 이용한 흉부수술 1예보고, KJTCS 2006;39:482—485). 2000년 중반부터 시작된 로봇수술은 처음에는 종격동 종양과 같은 간단한 수술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폐암 수술 및 식도암 수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2015년에 서울의대 강창현 교수팀이 발표한 국내 로봇수술의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932건의 로봇을 이용한 흉부심장혈관외과 수술이 시행되었으며 이중 63%가 흉부수술이었고 37%가 심장수술이었다 (Chang Hyun Kang et al. Current Trend of Robotic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ies in Korea: Analysis of Seven—Year National Data, KJTCS 2015;48:311—317). 로봇수술이 보여주는 몇 가지의 장점들 즉 외 과의의 피로도 감소, 손떨림 제거, 3차원 입체영상 제공 및 감염으로부터 외과의를 보호하는 점 등은 앞으로의 로봇 시스템 개발과 맞물려 더 극대화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또한 고가의 설치 및 수술비용, 제한된 수술기구 등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향후에는 로봇수술의 영역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미세수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수술하는 외과의사의 스트레스는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나 환자의 절개부위는 점차 미세화 됨으로 인하여 만족도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로봇수술은 원래 미해군에서 항공모함 등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개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비용문제 등의 걸림돌로 인하여 일부 병원의 일부 환자에서만 사용되고 있지만 점차 적응증이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 사진은 Da Vinci Si Robot을 이용한 수술장면.

국내 첫 생체폐이식 성공(2017)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이식팀은 2017년 10월 21일에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말기 폐부전에 이른 19세 여자환자에게, 생체폐이식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였다. 성공적인 생체폐이식을 위해 수술 전 수차례에 걸쳐 외국 생체폐이식 수술의 참관 및 교류, 다학제적 회의 및 수술 프로토콜 미팅, 3D printing 모델을 이용한 수술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하여 기술적 난관의 극복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수술 당일에는 50여명 이상의 의료진이 수술에 참여하여 동시에 4개의 수술장을 열고, 8시간 이상의 수술을 통해 건강한 환자의 아버지로부터 기증받은 폐우하엽을 환자의 우측 폐로, 어머니의 폐좌하엽을 환자의 좌측 폐로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수술 후 경과는 양호하여 수술 후 38일째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였으며, 2018년 8월 현재 환자, 기증자 모두 건강한 일상 생활을 영위 중이다.

국내 '장기 등 이식에 관현 법률'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을 위해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 폐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울아산병원은 현행법상 생체폐이식이 불법이란 점을 감안해 병원내 임상연구심의위원 회와 의료윤리위원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정책윤리위원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등에 이 사안을 보고 해 윤리적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정책과와 국회를 설득하는 법적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내 최초 생체 폐이식 수술장면 (2017년 2월 21일)

이 수술을 계기로 장기이식법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폐장'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수술은 국내 최초로 생체폐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향후 생체 폐이식이 필요한 폐기능 부전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의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국내의 의학적, 법적 기틀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생체 폐이식 환자의 수술전(좌)과 수술후(우) 흉부 X-선 사진



국내 최초 생체 폐이식 환자의 퇴원시 기증자와 의료진의 기념촬영



PICTORIAL HISTORY AND PIONEERS OF KOREAN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1968

VII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도약

148 국제 학술대회 유치

151 흉부외과 백서출판 및 역사기록위원회 발족

153 흉부외과 전문의의 의사협회 및 정부 산하 기관 활동

158 메디칼드라마에 나타난 흉부외과

2018

국제 학술대회 유치

1983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 흉부 및 심장 혈관학회(The 6th Asian—Pacific Congress for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에는 미네소타의 Dr. Lillehei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이 대회에서 서울대병원 이영균 교수가 차기 아시아태평양 흉부 및 심장혈관학회회장으로 피선되었다.

1996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는 제4차 아시아 심장혈관 외과학회(ASCVS, Asian Society for Cardiovascular Surgery, 조직위원장: 서울대 서경필 교수)를 국내에 유치하여 국내의 흉부외과를 해외에 소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2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제10차 아시아 심장혈관외과학회(ASCVS, 조직위원장: 연세대 조범구 교수)를 6년 만에 다시 개최하였다.

년도	학회명	기간	장소
2018년	제19차 CWIG 및 제32차 춘계통합학술대회 (The 19th Annual Congress of Chest Wall International Group)	2018년 6월 13~15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호텔
2017년	제25차 ASCVTS 및 춘계통합학술대회 The 25th ASCVTS & KTCVS	2017년 3월 23~26일	서울 코엑스
2013년	제45차 추계학술대회 및 ISMICS 2013 Winter Workshop (The 45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Thoracic &Cardiovascular Surgery and ISMICS 2013 Winter Workshop)	2013년 11월 7~9일	서울 The–K 호텔
2009년	제19차 아시아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The 19th Biennial Congress of Association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ons of Asia)	2009년 10월 25~28일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
2002년	제10차 아시아 심혈관외과학회 (The 10th Annual meeting of the Asian Society for Cardio–vascular Surgery)	2002년 4월 17~19일	제주 신라호텔
1996년	제 4차 아시아 심장혈관외과학회 (The 4th Annual Meeting of Asia Society for Cardiovascular Surgery)	1996년 5월 15~17일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
1983년	제 6차 아시아 흉부 및 심장혈관학회 (The 6th Asian Congress for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1983년 4월 20~24일	서울 롯데호텔

이 대회에는 27개국 642명이 참석(국내 295명, 국외 347명)하였으며 24개국에서 330편의 초록을 접수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초강연과 심포지엄, Meet the Experts 세션 등을 포함하여 27개국 353편이 발표되었다.

2009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시아 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The 19th Biennial Congress of Association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ons of Asia, 조직위원장: 서울 대학교, 김주현 교수)에는 32개국 905명이 참석(국내 547명, 국외 358명)하였고 32개국에서 구연287편, 포스터 252편이 발표되었다.

2013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The-K호텔에서 제45차 추계학술대회가 ISMICS 2013 Winter Workshop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Minomally Invasive Cardiothoracic Surgery 2013 Winter Workshop. 대 회장: 서울대학교 김영태 교수) 과 함께 개최되었으며 9개국 1,054명이 참석(국내 1,004명, 국외 50명)하였고 9개국 에서 구연 156편, 포스터 51편이 발표되었다.

2017년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31회 춘계 학술대회 및 제25차 아시아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ASCVS, 조직위원장: 서울대학교 안혁 교수)는 한국에서 3번째 개최되는 대회로 24개국 1,493명이 참석 (국내 721명, 국외 772명)하였고 성인 및 소아심장, 일반흉부, 중환자의학 등 각 분야의 저명한 국내외 200여명의 학자와 일반의, 전공의, 간호사, 체외순환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미국흉부학회와 유럽심장흉부외과학회 등 세계 주요 학 회장들이 대거 참석해 ASCVTS의 위상을 높였다.

2018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는 제32차 춘계통합학술대회가 제19차 CWIG(The 19th Annual Congress of Chest Wall International Group 조직위원장: 박형주 교수) 대회와 같이 개최되었으며 23개국 980명이 참석(국내856, 국외 124명)하였고 23개국에서 구연 122편이 발표되었다.



제45차 추계학술대회 및 ISMICS 2013 Winter Workshop 총회 직후 사진



2017년 3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1차 대한흉부심장혈관학회와 같이 개최된 제25차 아시아 흉부심장혈관학회(ASCVTS)의 한 패널모습



2017년 3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1차 대한흉부심장혈관학회와 같이 개최된 제25차 아시아 흉부심장혈관학회(ASCVTS)에서 안혁 조직위원정(앞줄 가운데)과 포즈를 취한 외국연자들

흉부외과 백서출판 및 역사기록위원회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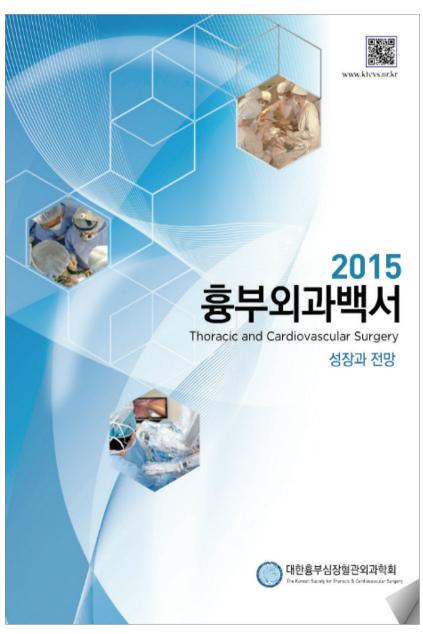
흥부외과 백서 발간은 2013년도 초에 학회 사무실에서 장병철 회장, 선경 이사장을 포함한 기획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기하였으며 그 이후 장병철 회장(2013~2014년), 심성보 이사장(2015~2017년)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박국양 교수를 역사기록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세브란스 병원 역사에 기록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항상 역사기록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장병철 전 회장과 강남세브란스 이성수교수가 많은 역할을 하였다. 2년여 동안 여러 위원들의 노력 끝에 2015년도에 햇빛을 본 '흉부외과 백서'는 총 213페이지로 4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흉부외과 개요 및 진료영역을 2부는 인력현황 및 진단을 3부에서는 이슈 & 포커스편으로 흉부외과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었고 4부에서는 전공의 지원미달 사태로 빚어진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제언을 실었다. 백서는 일반 국민들과 언론인,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향해 우리 학회의 위기감과 어려움을 전달하고자 제작되었다. 최근 전공의가 급감하면서 몇 년 후에는 우리국민의 심장과 폐수술을 수입된 외국의사의 손에 맡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증가하였다. 백서의 편찬목적은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통해 흉부외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가 흉부외과를 기간의료로 성장발전을 시키는데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위함이었다. 기간의료란 박정희 대통령시대에 철강과 조선공업, 항만건설 등을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으로 정하고 민간기업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앞장서서 성장의 주축으로 삼았듯이 흉부외과야 말로 기간의료로서 민간병원들의 경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백서출판기념회(2015년 4월 29일)때 자리를 같이한 학회 임원들과 외빈들, 앞줄 왼쪽부터 이정열 이사장, 전현희 의원,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성숙환 회장, 이윤성 의학회장, 정경영 교수가 보이고 뒷줄 왼쪽부터 백완기, 박국양, 박영태, 이두연, 신재승, 김상형, 백효채, 심성보, 강경훈, 이성수, 오태윤 교수가 보인다.

백서 발간은 추후 역사기록위원회에 의해 꾸준히 자료검증과 발굴을 통해 보완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회원들의 자료 발굴에 대한 참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50주년 화보집도 이러한 자료를 발굴하는 한 과정이다. 이는 흉부외과를 전공하는 후배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됨은 물론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흉부외과 백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흉부외과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알리고자 2015년에 발간되었다. (총 213면)

흉부외과 전문의의 의사협회 및 정부 산하 기관 활동

2018년 현재까지 의사협 회장을 역임한 흉부외과 전문의로는 한격부 교수와 노환규 선생이 있다. 그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나 심장재단 의협부회장으로 활동한 회원은 조범구 심장재단 이사장, 선경 오송첨단의료산업재단 이사장, 강청희 건강보험급여 상임이사가 있다.

1) 한격부 교수

한격부 교수는 지난 1956년 이미 40을 넘긴 장년의 나이에 스웨덴과 영국에서 흉부외과학을 연수 후 당시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흉부외과학의 초석을 다진 개척자이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은 흉부외과학에 매진하면서 아호를 '돌을 던진다'는 뜻의 捨石(사석)으로 스스로 정한 한격부 교수를 볼 때 오직 한길을 걷겠다는 그의 신념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노환으로 인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때에도 한격부 교수는 흉부외과발전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5억원을 쾌척하기도 하였다.

초대 대한흉부외과학회 회장을 지낸 한 교수는 1913년 함경남도 정평에서 태어나 1941년 서울의대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1947년부터 서울의대 교수를 역임하다 6·25 전쟁 후 수복 당시 서울대로 돌아오지 않고 1953년부터 56년까지 부산대 교수로 재직하며 부산의대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같은 기간 부산 스웨덴(서전)적십자병원 흉부외과 과장을 역임했으며, 국립의료원 개원 당시 상경하여 1959년부터 61년 까지 국립의료원 흉부외과 과장으로 봉직했다.

1962-1964년 서울특별시의사 회장, 1970-1972년과 1976-1979년 두 차례 대한의학협회(現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보험수가 제정작업, 우리나라 의료사상 최초의 국제 의학행사인 제7차 아세아 대양주 의학협회연맹 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당시 험난했던 의료계 난제를 타고난 근면성과 강직한 신념으로 해결해냈다. 이후 1978년부터 20여년간 서울시립노인요양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1955 스웨덴 적십자공로훈장, 1978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으며, 가족으로 장남 수환씨 등 2남 3녀를 두고 있다.



대한의학협회 현판식 모습(1995년 6월 17일). 왼쪽부터 김재전 의협 명예 회장ㆍ권이혁 학술원 회장ㆍ한격부 명예 회장(원안) 이문호 대한의학회 명예 회장ㆍ유 성희 의협 회장ㆍ천희두 대의원회 의장 이주걸 고문ㆍ임종호 광주광역시 의사회장(직함은 당시기준)



의협 회장시절 1976년도 제1회 병원관리연수과정에 참여한 한격부 회장. 앞줄 중간에 윤천주 총장, 신현확 보사부장관, 한격부 의협 회장이 보인다.



의협회관(현재 동부이촌동) 낙성식장면(1974). 이후 44년간 의사협회를 대표하였으나 너무 낡아서 이전을 결정한 상태이다. 의사협회는 1955년 관훈동의 구 의친왕궁을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화재로 소실되면서 중구 쌍림동의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이후 서울역전의 구 세브란스 건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관철동 사무실로 이전하였으며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현재의 동부이촌동으로 확장 이전하였는데 이 당시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과 한격부 교수가 거금을 희사하여 지금도 의협회관에는 동아홀과 사석홀이 명명되어 있다.

2) 노환규 원장

노환규 회원은 2012년 37대 의협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전의총 수장이었던 노환규 전회장은 취임사에서 "의사가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고 의료의 본질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하였으며 의협 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변경하였다. 2016년에는 의협회장을 그만두고 저술한 〈골든타임〉에서 흉부외과 수련의로서 겪었던 에피소드와 의협회장을 지내면서 다뤘던 현안 등을 엮어냈으며 이 책에서 공식 언론 발표의 뒤안길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노환규 회원은 2009년 8월 11일 '나섭니다'라는 글에서 '의사들이 의료의 변방으로 밀려나 진료체제의 주변자가 되는 것을 배척하고 의사가 중심이 되는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식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발생하는 여러 지엽적인 현안들은 의사들이 힘을 모아 정부와 근본적인 대책을 두고 협상할 수 있는 힘을 키우지 않는 한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닥플은 의사가 중심이 되는 의료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을 함께 하는 의사회원들의 열망을 담아 새로운 의사단체를 만들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닥플은 2000년에 만들어진 의사커뮤니티 사이트로 노환규 회원이 2009년 2월 인수한 이후 당시 7개월째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글로 인해 막막한 의료 현실에 가슴 답답해 하던 의사 회원들이 폭발적인 반응으로 보였고 이후 노환규 전 회장은 닥플의 초대대표를 맡게 되었고 한달 후 전국의사총연합이 출범하게 된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한의사들과 약사들의 불법행위, 의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들과 준공무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과 억울한 일을 당한 의사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섰고, 각종 의료현안에 시위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국회에서 다뤄지는 의료악법의 저지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전의총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노환규 회원은 37대 의사협 회장에 당선되었다.

의협 회장 재임 중에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노환규 전의협회장은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항상 흉부외과 의사들은 모두가 '진정 의사다운 의사'들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2012년 3월 25일 의사협 회장으로 당선된 흉부외 과 노환규 회장의 취임 장면

3) 조범구 교수

연세의대 조범구 교수는 정년 후에 복지부 산하단체인 심사평가원장(2004년)을 거쳐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한국 심장재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26년간 심장병 어린이들을 찾아 무료진료를 해온 '한국 심장병 치료의 대가'로서 누구보다도 가장 적합한 직책을 맡은 것이라고 평가가 된다.

1939년 3월 생으로 1958년 서울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64년 2월 연세대학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1991년 연세의대 흉부외과학교실 주임 교수를 역임한바 있으며 2000~2003년 세브란스병원장, 1993~1997년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한바 있다.

조범구 교수는 연대 의대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 등에서 심장외과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였는데 당시 미8군 군 의관이던 토머스 페즐라씨가 한국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미국에 보내 무료 수술을 받게 해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페즐라의 소개로 부산 메리놀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김 미카엘라 수녀(부산 심장환자상담소 요양원장)를 만나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던 아이들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조범구 교수는 처음 병원 강당에 들어서던 날 앙상하게 마른 아기를 안고 울던 젊은 어머니를 만나 큰 충격을 받았다. "병 있는 아이를 낳아 재수 없다고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선생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우리 아기가 그냥 죽어야 해요" 하고 울부짖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조 박사는 잊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조 원장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부산행 기차에 올랐다. 일요일 새벽부터 밤중까지 전국에서 몰려온 환자를 100~150명씩 보고, 야간열차에서 꾸벅꾸벅 졸며 서울에 돌아왔다. 26년이 지나면서 교통 편이 기차에서 비행기로 바뀌었지만 그의 무료진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계속됐다. "그저 한번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계속했어요. 가난한 부모들이 입술이 파랗게 된 자식을 안고 몰려와 나만 쳐다보는데 의사가 그걸 보고 어떻게 그만둡니까?" 이렇게 그의 손을 거쳐 심장수술을 받은 어린이가 1500여명. 진찰한 어린이는 3만 명이 넘는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 심장재단 조범구 이사장과 자리를 같이한 의협 노환규 회장과 강청희 의협 총무이사 (2013년)



조범구 이사장은 마라톤매니아 이기도 하다. 양 재천변을 뛰고 있는 모습 (2009년)

4) 선경 교수

한편 의공학계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진출하여 흉부외과의 위상을 높인 교수로는 고대의대 선경 교수가 있다. 1981년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인공장기센터 소장을 거쳐 후 2010년 보건산업 진흥원 R&D 진흥본부장 및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2014년 오송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대한 흉부심장혈관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고려대 안암병원 선경 교수가 연구팀과 함께 신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5) 강청희 이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 회장 출신 현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도 흉부외과를 위해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다. 강청희 이사는 연세원주의대 흉부외과를 나와 동 대학원(신촌)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의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에 임명되면서 파격 인사라는 주목을 받았다. 의대, 중소병원, 의원 등에서 진료 경험 뿐 아니라 의사단체를 거쳐 보건소장까지 경험하였다. 연대의대 흉부외과교실 강사와 외래 교수를 역임하고 혜민병원 진료부장과 흉부외과 과장을 지내다가 연세서울의원을 개업하면서 대한흉부심 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광진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의사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37대 노환규 의협 회장 시절이다. 2013년 4월 의협 총무이사를 지냈고, 1년 후 상근부회장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을 맡아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담당했다.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2018년)

메디칼드라마에 나타난 흉부외과

한국에서의 메디컬 드라마는 일반 시청자들의 의학에 관한 상식을 전달하면서도 전문영역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세계를 그려낸다는 점에서 방영될 때마다 큰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의학드라마의 시초는 1980년 KBS에서 방영된 일요아침드라마 〈소망〉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정신병원〉 〈제 7병동〉 등 서양의학의 범주를 다루는데서 한방의학의 〈집념〉 〈동의보감〉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시청자를 확보하였는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양적 질적으로 수준이 현실과 가까우면서도 재미를 더하여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 분기점이 된 작품이바로 1994년 방송된 MBC의 〈종합병원〉이다. 최고 시청률 42%라는 경이적인 기록은 아직 어떤 드라마도 깨지못하였다고 한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의학드라마는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수술 장면들이 현장감 있게 묘사되고 배우들의 연기가 사실적으로 그려짐으로써 장르적 완성도와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흉부외과의 중



1994년 방송된 MBC 의학드라마〈종합병원〉의 한 장면으로 신은경과 이재룡의 모습



MBC 의학드라마 〈종합병원〉의 한 장면 (1994년 방송). 종합병원의사들의 일상과 애환을 다룬 작 품으로 이재룡, 신은경, 전광열, 김지수들이 열연 하였다.

요성이 부각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선에서 일하는 흉부외과의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드라마도이에 발맞추어 제작되었는데 〈의가형제〉〈외과의사봉달희〉〈뉴하트〉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드라마의 내용과 연기를 보고 흉부외과를 하겠다고 지원한 의과대학생들이 증가하였음도 사실이다.

또한 흉부외과의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적 다큐형식으로 다룬 작품은 〈극한직업 흉부외과〉로 〈의학계의 3D, 흉부외과 24시〉라는 부제로 방송된 EBS 단편이었다. 2008년 8월 6일~7일 밤 방송되었으며 극심한수면 부족, 과중한 업무로 '의학계의 3D'로 통하는 흉부외과를 가감없이 묘사하였다. 또한 매순간 생과 사를 넘나들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흉부외과 의사들의 일상, 심장과 생명을 지키기위해 환자와 함께 사투를 벌이는 흉부외과 병동의 24시를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흉부외과를 알리는데 크게 공헌을 하였다.



메디칼 드라마는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알기 쉽게 의학의 현장을 전달해주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훌륭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전문가들의 의학자문을 통해 실제와 거의 유사한 장면들이 생생하게 방송되고 있다.



SBS 드라마 〈외과의사 봉달이〉 출연진, 이범수, 이요원들이 출연한 이 드라마는 사실 외과의사라기 보다는 흉부외과 의사의 일상을 다룬 작품으로 첫 장면이 지게차에 깔린 환자의 심압전증 (cardiac tamponade) 환자를 응급조치하는 데서 시작된다.



조재현의 명연기와 지성, 김민정 등의 활약이 돋보인 MBC 의학드라마 $\langle h$ 하트 \rangle 의 한 장면



PICTORIAL HISTORY AND PIONEERS OF KOREAN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1968

VIII.

아시아 흉부외과의 역사와 한국의 참여

162 ASCVS의 창립 배경

163 ASCVS(Asian Chapter)의 학회 역사

164 역대 ASCVS 학회와 한국의 참여

173 ACTA에서 한국인의 참여

2018

ASCVS의 창립 배경

ASCVS는 1950년도부터 DeBakey와 Haimovici에 의해 활동을 시작한 ISCVS (International Society for Cardiovascular Surgery)의 아시아분회(Asian Chapter)로서 1973년 시작되었다. 당시 DeBakey와 Haimovici는 일본 동경대학의 Seiji Kimoto에게 편지를 보내 아시아에서도 ISCVS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 요청을 받아들여 아시아 분회가 설립되게 된 것이다. 이후 1975년도에는 서울대 이영균 교수가 호응하여 동참하였고 이후인도, 태국 등도 참여하여 범아시아 학회로서 발전을 하게 된다. 연제발표는 격년으로 열리는 ISCVS세계학회에서 하였고 논문은 ISCVS의 학회지인 'The Journal of Cardiovascular Surgery'에 기고하게 된다.

이후 미국에서는 ISCVS가 심장수술 분야 회원이 거의 탈퇴를 하고 주로 혈관외과 분야 회원중심으로 구성이 된데다가 명칭마저 ISCVS에서 ISVS(International Society for Vascular Surgery)로 명칭이 바뀌면서 아시아분 회인 ISCVS에서는 회원들이 더 이상 ISVS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논의를 거친 후 2003년 ISCVS에서 탈퇴를 하게 된다. 즉 ASCVS라는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되 ISCVS의 Asian Chapter라는 명칭은 없어지게 된 것이다. ASCVS는 이후 2008년 일반 흉부외과 분야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ASCVTS(Asian Society for Cardiovascular and Thoracic Surgery)로 명칭이 변경되게 된다. ASCVS의 설립에 지대한 영향을 준 초창기인물 3사람을 소개한다.

1) Seiji Kimoto (1907-1995)

Kimoto는 일본 흉부외과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다. 1951년에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B-T shunt술을 선보였으며 1952년에는 대동맥 homograft를 이용하여 복부대동맥치환에 성공하였다. 이 개가는 세계적으로 Charles Dubost에 이은 두 번째였다. 1955년에는 저체온법으로 심방중격결손증 수술에 성공하였는데 한국보다는 6년 먼저 이룬 업적이다. 1973년 초대 ISCVS의 아시아분회 회장에 피선된 이후 1986년까지 14동안 회장직을 연임하여 학회를 이끌었으며 1975-1977년까지는 ISCVS의 국제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2) 이영균 교수(1921-1994)

1963년 3월에 한국에서 최초로 심폐기를 이용한 심방중격결손증 봉합에 성공하였으며 서울대학 흉부외과 주임 교수로서 한국 흉부외과를 이끌었다. 1983년도에는 제6차 'Asian Congress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일본 흉부외과학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참석하기도 하는 등 일본 흉부외과와의 유대관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3) Masahiro Saigusa (1921–2001)

1968년부터 1981년까지 동경대학 흉부외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66년에는 엡스타인 기형환자에서 삼첨판 막성형술을 시도하여 성공하기도 하였다. 흉부외과 분야에 업적도 많았지만 특히 국내외 학회 조직을 통해 학회활동을 활발히 도모하였다. 1972년에는 일본 흉부외과학회(JSCVS, Japanese Society for Cardiovascular Surgery)를 창립하였고 ISCVS의 창립 때인 1973년 부터 1981년까지 학회 총무를 맡았고 1986년부터 1991년까지는 회장직을 맡아 ISCVS의 발전에 매우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VIII

ASCVS(Asian Chapter)의 학회 역사

1) Asian Chapter로서의 International Symphosium

일본에서 열렸던 1~3회 대회에서는 Asian Chapter 단독으로 국제학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본 국 내학회와 같이 개최하였다고 한다. 첫 학회는 1984년에 개최되었는데 당시 서울대 이영균 교수와 일본의 K Asano가 좌장을 맡았으며 일본참가자가 39명 한국참가자가 1명이었다(KH Kim). 이후 2회 대회는 Tokyo, 3회는 Kobe, 4회는 Sapporo, 5회는 Okayama, 6회는 Kofu에서 개최되었다. 1991년도 5월 31일 Kofu대회에서 향후 ASCVS를 ISCVS의 분회로서가 아닌 아시아학회 단독으로 개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일본에서 Asano, Furuse, Ueno, Mohri, 한국에서 CS Choi, 타이완에서 ST Lai 등이 회동하여 ISCVS의 Asian Chapter대신 독립적으로 학회 이름을 The Asian Society for Cardiovascular Surgery 로 하고 처음 모임을 1993년도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2) Founding meeting of the ASCVS

일본 Sendai에서 열린 사전 모임(1992.4.16.)에서 한국에서 이영균 교수, 타이완에서 CR Hung, 일본에서 M Saigusa, K Asano, A Furuse, Y Hosoda, H Matsunaga, Y Mishima, Y Sezai, H Mohri, K Ohishi 등이 모여 당시 일본 흉부외과학 회장인 Asano가 새로운 학회의 필요성을 말하고 총무였던 Furuse가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한 후 만장일치로 ASCVS 를 창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총회에서 동경대학의 K Asano 가 초대 ASCVS의 회장을 맡고 이사로 이영균 교수, CR Hung(Taiwan), CN Lee(Singapore), KP Suh(서울대), Y Mishima, Y Sezai, 총무로 A Furuse를 부총무로 Y Hosoda를 회계로 H Matsunaga를 선출하였다.

3) Ken-Ichi Asano (1925-1998)

Asano는 1972년 ISCVS의 Asian Chapter로서 시작된 아시아학회 모임이 독립되어 ASCVS로서 출발을 할 때인 1993년 회장을 맡았다. K Asano는 심장수술분야에서 양대정맥 차단시 되저체온법의 효과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55년 이후 137명의 심장수술을 이러한 방법으로 수술하였다. 1965년도에 Niigata 대학의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1976년도에는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로 돌아와 할동하다가 1981년도에 동경대학 교수가 되었다. 대동맥류수술시 selective cerebral perfusion을 적용하였고 TOF에서 valve retaining patch수술, 건삭보존을 이용한 승모판막치환술을 널리 시행하였다. 1987년에는 ISCVS 의 회장으로 피선되기도 하였으며 1993년부터 1997년까지 ASCVS 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역대 ASCVS 학회와 한국의 참여

1) 제1회~13회

제1회 ASCVS 대회는 1993년 3월 2일 후쿠오카에서 열렸다. 주최는 Kurume 대학의 Kiroku Ohishi 교수가 맡았으며 23차 일본 흉부외과학회 (JSCVS) 하루 전에 열렸다. 이 대회에서는 57명의 새로운 참가자가 늘었는데 특히 이전까지 ISCVS에 24명밖에 되지 않았던 한국참가자가 35명이 더 늘게 되었다. 2회 대 회장으로는 M Kusagawa, 3회는 M Wasio, 4회는 한국의 서경필 교수, 5회는 타이완의 CR Hung 이 맡기로 결정하였다. (사진) 전체 회원은 8개국에서 425명으로 늘어났다. 2개의 special lecture외에 'Surgical Treatment of Valvular Heart Disease'에 대한 symphosium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김형묵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300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66개의 연제와 7개의 비디오발표를 하였다.

제2회 ASCVS 대회는 일본 Mie 대학의 M Kusakawa 가 주최하였으며 일본 나고야에서 1994년 2월 11일 제 24차 일본 흉부외과학회 전날 개최되었다. 초청연자로는 폐동맥고혈압분야의 Tim Higenbottom(Cambridge), TGA분야의 Van Praagh (Boston)가 있었다. Y Hosoda와 싱가폴의 CN Lee 가 좌장을 본 'Surgery for Isch-



Executive Council Meeting at the 1st Annual Meeting

Top (L to R): Akira Furuse, Hitoshi Matsunaga, Yutaka Kotsuka, Sigeaki Aoyagi

Middle (L to R): Kenichi Kosuga, Yoshio Mishima, Yukiyasu

Sezai, Lee Chuen Neng, Isao Yada

Bottom (L toR): Kyung Phill Suh, Yung Kyoon Lee, Ken-ichi Asano, Kiroku Ohishi, Hung Chi Ren, Yasuyuki Hosoda

제1회 ASCVS 의 이사회모임 멤버들

VIII

emic Heart Disease' 심포지엄에서는 대만의 Jeng Wei, CN Lee, N Nishida, T Isomura, K Ogawa, T Tashiro 가 참여하였고 한국에서는 세브란스의 강면식 교수가 발표하였다. 서경필 교수는 이때 한국에서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심장수술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영균 교수는 명예회원으로 초대되었다.

제3회 ASCVS 대회는 일본 Yamagata 대학의 Masahiko Washio 가 주최하였으며 일본 Yokohama에서 1995년 2월 14일 개최되었다. 대만의 Jeng Wei 가 심장이식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세브란스의 조범구교수가 DORV에 대해 초청강연을 하였다. 이때 많은 일본 초대 회원들이 이영균 교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한국의 조범구 교수가 이때 새로운 이사로 선출되었다.

제4회 ASCVS 대회는 최초로 일본이 아닌 서울에서 개최되는 중요한 해였다. 서울대학의 서경필 교수가 주최하여 1996년 5월15—17일에 개최되었으며 대한 흉부외과 12차 춘계학회와 같이 쉐라톤 워커힐에서 열렸다. 초대된 특별강연자로 도쿄의 Yasuyuki Hosoda 가 CABG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특별히 학회 3일째 서울의 주요 병원 방문이 있었는데 이산병원, 삼성의료원, 서울대학병원, 연세의료원을 방문한 참가자들은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1995년 3월에 타계한 S Kimoto 교수에 대한 묵념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제5회 대회는 타이완의 Hung Chi—Ren에 의해 개최되었으며 1997년 1월 10~13일까지 타이페이의 Grand Hyatt 에서 열렸다. Univentricular repair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서울대학의 서정욱 교수가 참여하였고 도쿄의 Hiromi Kurosawa, 오사카의 Toshikatu Yagihara가 참여하였다. 특별 초청강연 분야로 복잡심기형, 판막질환, 혈관수술 분야가 선택되어 호주에서 Tom Karl, 뉴질랜드에서 Brian Barratt—Boyes, 미국에서 Carlos Duran, James Fann, Kit V Arom, 일본에서 Yasunaru Imai, Hisataka Yasui, Hitoshi Koyanagi, Shunichi Hoshino, Nobuyuki Nakajima 등이 강연하였다. 차기학 회장으로 A Furuse이 선출되었고 이사로 한국에서 서경필, 조범구 교수가 싱가폴의 CN Lee, 대만의 CR Hung, 일본에서 H Yasui, N Nakajima가 선출되었으며 총무로 Y Hosoda, 회계로 Y Kotsuka가 임명되었다. 임기를 마친 K Asano, Y Mishima와 Y Sezai는 명예회원으로 지명되었다.

제6회 대회는 Tsubuka 대학의 Toshio Mitsui에 의해 1998년 2월 18-20일 도쿄의 Keio Plaza Hotel에서 주최 되었으며 일본 흉부외과 학회 회장이면서 ASCVS 총무인 Yasuyuki Hosoda가 헌신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 참고로 Y Hosoda와 A Furuse, M Mitsui는 동경대학 동기지간이다. 이들의 끈끈한 우정에 의해 학회활동이 큰 탄력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이때부터 ISCVS의 공식학회지인 Cardiovascular Surgery 에 증례보고는 받지 않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ASCVS의 논문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0년도 차차기학회는 후쿠오카에서 2000년 가을에 개최할 것을 Hisataka Yasui가 제안하여 채택되었는데 봄학회가 가을로 연기된 이유는이 해에 Fukuoka시의 Asian Mouth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1년도 학회는 Shuichiro Sugimura에 의해 나고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7회 대회는 싱가폴의 Lee Chuen-Neng이 주최하였으며 1999년 5월25일 부터 6월 1일까지 Singapore 의 Raffles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역대 학회중 가장 많은 53명의 세계적 저명연자가 초청되었고 377개의 연제와 비디오가 발표되었다. 학회전날 'Stentless Valve Surgery'에 대한 Hands-On 워크샵이 있었으며 학회 후 graduate course로 'Perfusion Technology'가 실시되었다. 이때 차기 대회 개최지로 2002년도는 한국에서 2003년도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원중 Ken-Ichi Asano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으며 학회 회장은 유임되고 새로운 총무로 Shinichi Takamoto가 선출되었다. 또한 Asian Cardiovas-cular and Thoracic Annals(ACTA)의 출판사장인 Frank Tamru는 ACTA를 ASCVS의 공식저널로 할 것을 제안



Executive Council Meeting at the 7st Annual Meeting

Top (L to R): Prof.Shuichiro Sugimura, Prof. Hisataka Yasui, Prof. Hitoshi Mohti,

Prof.Cho Bum Koo, Prof. Sinichi Takamoto, Prot. Yutaka Kotsuka

Bottom (L to R): Prof. Yasuyuki Hosoda. Prof. Kyung Phill Suh, Prof. Akira Furuse,

Dr Lee Chuen Ngng, Prof. Hung Chi Ren

싱가폴에 개최된 제7차 학회 이사회모임

하였으며 CN Lee의 제안으로 수술 자료 database를 위한 ad-hoc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S Takamoto를 위원장으로 해서 CN Lee, Y Hosoda, A Furuse가 위원이 되었다.

제8회 대회는 규슈대학의 Hisataka Yasui에 의해 개최 되었는데 2000년 9월 6~8일 동안 Fukuoka의 Sea Hawk Hotel에서 열렸다. Fukuoka는 제1회 ASCVS가 개최된 도시이기도 하였으며 가을에 개최된 이유는 이달이 후쿠오카의 Asian Month 행사가 있어서 모든 아시아 국가인 들을 초청하여 도시가 개방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시아 각국에서 600여명의 참가자가 있었으며 280개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이 학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몇개 있었는데 하나는 ASCVS가 CTSNet의 회원이 된 것이고 둘째는 2000년 1월 이후 ASCVS의 자매논문지로 ACTA가 된 것이며 셋째는 아시아 흉부외과 수술 database가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Chi Ren Hung이 은퇴하면서 대신 WC Yu가 대신하였고 ASCVS의 재정자립도도 건전해지게 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회원 당 40불씩 ISCVS에 지불하였던 회비가 20불로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 2004년도 개최지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9회 대회는 Fujita Health 대학의 Shuichiro Sugimura가 2001년 3월 28~30일 나고야 Kanko Hotel에서 주최하였다. 나고야는 제2회 ASCVS대회를 주최한 도시이다. 비록 전해 가을에 열린 후쿠오카 대회가 열린지 몇달 안되는 시점이어서 참가자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지만 Dr. Sugimura 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다. 한편 이때 당시 ISCVS의 회원구성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북아메라카 Chapter에서 회원들의 구성은 심장외과의

VIII

사가 거의 없어지고 혈관외과 의사로만 구성되게 되었다. 한편 유럽회원 분포는 심장과 혈관분야에서 골고루 참여하였고 아시아 Chapter에서는 심장분야가 더 많았다. 이해 학회의 전체 회원수는 628명이었고 활동회원 수는 478명에 달했다. 회장으로는 동경대학의 Akira Furuse가 유임되었고 총무로는 Shinichi Takamoto, 부총 무로 Masashi Komeda가 임명되었으며 새로운 이사로 Prinya Sakiyalak과 일본의 Yasuyuki Hosoda가 선출 되었다.

제10회 대회는 연세대학의 조범구 교수가 대회를 개최하였다. 2002년 4월17~19일까지 제주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14명의 새로운 연구자가 Young Investigator Travel Award를 받았다. 'Meet the expert' session 에서는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Surgical Approach to Congestive Heart Failure' 'Robotic Surgery' 등이 있었는데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청중이 많았다. 총 631명의 참가자가 있었고 362개의 연제, 비디오, 포스 터가 발표되었다. 시입회원 69명을 포함해 총 640명의 회원과 활동 중인 회원 477명이 보고되었다. 이때 일본 뿐 아니라 한국과 싱가폴의 환자 database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2005년도 학회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은퇴하는 서경필 교수가 명예회원으로 추대되었고 새로운 이사로 서울대 김용진 교수, 홍 콩의 David Cheung, 베이징의 Qing-Yu Wu가 선출되었다. 이때 국제 ASCVS는 일방적으로 ISVS(International Society for Vascular Surgery)로 개명되어 아시아회원들의 심한 비난을 받았다.

제11회 대회는 말레이시아의 Dato'Dr. Mohd Azhari Yakub이 2003년 2월 12~15일 Kuala Lumpur의 Shangri-La Hotel에서 개최하였다. PreCongress workshop으로 'Latest Technique and Technologies in Minimally Invasive Beating Heart CABG and Pediatric Cardiac Care' 였으며 24명의 세계적인 명사들이 초청되었다. 총 189개의 연제와 비디오, 포스터가 발표되었으며 공통발표(plenary session)주제로는 'Status of Asian Cardiac Centers' 'Impact of Interventional Pediatric and Adult Cardiology on Cardiac Surgery'가 있었다. 이 대회개막 식에서는 본인이 CABG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말레이시아 총리인 Dato'Seri Dr. Mahathir Mohamad가 축사 를 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하였다. 총회원 656명. 활동회원 500명. 신입회원 110명을 기록하였는데 이해 신입회원이 특별히 많은 것은 일본 흉부외과학회의 강제 입회 규정때문 이었다. ISCVS가 자매잡지인 Cardiovascular Surgery를 2003년까지만 출판하기로 함에 따라 아시아학회(ASCVS)에서는 새로이 Asian Cardiovascular and Thoracic Annals (ACTA)를 공식학회 논문지로 결정하였다. 또한 ACTA의 출판위원회가 구성되 었는데 A Furuse가 위원장을 맡고 한국에서 조범구, 싱가폴의 CN Lee, 일본의 Y Hosoda와 Shinichi Takamoto가 위원이 되었다. 2006년 학회를 오사카에서 2007년도 학회는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학 회 회장인 Akira Furuse의 임기는 2년 더 연임되었다. 국제 ISCVS에서는 학회를 심장분야와 혈관분야로 양분 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아시아학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고 유럽학회와도 연합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ISCVS에 Asian Chapter로서의 역할을 2003년 12월 31일자로 완전히 중단한다고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제12회 대회는 터키의 Omer Isik에 의해 2004년 4월 18~22일까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 되었다. 1993 년 극동의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제 1회 ASCVS가 이제 가장 유럽에 가까운 서아시아의 터키까지 진출하게 된 해이기도 하며 ISCVS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아시아학회로서 출발하는 첫해이기도 하였다. 특히 전해 11월에 있었던 터키의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학회개최여부를 놓고 심각한 논의를 하였으나 터키 주최측의 간절한 요구 와 개최를 하자는 방향으로 회원들의 의견이 무게를 더하면서 개최가 결정되었다. 처음 일본에서는 외무상이 이스탄불 여행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하였고 일본 발표자들이 대거불참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ASCVS 학 회장이 터키 대 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터키 대 회장이 다시 일본정부로 안전을 보장한다는 메일을 보내 서 여행금지 나라에서 제외되게 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38개국에서 503명이 참석하였고 334개의 연제가 채택되었다.

제13회 대회는 태국의 Prinya Sakiyalak에 의해 2005년 2월 5~8일까지 Chiang Mai에서 개최되었다. 대회 주제는 'New Horizon in Cardiovascular Surgery' 였으며 다른 대회와 달리 80%의 초청연자가 아시아 저명인 이었다. 초청된 해외연자로는 Sir Magdi Yacoub, Alain Carpentier 등 이었다. 2월 5일 개막식에서는 태국의 공주인 Maha Chakri Sirindhorn 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학회 회장은 쓰나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태국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였다. 6개의 plenary session과 11개의 심포지엄이 있었으며 마지막날에는 'The Future of Cardiac Surgery'가 토의 되었다. Active member의 숫자는 633명으로 늘어났으며 29명의 신입회원이 있었다. 3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12명에 대한 회원의 자격정지가 있었다.

출판위원회에서는 ASCVS와 Asia Publishing EXchange(APEX)와 계약사항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ASCVS는 APEX에 편당 \$60을 지불하고 ACTA에 광고를 확보해주며 대신 ASCVS에서는 편집자와 자문위원선발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였다.

수술환자 통계수집에 대한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에서는 일본에서만 10,000례를 수집했다고 보고 하였다.

학회 회장(President)로 Akira Furuse가 재선되었고 이사로는 CN Lee, Y Hosoda, DLC Cheung, QY Wu, P Sakiyalak, TJ Yu(Taiwan), YK Kim, MA Yakub, 한국의 조범구 교수가 재선되었으며 새로운 이사로 M Komeda와 T Kazui가 선임되었다. S Takamoto가 총무로 재선되었으며 Y Ueda와 N Motomura가 회계와 부총무로 각각 선임되었다. N Nakajima와 H Yasui는 명예회원으로 추대되었다. CN Lee 는 2008년 학회를 싱가폴에서 TJ Yu는 2009년 학회를 타이페이에서 할 것을 건의하여 그대로 결정되었다. 이 해에 2009년도 ASCVS 학회를 이왕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 학회인 ACTSA (Association for Cardiovascular and Thoracic Surgeons in Asia)와 함께 개최하는데 대한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결정은 되지 않았다.

VIII

2) 제 13회 대회(2005년) 이후 ASCVS 학회의 변화

ASCVS는 2008년도에 일반 흉부외과 분야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명칭을 ASCVTS (Asian Society for Cardiovascular and Thoracic Surgery)로 변경하였으며 학술지를 ACTA (Asian Cardiovascular and Thoracic Annals)로 하고 있다. 아시아 30개국의 1000명 이상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2015년 21회 ASCVTS 홍콩대회 때 일본의 Shinichi Takamoto가 President로 선임되었고 총무로는 일본의 Yuichi Ueda 가 회계로 Jun Nakajima 가 선출되었다. 정회원의 연회비는 \$200으로 결정되었다.

2017년도에는 한국에서 1996년 4차 대회와 2002년 10차 대회에 이어 세 번째로 ASCVTS를 개최(25차)하였는데 서울 Coex에서 2017년 3월 23-26일까지 서울대 안혁 교수가 대 회장을 맡았다. ASCVTS에는 흉부외과 분야만 아니라 심장혈관 분야의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2009년도에 대만에서 개최된 17차 학회에서는 전남대 정명호 교수가 '약물 용출스텐트 시술환자에서 실로스타졸의 임상경험'이라는 특강을 하기도 했다.

ASCVTS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우선 ASCVTS (Asian Society for Cardiovascular and Thoracic Surgery) 와 ACTSA(Association for Cardiovascular and Thoracic Surgeons in Asia) 의 통합문제가 있다. 즉 아시아에 두 개의 학회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 ASCVTS 학회는 매년 개최되고 있고 ACTSA 는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학회 논문지인 ACTA(Asian Cardiovascular and Thoracic Annals)의 질적 향상문제이다. 현재 ACTA는 CTSNet의 4개 on—line 저널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으며 향후 발전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회원들의 질 높은 논문기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번째는 아시아 학회 회원들의 수술에 대한 database의 구축이다. 향후 아시아각국의 수술기록의 향상과 각 회원간의 정보교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국 신입회원의 지속적 교육이다. 아시아 회원들의 심혈관수술의 질적 향상을 위해 ASCVS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 P			11th~20	Oth				
Futu	re Annual Me	etings				Date	Place		Chairman	
	Date	Place	Chairman		11th	2003.2.12-15	Kuala Lumpur, Mala	ysia	Mohd Azhari Ya	kub
27th	2019.2.21-24	Chennai, India	Rajan Santosham		12th	2004.4.18-22	Istanbul, Turkey		Omar Isik	
28th	2020.2.7-10	Chiang Mai, Thailand	Taweesak Chotivatana	apong	13th	2005.2.5-8	Chiang Mai, Thailand		Prinya Sakiyalak	k
29th	2021.Spring	Japan	Yutaka Okita		14th	2006.6.1-3	Osaka, Japan		Soichiro Kitamui	ra
30th	2022.Spring				15th	2007.5.1720	Beijing, China		Qing Yu Wu	
Past	Annual Meet	ings			16th	2008.3.1316	Singapore, Singapor	re	Lee Chuen Nen	g
st~ 10	th				17th	2009.3.58	Taipei, Taiwan		Tarng Jenn Yu	
	Date	Place	Chairman		18th	2010.2.273.1	New Delhi, India		A. Sampath Kun	nar
1st	1993.3.2	Fukuoka, Japan	Kiroku Ohishi		19th	2011.5.2629	Phuket, Thailand	nuket, Thailand Pradistchai Ch		aiseri
2nd	1994.2.11	Nagoya, Japan	Minoru Kusagawa		20th	2012.3.811	Nusa-Dua Bali, Indonesia Tarmizi Hakim			
3rd	1995.2.14	Yokohama, Japan	Masahiko Washio		21th ~ 30th					
4th	1996.5.15-17	Seoul, Korea	Kyung Phill Suh		2101 00	Date	Place	Chai	rman	
5th	1997.1.10-13	Taipei, Taiwan	Hung Chi Ren		21st	2013.4.47	Kobe, Japan	Shini	chi Takamoto	
6th	1998.2.18-20	Tokyo, Japan	Toshio Mitsui		22nd	2014.4.36	Istanbul, Turkey	Serta	ac Mehmet Cicek	
7th	1999.5.25-6.1	Singapore, Singapore	Lee Chuen Neng		23rd	2015.5.1114	Hong Kong, China	Song	Wan	
8th	2000.9.6-8	Fukuoka, Japan	Hisataka Yasui		24th	2016.4.610	Taipei, Taiwan	Shoe	ei-Shen Wang	
9th	2001.3.28-30	Nagoya, Japan	Shuichiro Sugimura		25th	2017.3.2326	Seoul, Korea	Hyuk	Ahn	
10th	2002.4.17-19	Jeju Island, Korea	Cho Bum Koo	\//in	26th	2018.5.2427	Moscow, Russia	I eo F	Bockeria	

ASCVTS 의 역대 개최일시, 개최장소 및 주최자

ASIAN CARDIOVASCULAR & THORACIC ANNALS

EDITOR-IN-CHIEF

Kampol Prachuabmoh

ASSOCIATE EDITORS

Bum-Koo Cho Korea

Huat-Seong Saw Singapore

Naresh Trehan India

EDITORIAL BOARD

Yahya Awang Malaysia

David L.C. Cheung Hong Kong

> Shu-Hsun Chu Taiwan

Tarmizi Hakim Indonesia

Yasunaru Kawashima Japan

Hitoshi Koyanagi Japan

Chuen-Neng Lee Singapore

Joon-Ryang Rho Korea

Prinya Sakiyalak Thailand

EDITORIAL CONSULTANTS

Kit V. Arom USA

Douglas K. Baird Australia

Brian Barratt-Boyes New Zealand

Gerald D. Buckberg USA

Boon-Lock Chia Singapore

Carlos G. Duran Saudi Arabia

Siew Yen Ho UK

Pill Whoon Hong USA

Yasuharu Imai

Japan Sjukri Karim

Indonesia

Somehart Lochaya Thailand

Roger B.B. Mee Australia

W. Gerald Rainer USA

George E. Reed USA

Jaroslav Stark UK

P. Venugopal India

Ernst Wolner

Austria

1993년 ASCVS와 함께 창간된 ACTA의 초대 편집인으로 한국에서는 조범구 교수가 참여하였다. 조범구 교수는 1997년 부터는 ACTA의 editor—in—chief로 활동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제 13차 아시아 흉부외과 학회(ASCVS)에 참석했던 Dr. Alain Carpentier와 박국양 교수(2005년 Thailand)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14차 ASCVS학회에서 (좌측으로부터 박국양, 조범구 교수내외, 이동협, 신제균 교수)



오사카 아시아학회에 참석했을 때 박국양 교수부부가 Takamoto Shinichi 부부와 촬영한 사진(Dr. Takamoto는 2015년에 아시아홍부외과 학회 (ASCVTS) 회장으로 파선되어 2018년 현재까지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26일 한국 흉부외과학회에 아시아 흉부외과학회 회장 자격으로 초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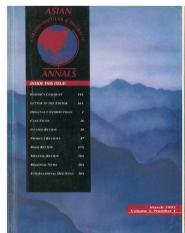


2018년 현재 ASCVTS 의 홈페이지 화면. 2019년 27차 아시아 흉부외과 학회개최지는 인디아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Chennai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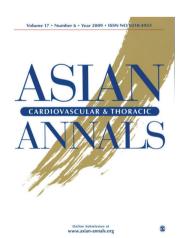
VIII

ACTA에서 한국인의 참여

1993년 ASCVTS 창립과 더불어 창간된 ACTA에서 조범구 교수는 한국인으로서는 당시 유일하게 associate editor로 참여하였으며 이후 1997년부터는 editor—in—chief로 활동하였다. 김주현 교수는 1997년부터 editorial board로서 참여하였고 2009년도 부터는 thoracic part에 section editor로서 참여하였다. International advisory board로서는 1997년 한국에서는 조승윤, 홍영우, 강면식, 김용진, 박영배, 노준량 교수 등이 참여하였고 2009년도에는 장병철, 홍영우, 김용진, 윤태진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현재 ACTA 는 격월간으로 출판되고 있다.







ASCVTS의 자매 학술지인 ACTA(Asian Cardiovascular and Thoracic Annals)는 1883년 창립된 이후(맨 좌측) 두 번 표지가 변경되었다. 가운데는 1997년 ACTA 표지이고 맨 우측은 2009년 표지이다.



PICTORIAL HISTORY AND PIONEERS OF KOREAN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1968

IX

심장수술 후원재단과 무료순회진료

- 176 새세대심장재단 (현 한국심장재단)의 설립
- 181 심장병 사관학교 세종병원
- 184 무료순회진료
- 186 밀알심장재단
- 187 여의도 순복음교회
- 188 구세군의 심장병후원사업
- 189 수와진(가수)
- 190 속초 김상기 회장의 늘사랑회
- 191 뽀빠이 이상용과 어린이보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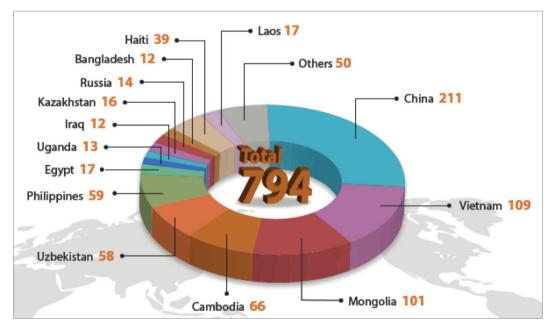
새세대심장재단 (현 한국심장재단)의 설립

1983년 11월 전두환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귀국길에 두 명의 한국인 어린이 선천성 심장병 환자를 데리고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장면이 전국에 보도된 이후 국내에서는 선천성 심장병 환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한국의 의료수준이 낙후되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였으나 이후 그런 이유보다는 수술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심장병 환아 돕기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1984년 이순자여사에 의해 설립된 "새세대 심장 재단"이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설립초기에 대기업으로부터 강제로 모금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단체를 통해 수많은 어려운 처지의 어린이들이 심장병수술을 받게 됨으로서 흉부외과의 큰 발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심장재단은 초기에는 선천심장병 환자에 대한 수술비만 후원을 해오다 점차 그 대상을 넓혀서 성인심장은 물론 심장병 외에도 안면기형, 콩팥이식, 골수이식 및 기타질환에 대한 수술비까지 지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1984년 2월27일 설립이후 2017년 12월까지 심장재단의 수술비 지원을 받은 환자는 총 35,121명으로 이중 선천성 심장병 21,439명, 후천성 심장병 8,229명, 콩팥이식 1,503명, 얼굴기형 1,333명, 골수이식 581명, 기타질환이 2,036명이다. (한국심장재단 자료)

심장재단자료를 보면 선천성 심장병 수술의 추세 변화를 알수 있는데 연세대 박영환 교수팀이 발표한 2000년 이후 '선천성 심장병 수술환자 7305명의 추적조사연구'를 보면 심장수술환자의 분포는 신생아가 크게 증가하였고 수술 100례이상을 시행한 병원이 12개였으며 이들 병원에서 시행된 수술건수가 5,480례라고 하였다.



한국 심장재단에서 2017년까지 도움을 준 해외 심장병어린이의 국가별 분포 (한국 심장재단 제공)

IX

한국 심장 재단은 초창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국인 심장병 환자들만을 위한 활동으로 그 발걸음을 떼었으나, 1990년 이후 외국거주 교포와 외국인 환자들을 돕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환자들까지 그 지원대상을 확장하였고 2017년까지 전 세계 29 개국의 815명의 환자들에게 수술비 지원을 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는 개발도상국의 의료진 연수지원을 시작하여 현지 병원의 자생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환자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일로부터 그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대한민국의 임상적, 학문적인 분야에서 해외의 의료진들과 공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접 그들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국내의 여러 병원에서 직접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않고 있다. 특히 심장병 분야에서, 개개인의 역량 보다는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팀으로서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2년부터는 심장 수술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외과의, 내과의, 체외순환사, 중환자실 전담의, 간호사, 수술 간호사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들 해외개발도상국 의료진의 국내연수의 빠른 적응을 위하여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련 팀이국내 병원을 방문하여 연수를 마친 후에는 해당 병원에서 일정기간 후에 다시 현지를 방문하여 그들이 현지에서 그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범구 이사장 증언)

Local Education & Training Program

The medical specialists who provided training in Korea visit the hospitals to offer education and training on pediatric heart surgery to the medical staffs. This step-by-ste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equips the medical staff with the skills and techniques to perform pediatric heart surgery.



한국심장재단에서는 각 국가의 심장병어린이 수술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 심장수술집도의 의 심장병수술기법, 국내초청 연수프로그램도 진행 하고 있다.

Country	Hospital of Visit	Visit Date	Hospital of Training
Mongolia	Shastin Central Hospital	(1st) 8/12/2015 ~ 8/15/2015	Severance Hospital
	Shasiin Central Hospital	(2nd) 2/14/2016 ~ 2/17/2016	Severance Hospital
Kazakhstan	NSMRC Center	(1st) 3/8/2016 ~ 3/13/2016	- Asan Medical Center
Kazakristan		(2nd) 8/30/2016 ~ 9/4/2016	Asan Medical Center
Vietnam	Choray hospital	(1st) 3/9/2016 ~ 3/12/2016	Poiona Conoral Licenital
vietnam		(2nd) 9/28/2016 ~ 10/1/2016	Sejong General Hospital
Myanmar	Yankin Children Hospital	(1st) 11/27/2016 ~ 12/2/2016	Severance Hospital
4 Countries	4 Hospitals		3 Hospitals

2015년-2016년도에 한국 심장재단에서 실시된 해외 4개국 소아 심장병 수술팀 국내초청 연수프로그램



조범구 교수는 세브란스에서 흉부외과 교수로 정년퇴임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역임한 후 한국 심장재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한국을 방문한 레이건 대통령 부부가 귀국하면서 한국의 두 심장병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하여 비행기트랩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 (1983년 11월) 대통령부부사이에 있는 왼쪽의 남자아이가 이길우 씨이다. (미국명 Brett Halvorson)



레이건 대통령과 낸시여사가 한국에서 데려 간 두 심장병 아이와 함께 백악관에 도착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1983년)



흥부외과학회에서는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1984년 심장재단을 설립한 이순자 여사 (전 새세 대심장재단 이사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는 장병철 교수와 데일리메디의 정숙경 기자가 함께 하였다. 2018년 7월)



레이건 대통령부부와 같이 미국으로 건너가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되어 미국가정에 입양되었던 이 길우(미국명: Brett Halverson)씨가 청년이 된 이후 낸시 레이건 여사를 다시 만나 촬영한 사진. 이길 우씨는 현재 한국에 정착하여 "Gift of Life, International"을 통해 심장병환자 수술사업을 펼 치고 있다.



낸시여사와 이길우씨(미국명: Brett Halvorson), 이 길우씨가 레이건 대통령이 타계한 후 레이건대통 령 도서관에서 낸시여사를 만나 심장병 수술을 받 기전 자신을 안고 있는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길우씨는 한국에 귀국하여 'Gift of Life International' 에서 심장병아이 돕기 봉사를 하고 있다.



이길우씨는 현재 한국에 정착하여 결혼 후에 행복 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다. 이길우씨의 결혼식 (2018년 5월 5일)

IX

심장병 사관학교 - 세종병원

세종병원은 '심장병 사관학교'로도 불린다. 국내 최초로 심장이식을 실시한 송명근 전 건국대 교수를 비롯한 김 삼현(작고), 박표원(삼성서울), 이영탁(삼성서울), 서동만(이화의료원), 박국양(길병원), 김웅한(서울대병원), 배은 정(서울대병원 소아과), 김성호 교수 등 대학병원 흉부외과, 심장내과, 심장소아과에 근무하는 100여명이 세종 병원을 거쳐갔기 때문이다.

박영관 회장은 1939년 경북 청도 출생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1964년)하였으며 독일 뒤셀도르프대에서 심장 외과학을 연수(1975~1977년)하고 인제대 의대 백병원 흉부외과 과장을 역임한 뒤 한양대 의대 부교수를 하던 중 1982년 산부인과 의사였던 선친 박봉현 박사가 생전에 사둔 논현동 땅을 처분해 부천에 세종병원을 개원했다. 지금까지 세종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은 심장병 어린이는 국내외를 합쳐 2만5000여명에 이른다. 심장수술건수는 연간 1000여건. 심혈관 촬영술 4400여건을 시행한다.

박영관 회장이 심장병 어린이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 1983년 11월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반시 여사가 우리나라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둘을 데리고 미 대통령 전용기에 올랐다는 뉴스를 접한 것이다. '미국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국가로 봐선 고마운 일이지만 심장 전문의 입장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도 살 만해졌는데 아직도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야 하는가 라는 자괴감이 들었어요'(2018.6.1. 세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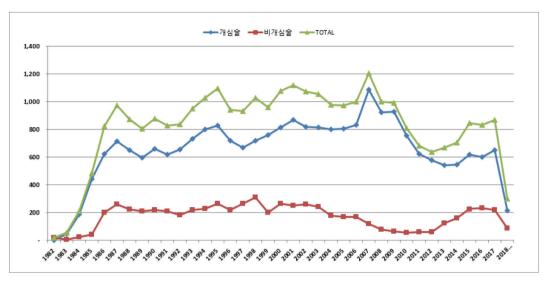
세종병원에서 홍승록 교수와 함께 (1994년). 앞줄 왼쪽부터 이영탁(삼성서울병원), 박영관 이사장, 홍승록(작고), 박국양 교수(가천대 길병원). 뒷줄 가운데 권오춘 (대구가톨릭병원장), 나찬영(계명대 동산병원 흉부외과), 박철현(가천대 길병원), 한재진(이대 목동병원) 교수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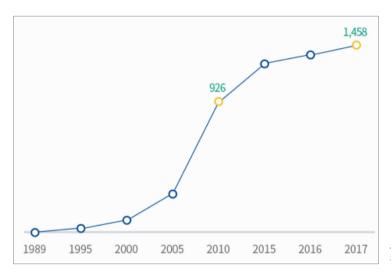
세종병원 박영관 이사장과의 일본 여행. (좌로부터 박국양 교수 부부, 홍승록 교수 부부, 박영관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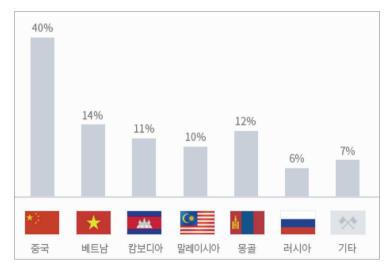
세종병원에서 심근 성형술팀이 당시 심근성형술의 대가로 알려져있던 러시아출신의 Dr. Chekanov 와 연수를 마치고 촬영한 사진. 박국양 교수는 이후 인천 길 병원에서 한국 최초로 간염양성인 심부전 남자환자에게서 한국 최초로 심근성형술을 성공하게 된다.



흥부외과 전문의 훈련소라고 불리우는 심장세종병원은 2017년까지 11,739명의 심장수술을 기록하여 민간병원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심장병수술을 기록하고 있다(세종병원 제공)



세종병원의 해외심장병환자 수술지원실적(누 적자료)



세종병원의 해외심장병환자 수술 지원환자의 국가별 분포(세종병원제공)

무료순회진료

심장병수술만큼 수술 전과 수술 후가 극적으로 변하는 수술은 없다. 시퍼런 입술, 잘 걷지도 못하고 가다 쉬고를 반복하던 자녀들이 수술 후에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것이다. 또 환자의 수술 전과 수술 후의 경과를 지켜보는 가족전체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심장수술은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수술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가족의 박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시절인 1977년도에 이르러서야 의료보험이 시작되었고 전국민의료보험이 된 것은 노태우 대통령시절인 1989년도였다. 1980년대에는 의료보험도 없고 본인부담금조차 힘들어서 심장수술을 시키고 싶어도 여유가 없는 가난한 부모들은 발만 동동구르던 시절이었다. 또한 이 당시에는 수술 받지 못한 선천성심장병 환자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었으며 각 대학병원에서의 심장병 수술에 대한 관심과 성적도 크게 증가하던 시기였다.

이때 등장한 것이 무료 순회 진료와 수술 후원재단이었다. 각 병원의 의료진들은 전국 각 시·군을 직접 순회 하면서 선천성 심장질환 유소견자를 찾아내었고 후원재단에서는 이러한 환자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 에게 심장수술을 받도록 경제적 지원을 주었다. 이러한 지원단체와 심장수술을 하는 병원과의 관계는 상호의존 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라크에서 온 심장병환자들을 방문하기 위해 길 병원을 방문한 마흐디 (Addil Abdul Mahdi) 이라크 부통령 (2013년 12월 19일). 이러한 해외 심장병 수술사업은 수술 후 극적인 증세의 변화가 주는 상 징성 때문에 국위선양에 크게 일조했던 것도 사실 이다. 가운데 이라크 부통령이 있고 뒷줄에 이라크 대사, 최창휴 교수가 보인다. 심장병 유소견자를 찾는 무료순회 진료를 하는 병원은 세종병원이 선두에 섰으며 이후 백병원과 지방의 몇몇 대학병원이 뒤를 이었다. 심장수술을 지원해주는 단체로는 1984년에 설립된 새세대 심장재단(현 한국심장재단)을 필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밀알심장재단, 수와진(가수), 속초 김상기 회장의 늘사랑회, 뽀빠이 이상룡의 어린이보호재단,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로터리 클럽, 미카엘 수녀, 가천대 길병원 재단의 새생명찾아주기운동 본부 등 많은 법인 및 개인들이 설립되었다.

세종병원을 비롯한 각 병원에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료심장병 환자진료 사업을 실시했는데 진료 후 지역에서 유소견자가 나오면 병원에서 초음파를 하고 수술대상 여부를 가리고 수술을 시키곤 했다. 무료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원에서는 지원단체의 수술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무료가 아닌 병원의 상업적 목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전국의 가난한 가정의 심장병환자들을 치료해주는 결과를 가져온것도 사실이다. 세종병원과 백병원에서 가장 열심히 전국 심장병 무료 순회진료를 다녔던 길병원 박국양교수에 의하면 당시 '스텔라 승용차에 심전도를 싣고 전국을 누비고 다녔는데 10명 환자를 보면 심잡음이 들리는 사람이 5명-6명, 이중에서 수술을 해야 될 아이가 2-3명은 될 정도로 환자가 많았다. 하루에 100명을 보면 많을 때는 20명도 넘는 환자가 심장수술을 해야 할 경우가 있었다. 출장비가 많지 않아 여관에서 자야 했고 일주일이 넘게 집을 떠나 있어서 양말을 빨아 말려서 다음날 신고 다녀야 했다. 1-2주 동안 집을 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순회진료를 가겠다는 의사가 없어서 거의 혼자 다니기 일쑤였다. 그래도 심장병아이들을 고쳐줄 수있다는 보람에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당시에는 청진기와 심전도가 유일한 진단기구로 진찰 후에 무슨심장병인지 알아맞히는 내기도 하였던 것이 기억난다.' 라고 회상하였다.

이러한 심장병무료 수술사업은 국내에 환자가 줄어들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주로 개발도상국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등에서 현지 진료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환자를 데려다가 후원단체와 손잡고 환자와 보호자를 초청하여 수술해 주게 되었다. 병원자체의 봉사활동의 일환, 자매 도시간의 협약, 현지 사업가나선교사들의 요청, 후원기관의 요청 들을 통해 이러한 사업이 전개되는데 결과적으로 현지인들의 평판이 높아서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밀알심장재단

밀알심장재단은 1987년 이정재 회장에 의해 설립되어 지금까지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인도,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코소보,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이집트, 이라크, 아프리카 등 전 세계 22개국의 형편이 어려운 심장병 환자 3,400여명에게 새 생명을 심어주었다. 2015년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된 국제구호개발 NGO로 '전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라'는 비전으로 심장병 환자 수술비 및 장학금 지원, 집짓기, 무료진료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정재 회장은 단순히 현지 심장병 환자를 국내로 데리고 와서 수술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의 심장병 수술이 가능한 현지병원과의 MOU를 맺은 후 현지병원에서 심장병수술을 받게 하여 현지병원의 자생력을 키우고 심장병 환아들도 돕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수술을 받은 아이들 중 일부는 한국 대학으로 입학, 대학원 진학까지도 지원하고 있어서 국위선양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정재 회장 증언, www.lovemilal.com)



밀알심장재단은 매년 여러나라의 심장병환자를 초청하여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이 퇴원할 때 밀알심장재 단관계자 들과 축하연을 하는 모습



밀알 심장재단은 "전세계의 심장을 뛰게하라"는 모토를 가지고 1987년 이정 재 회장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18년 현재 31년동안 22개국 심장병환자 3,400여명에게 새 생명을 전하였다. 이정재 회장은 심장병 수술 후원뿐만 아니고 수술을 받은 후 한국대학으로의 입학, 대학원 진학 등을 지원하고 있어서 국위선양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흉부외과는 심장병 수술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정재 회장 같은 수많은 후원단체와 개인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있다.



서울 코엑스와 부산 벡스코에서 있었던 밀알심장재단 세계수술 대회모습 (2017년)

IX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1984년 가난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던 선천성 심장 판막증 어린이에게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여 새 생명을 살린 것을 계기로 심장병 어린이 시술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전 신도가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폐지와 우유 팩, 헌 옷 등을 모아 판 수익금으로 시술 비용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2000년대부터는 해외로 확대하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이라크, 말레이시아 등 제3세계 국가에까지 심장병 어린이 시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6천 명이 넘는 심장병 어린이를 치료해 주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북한의 심장병 환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치료함으로써 남북한 민간 교류를 활발히 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 정신으로 남북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4일 평양에 〈평양 조용기심장전문병원〉을 착공하였다. 그러나 이 병원건립은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7층 건물 골조 공사를 끝내고 중단된 상태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의 국내외 심장병환자 수술지원 사업도 흉부외과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에 틀림없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전경.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58년 3월 15 일 신학교를 졸업한 조용기 전도사와 최자실 전도사가 서대문 에서 시작하였으며 1973년도에 여의도에 위 사진과 같은 새 건물을 짓고 이전하였다.



2008년 4월에 있었던 순복음교 회 심장병 수술지원 4,000례 돌 파기념 예배 후 사진으로 앞줄 가 운데가 조용기 목사이다.

구세군의 심장병후원사업

구세군은 1878년 영국에서 윌리엄 부스 감리교 목사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한국에서는 1908년 Robert Hoggard와 그의 부인이 한국에 도착하여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 강점기시대여서 구세군이라는 이름은 강대국이 파견한 군대가 아닌가 하는 오해도 있었다고 한다.

구세군의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사업은 1999년 국립의료원 김병열 박사(2018년 현재 안산 단원병원 원장)의 집도로 최초로 어린이 심장병 수술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현재까지 19년째 지속되고 있다. 2014년 말까지 총 755명의 어린이들을 지원하였다.



구세군의 상징이 된 자선냄비(1976년 12월 17일 의 명동거리).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등장하 는 이 자선냄비 모금으로 구세군은 불우이웃 이웃 돕기, 심장병환자 돕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구세군의 자선냄비는 시대가 지나도 거의 변하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IX

수와진(가수)

수와진은 가수 안상수, 안상진의 쌍둥이 형제가 만든 그룹 이름이다. 형 안상수와 동생 안상진의 끝자리를 엮은 팀명이다. 이들은 '1986년 KBS 신인가요제'에서 '새벽아침' 으로 금상을 받게 되고 MBC 10대 가수상, MBC 아름다운 노래 대상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파초' 등으로 그 음악성을 인정받았고 이후 '심장병 어린이 돕기'로 대표되는 듀엣그룹으로 꾸준하고도 신실한 음악활동을 보여주었다.

1986년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길거리 모금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장소와 날씨를 불문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길거리, 방송출연 등을 통해 수많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가수 안상수는 말한다. '가장 소중한 건 자신과 내 주변사람들이다. 모든 분들이 내겐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수많은 심장병 아이들을 돕는 변함없는 선의의 활동과 노래 속에는 아픔도 있었다. 동생 안상진이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폐종양에 걸리는 암흑의 시간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8년 현재도 이들 형제 가수들의 심장병환자를 향한 사랑의 노래는 그들이 2집 앨범에서 발표한 '파초'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저 들판에 풀잎처럼 우리 쓰러지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불꽃처럼 마이크를 통해 쉬지 않고 들려오고 있다.



수와진은 아직도 쉬지 않고 심장병돕기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수와진의 최근 길거리 자선 공연모습



가수 수와진의 제1집 앨범표지. 1987년 데뷔곡 〈새벽아침〉으로 KBS 가요 대상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파초〉〈이별이란〉 등의 히트곡을 선보인바 있 다. 30년 이상 심장병돕기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다.



수와 진은 동생이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혼자 자선 공연을 지속하여 심장병 돕기 사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속초 김상기 회장의 늘사랑회

한국 늘사랑회는 '우리들의 가슴속엔 늘 사랑이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980년도 척박한 땅 속초에서 출범하였다. 설립자 김상기 회장은 안경사이면서 어렵고 힘든 청소년 시절을 보낸 경험을 기억하고 두 번 다시 자신과 같이 가난한 청소년들이 어렵게 학업을 지속하는 것을 지켜보지만 않고 돕겠다고 결심하여 늘사랑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소년소녀가장, 소외된 청소년들을 돕기 시작하다가 1985년도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청소년가족들의 간절한 부탁으로 심장병돕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심장병 환자들을 도와주게 된다. 국내에서만 300여명 이상의 환자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해외환자 100여명의 수술을 도왔다.



김상기 회장이 도움을 준 중국연변의 심장병 환아 김천일은 수술당시 5세(좌측)였으나 20년이 지난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다시 한국을 찾았다 (우측뒷줄 가운데).



속초 늘시랑회 김상기 회장이 자신이 후원했던 심장병어린이와 함께 세종병원 중환자실에서 박국양 교수와 함께 촬영한 사진

뽀빠이 이상용과 어린이보호회

뽀빠이로 알려진 이상용씨 하면 누구나 '우정의 무대'를 기억할 것이다. '우정의 무대'는 90년대를 풍미했던 주말 예능프로그램이다. 당시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출연을 꿈꿨던 무대이기도 하다. 이상용씨는 인기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어린이 보호회"라는 이름으로 심장병 돕기 사업을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심장병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후에 억울하게 공금횡령(후에 무죄판결을 받음)이라는 누명을 쓰기도 했지만 그가 심장병 돕기 운동의 초창기 리더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뽀빠이'로 알려진 이상용 씨



PICTORIAL HISTORY AND PIONEERS OF KOREAN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1968

X

봉사의 50년 세월

- 194 해외 국위선양의 밑거름이 된 흉부외과
- 195 가천대 길병원
- 197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 198 경북대학교 병원
- 200 서울대 어린이병원
- 202 서울 아산병원
- 203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 204 세종병원 (부천)
- 205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 206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 207 전남대학교병원
- 208 충남대학교병원

해외 국위선양의 밑거름이 된 흉부외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이하 흉부외과)는 1968년 학회가 창립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그동안 국내외 심장병환자 무료 수술사업을 통해 어떤 한류문화사업 못지않게 국위선양을 해왔다. 1983년도 레이건 대통령 부부가두 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수술을 해주어야 만 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동남아시아, 몽고, 중국, 중앙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등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심장병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수술을 해주고 있는 나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심장병 수술을 못 받고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에서 심장병 수술을 해주는 국가로 발전한 것이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화에 발맞추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고 사업가가 많이 진출해있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몽고 등 개발도상국에 의료진을 파견하여 수술이 가능한 어린이들을 해외 무료진료 등을 통해 한국으로 데려와 수술을 해주고 있으며 현지에 있는 교민, 사업가, 외교공관, 선교사, 자매도시에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더군다나 현지 각국의 심장병 수술 하드 웨어 및 소프트 웨어까지 지원하여 현지 병원의 심장병 치료 및 전반적 의료 수준을 향상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 의료인들의 국내 초청, 장 단기 연수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지원사업까지도 묵묵히 충실하게 해오고 있다. 또한 흉부외 과학회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어떤 임상과 보다도 가장 먼저 한국심장재단과 MOU를 맺어 북한의 심장 병어린이 수술을 위한 학회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다.

수술 전과 수술 후가 그야말로 극적으로 달라지는 심장 수술.. 걷지도 못하던 아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기쁨.. 파랗던 딸의 입술이 수술 후에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감동.. 이런 것들은 심장 수술만이 갖는 상징적 힘일 것이다. 흉부외과 회원들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한 봉사이자 권리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해외 심장병환자 수술에 임하고 있으며 어쩌면 수많은 외교관들보다도 흉부외과 전문의 한 사람이 심장수술을 해줄 때 미치는 국위선양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흉부외과 의사가 제 3세계 국가나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심장병수술 지원일 수도 있다. 이러한 심장병 수술사업은 심장병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현지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말로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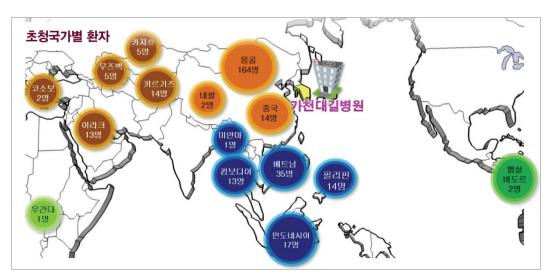
한국 심장 재단의 지원 외에도 여러 병원에서 수술 팀을 구성하여 해외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데, 학회에 자료를 제공한 병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가천대 길병원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박국양 교수가 세종병원에서 길병원으로 옮긴 후에 소아심장과의 정미진 교수와 같이 무료순회진료를 적극적으로 시작하였으며 해외환자 심장수술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다. 최근에는 선천성 심장전문의인 최창휴 교수가 동남아시아와 몽고, 중앙아시아에 심장병환자 초청수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7년 길병원 개원 50주년 사업으로 박국양 교수, 최창휴 교수, 소아심장의 정미진 교수, 정진희 심폐기사(현 서울대병원 근무), 김지영 마취과 교수(현 세브란스 병원근무)가 팀을 이루어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칼멧병원을 방문하여 현지 수술팀과 함께 심장수술을 하기도 하였다. 심장수술팀이 현지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현지의사의 참여로 같이 수술을 하였던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고 박국양 교수는 기억한다.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2018년 현재 450여명에 이르는 해외 심장병환자 수술을 진행하였다.



해외심장병 무료봉사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도 봉사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사진은 2015년 8월 가천의대에서 중국 운남성 청두로 진료 봉사를 갔을 때 인천 공항에서 학생들과 촬영한 사진. 뒷줄에 최창휴. 박국양 교수가 보인다.



매년 해외심장병진료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천의대 길병원의 해외 심장병 환자 초청 무료 수술환자수는 2016년 말까지 총 400명에 달한다.



가천대 길병원에서 키르키즈스탄 비슈켁에서 심장병무료진료을 하고 나서 환아 가족들과 촬영한 사진.



캄보디아 깔멧병원에서의 길병원 수술팀이 수술후에 빈민가 심장병환자진료를 떠나는 모습(앞줄에 최창휴 교수, 박국양 교수, 뒷줄에 정미진 교수가 보인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2014년 말부터 몽골 환자들을 돕기 시작한 서울 성모 병원은 1년에 2회 이상 몽골 현지를 방문하여 환자들을 진단하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초청하여 수술을 진행하여 왔다. 2018년 현재까지 병원을 통한 자선 기금으로 50여명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도움을 주었다.



서울 성모 병원 흉부외과 이철 교수와 소아과 이재영 교수도 몽고 심장병 수술을 많이 진행하였다. 위 사진은 수술 후 완쾌되어 몽골로 돌아간 환자들과 함께 울란바토르에서 다시 만나 촬영한 것이다.

경북대학교 병원

2016~2017년에 걸쳐 경북대 병원 흉부외과에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방문하여 수술이 필요한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에 대한 의료 봉사를 시행하였다.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의 김웅한 교수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종욱 글로벌 의학 센터와 함께 팀을 이룬 경북대병원 흉부외과의 조준용, 이영옥, 장우성 교수 및 소아청소년과 김여향 교수, 그리고 경북대 병원의 심장수술팀은 2015년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180여명에 대한 심장 초음파를 이용한 심장병 검진을 시행하였고 그 중에서 수술이 긴급하게 필요한 환자들을 선별하여 현지에서 10여건의 개심술을 시행하였고, 현지에서 수술로 해결하지 못하였으나 역시 시급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다시 선별하여 직접 병원으로 초청하여 수술을 해주기도 하였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조준용 교수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소아심장전문 병원을 방문하여 20여건의 선천성 심장병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모든 수술을 집도하지 않고 30% 정도의 수술을 현지 의료진이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향후 그 비율을 높여 가도록 현지 의료진들을 초청,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현지 의료인들과 컨퍼런스를 통하여 수술 환자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 수술을 집도하 는 경북대 조준용 교수



카자흐스탄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경북대 조 준용 교수

분당 서울대병원

2004년부터 201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라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지의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현지 사정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해외 환자 대상의료 봉사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분당 서울대 병원은, 매년 현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환자들을 초청하여 수술을 해왔다. 봉사의 초반기에는 오목 가슴 등의 일반 흉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봉사 활동을 펼쳤고, 2008년에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을 몽골에서 초청하여 자선 단체의 지원을 받아 수술과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후천성 심장병에 대한 수술 지원을 위하여 박계현 교수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2014년부터는 직접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 임청, 김용진 교수를 포함한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위한 수술팀을 파견, 매년 1, 2회씩 수술 지원 해외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지인들과 수술할 환자에 대하여 토의하고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 임청 교수



현지의사들과 같이 집도하고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 임청 교수



캄보디아 현지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장 준비를 하는 분당 서울대 병원 수술팀. 당시 분당 서울대 병원 재직 중이던 김용진 교수 (가장 뒷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 세종병원 김응래 진료 과장 (가장 아래줄. 왼쪽에서 첫 번째, 당시 서울대 흉부외과 소속), 서울대 병원 곽재건 교수 (아래줄 왼쪽에서 두 번째)의 모습이 보인다. (2016년)

X

서울대 어린이병원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이흉부외과에서는 1999년부터 노준량, 김용진 교수가 연변 조선인 자치구 병원을 방문하여 연간 30건에서 많게는 70여건에 이르기까지 수술 지원을 하여왔고, 2004년부터는 세종병원 시절 김웅한교수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던 하얼빈 어린이 병원에 대한 지원에 김용진 교수도 동참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고,현지 의료인들과의 협조를 통하여 2018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술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 KOICA 근무로 군복무를 대신하며 현지의 심장 수술을 도왔던 현 세종병원 진료 과장 조성규 (당시 군복무)선생의 협조 요청으로, 김웅한 교수가 서울대 병원 자체의 인력 혹은 타병원으로 부터의 인력 협조로 수술팀및 중환자 관리팀과 진단팀 등을 구성하여 매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환자들에 대한 심장 초음파 검진과 개심술 지원을 해왔다.



몽골 울란바토르 제3병원에 선천성 심장병 수술 지원을 위하여 모인 국내 여러 병원 연합팀 (좌로부터 당시 건국대 마취통증의학과 윤태균 교수, 연세대 흉부외과 박한기 교수, 양산 부산대 흉부외과 김형태 교수, 서울대 흉부외과 김웅한 교수, 당시 세종병원 흉부외과 곽재건 진료 과장) (2013년)



우즈베키스탄에서 KOICA 근무를 하던 조성규 현 세종병원 진료 과장 (당시 군복무, 사진 왼쪽)과 서울대 병원 김웅한 교수 (사진 오른쪽)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선천성 심장병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 조성규 과장은 군복무 기간 동안 코이카 근무로 우즈베키스탄 현지 수술진의 개심술을 돕기도 하고 직접 집도를 하기도 하면서 현지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국의 동료들의 협조를 요청하여 더 많은 현지환자들이 수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현지 의료인들에 대한 초청 연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현재 자체적으로 매년 500건 이상의 선천성 심장 수술을 시행하는 심장 센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단순히 심장외과의 뿐 아니라 체외순환팀, 마취과 의사,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 의사 및 소아청소견과 심장 전문의 등팀 초청 연수를 받게 하여 매년 10여명의 네팔, 베트남, 에티오피아 현지 의사들이 방문하고 있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한 해외 어린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수술 치료를 넘어, 현지 의료인들로 하여금 현지 환자들을 직접 진단, 수술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차원의 지원이다. 김웅한 교수(현재 이종욱 글로벌센터장 겸임)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 글로벌 센터'의 기획과 원조 하에 에티오피아, 네팔에도 같은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해외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1999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해외에서 시행한 선천성 심장병 관련 수술 건수는 모두 670 여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진단하였으나 현지 수술 당시의 여러 사정상 현지에서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수술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준 환자도 130여명에 이르는 것을 집계되고 있다.



서울대 김웅한 교수의 해외심장병환자 수술 후에 현지 방문시 만난 환이들과 가족들 사진. 김웅한 교수는 해외 심장병 환자진료시 심장병환자 진료 외에도 고아원후원, 생활개선사업 등을 통해 현지 국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서울 아산병원

아산병원에서는 매년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초청하여 진료, 수술 치료를 돕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40여명의 선 천성 심장병 환자들에게 수술혜택을 베풀었으며 종격동 종양 환자도 초청하여 수술 치료를 지원한 바 있다.



아산병원에서 초청하여 수술을 시행 받은 활로씨 사징증 환자와 소아흉부외과의 윤태진 교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소아 청소년과의 이흥재 교수 (현 울산 보람병원)와 흉부외과의 전태국, 양지혁 교수팀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베트남 하노이의 National Hospital of Pediatrics 의 심장팀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Heart to Heart"라는 프로젝트로 하노이 현지를 12차례에 방문하여 협력 수술을 통하여 45건의 개심술을 시행하고, 현지 의료인들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에 걸쳐 삼성 병원에 초청, 연수하게 하여 모두 62명의 현지 의료인들이 팀을 이루어 방문하였다. 또한 현지 의료인들이 현지에서 수술적 치료 및 관리가 쉽지 않았던 환자들을 삼성 병원으로 이송하여 온 후에 협력 수술을 시행하는 등 현재는 연간 1000례에서 1500례에 이르는 환자들을 현지 의료인들이 수술적으로 치료하게 하는 큰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임상적인 측면뿐 아니라 현지 의료인들의 학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009년도와 2012년에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상호간의 경험과 학술적 성과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베트남 현지에서 수술 후 환자와 가족들과 함께한 삼성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이흥재 교수(가운데 맨좌 측)와 흉부외과 전태국 교수(뒷줄 우측에서 두 번 째), 앞줄 우측은 현지 흉부외과의사



베트남 현지 의료진들과 수술 환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이는 전태국 교수

세종병원 (부천)

부천 세종병원에서도 오래 전부터 해외 환자들을 돕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여러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1989년부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몽골, 러시아,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은 물론, 케냐, 스리랑카, 세네갈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현지 자선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세종 병원으로 초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매년 빠지지 않고 펼쳐 왔는데, 2018년 현재 1470여 명에 달하는 많은 해외 환자에게 도움을 주어왔다. 또한 세종 병원의 의료진들은 타병원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개인 휴가 등을 사용해서라도 의료 봉사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최근 2014~16년에는 한국심장재단의 지원하에 흉부외과 이창하 부장, 소아청소년과의 김성호 부장이 베트남에서 심장 외과의사는 물론, 소아청소년과의 심장 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의, 마취과 의사, 체외순환사 등으로 구성된 '선천성 심장병 수술팀'을 초청하여 1년간 연수를 받게 함으로써 세종병원의 오랜 노하우와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수술적 전략을 보고 익히게 하였다. 이후 이러한 연수팀이 귀국한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창하, 김성호 부장을 파견하여 현지에서의 자체적으로 구성된 수술팀에 의한 심장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추적관리도 하고 있다.



중국 하얼빈 아동 병원에서 현지 의료인과 수술 집 도 중인 당시 세종병원 곽재건 진료 과장(2011년)



세종병원에서 1년간 연수를 받고 돌아간 베트남 호치민 초레이 병원 의료진들과 베트남 현지에서 환자에 대해 토론하고 현지인들이 집도하고 있는 수술을 참관, 지도하고 있는 세종병원 흉부외과 이 창하 부장 (2016년)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어린이 병원을 중심으로 흉부외과 성시찬 교수를 비롯한 수술팀 (소아청소년과 심장 전문의, 체외순환사, 수술 장 간호팀, 마취과 전문의 등)이 2014년부터 캄보디아를 매년 방문하여 진단, 수술, 시술 등을 꾸준히 시행하여, 2017년 현재까지, 모두 25건의 개심술과 100건에 가까운 심장 초음파 진단과 심도자술, 심도자술을 통한 시술을 시행하였다



캄보디아 프놈펜 헤브론 메디컬 센터에서의 양산 부산대 어린이 병원 흉부외과 성시찬, 최광호 교수 팀(2017년 9월)



양산 부산대 성시찬 교수가 현지에서 수술후 회복 된 심장병어린이와 병실밖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 다.

X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소아 흉부외과 중심으로 1997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매년 해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초청하여 수술하여 왔으며,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키르기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의 아시아, 구소련 지역은 물론, 이라크, 우간다, 케냐, 아이티 등에서도 환자를 초정, 수술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초청 수술 환자는 약 130여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지에는 2001년부터 직접 수술팀을 구성, 파견하여 현지에서 수술 지원 및 현지 의료진 교육을 해오고 있다. 현지에서 수술 지원을 받은 환자는 9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 미얀마 등지에서 현지의 심장 수술에 관련된 의료진 (흉부외과 의사는 물론, 중재적 시술과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는 소아 심장 전문의, 수술장 간호팀, 중환자실 간호님, 소아 심장 마취 전문의, 체외순환사 등)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직접 초청하여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에 걸쳐 세브란스 병원의 진료 과정에 참관, 참여하게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로 인하여 초청 수술, 현지 수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장병에 대한 진단, 중재적 시술, 수술 등이 주로 현지 의료진의 손에 의하여 더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연세의 대 세브란스 병원 박영환 교수 (2009년)



베트남에서 현지 수술을 진행하는 바쁜 일정 중에 시간을 내어 현지 의료진에게 돼지 심장을 이용하여 심장의 해부학적인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 교수진 (가장 좌측: 박영환 교수, 좌 측에서 두 번째, 박한기 교수, 2008년)



미얀마 현지 수술 지원 이전에 현지 의료인들과 수술 전 환자들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토의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아 흉부외과 팀. 신유림 교수 (좌측에서 두 번째), 박영환 교수 (우측에서 세 번째) 가 참여하였다. (2016년)

전남대학교병원

2011년부터 해외의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해외 사업을 시작한 전남대 병원에서는 2018년 현재까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하여 왔다. 초반에는 수술이 필요한 방글라데시의 환자들을 검진하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초청하여 수술을 하는 봉사활동을 펼쳐 왔으며, 최근에는 심장 수술팀을 구성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의 헤브론 병원 현지를 방문 수술이 필요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에 대하여 직접 매년 7~8 건의 선천성 심장 수술을 시행하여 왔다.



세계 소아심장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전남대학교 병원 소아흉부외과 정인석 교수



전남대학교 병원 소아흉부외과 정인석 교수팀의 캄보디아 현지병원에서의 수술장면

충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 병원에서는 2011년 임승평, 강민웅 교수를 중심으로 중국 조선족 자치주를 찾아 성인 환자들을 대 상으로 흉강경을 이용한 폐암, 종격동 종양 수술을 시행하였고, 2017, 2018년에는 나명훈 교수가 스와질랜드 정부 병원을 방문, 2차례 방문 동안 40건에 달하는 동정맥루 수술을 시행, 관리하였다. 또한 유재현, 강신관 교 수팀은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매년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을 찾아 선천성 심장 수술을 8~9건씩 시행, 수술 후 관리를 마치고 돌아왔다.



연변대학병원을 방문한 충남대학교 임승평(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나명훈(오른쪽에서 세 번째) 교수팀



스와질랜드를 방문하여 동정맥루 수술을 시행한 충남대 의대 나명훈 교수(왼쪽에서 4번째)



캄보디아에서 선천성 심장병 환자를 수술하고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충남대 의대 유재현 교수

X

흉부외과의 미래

212 전공의 지원자 감소

215 가산금 제도 도입

216 통일을 대비한 흉부외과의 역할

220 우리는 흉부외과 가족

2018

전공의 지원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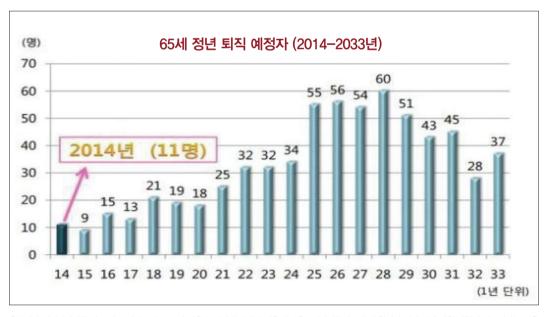
데일리메디의 정숙경 기자는 2014년에 기고한 의료전문 기사에서 흉부외과의 전공의 지원에 대한 최근추세를 잘 보여주었다. 이하 내용은 당시 기사전문이다.

"전국 수련병원 30곳 흉부외과 전공의 '0' 흉부외과 학회, 1993~2014년 현황 분석···"올 배출 흉부외과 전문의 30명 안팎"

지난해에 비해 다소 상향됐으나 여전히 올해도 흉부외과 수련을 마칠 전공의가 전국을 통틀어 30여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레지던트 1년차였던 2010년 당시에는 총 38명이 확보됐으나 6명이 중도하차해 인력부족 현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일 '대한흉부외과학회 레지던트 정원 및 레지던트 정원 확보(1993~2014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련병원 중 30곳에는 1년차부터 4년차까지 흉부외과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1993년 65명의 전문의가 배출된 데 비하면 20여년이 흐름 지금은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렇게 되면 일선 현장에서 '젊은' 흉부외과 의사를 만나는 일은 향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6월 현재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국군수도병원, 국립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에는 레지던트가 전무한 상태다. 원광대병원, 원자력병원, 을지대병원, 을지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인제대서울백병원, 인하대



흉부외과 퇴직예정자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2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이후에는 흉부외과전문의 부족이 현실이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대병원, 분당차병원, 한라병원, 한림대강동성심병원, 한양대구리병원 등에서도 레지던트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업무 부담 등 중도하차 전공의 계속 증가-십수년째 확보율 50% 미만"

실제 흉부외과를 선택했다가도 업무 부담으로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 역시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학회에 따르면 1993년 당시만 해도 71명 정원 중 65명을 확보하면서 전국적으로 수급 차질을 빚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 87명 정원 중 겨우 32명을 확보하는데 그치면서 충원율은 40%대로 주저앉았다. 흉부외과학회 심성보 기획이사(가톨릭대 성모병원)는 "전공의 확보율이 십수년째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중도하차 사례가 매년 발생. 수술 현장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04년에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1명, 2005년 분당서울대병원 1명, 2006년 고려대안암병원,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3명이 사표를 냈다. 2007년에는 건양대병원, 국립의료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원광대병원, 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에서 1명씩 9명이 퇴사했다. 2008년에도 서울성모병원, 성모병원, 경상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충북대병원에서 1명씩, 전남대병원에서 2명이 흉부외과를 떠났다. 2009년 역시 2명, 2010년에도 6명이, 2012년에도 2명이 중도하차해 전국적인 휴부외과 전공의 기근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흉부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행위 중 누락된 수기와 신기술에 대한 단시일 내 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인력 수요와 공급을 전망,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원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성보 기획이사는 "전공의들의 질적 문제도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함께 높은 위험도, 낮은 수가는 물론 대형병원 취직 자리가 줄어들고 개업까지 어려워져 설상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렇게 젊은 의사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시니어급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퇴직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앞으로 흉부외과 전문의 공황 상태가 올 것이 뻔하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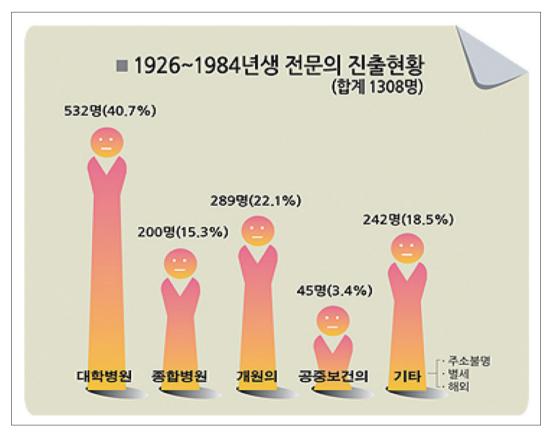
(데일리 메디 정숙경 기자 jsk6931@dailymedi.com)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2017년 세미나 (왼쪽부터 이재숙 원장, 한균인 원장, 박강식 원장, 김욱진 원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 회장)장 면. 흉부외과 전문의들은 흉부외과가 정부의 요양병원 가산점에서 제외되어 누구보다 중환자 관리에 자부심이 강한 회원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



최근 외과계 공통으로 전공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국회의원들조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4월 24일 있었던 국회토론회. 흉부외 과에서는 고대안암병원의 신재승 교수가 학회 총무로서 참여하였다.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의협신문에서 보도된 흉부외과 전문의의 진출현황

가산금 제도 도입

2009년 흉부외과는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정부의 초저수가 정책으로 외과계 특히 고도의 집중력과 인력 팀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흉부외과가 저수가 정책의 직격탄을 계속 맞아왔고 소위 보상 없는 사명만 강조당하는 의료계의 3D업종이라는 오명이 덧씌워지며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격감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누란지기의 난국을 타계하기 위하여 당시 학회 집행부인 조건현 이사장, 정경영 기획홍보위원장, 심성보 총무가 고군분투, 국회를 안방 드나들 듯이 찾아다니며 여야 국회의원들(박근혜, 심재철, 전혜숙, 전현희 의원 등)을 설득하고 여론, 언론에 호소하여 흉부외과 구하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며 그 결실로 비록 최선은 아닐지라도 그에 버금하는 결과인 흉부외과 가산금 제도 (명분을 더하기 위하여 외과도 추가됨)가 탄생하게 되었다. 절벽에 내몰린 흉부외과, 외과가 그나마 이러한 가산금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다시회생.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2018년 현재 이러한 가산금이 병원에 따라서 흉부외과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 흉부외과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산금 혜택을 받지 못한 병원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하여 자조적인 비판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흉부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시급한 현안에 대한 답변결과를 보면 정부에서 주는 가산금배분이 가장 큰 이슈임을 알 수 있다 (청년의사 2016년).

통일을 대비한 흉부외과의 역할

2018년은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간의 대화와 북미 정상대화로 온통 전 세계가 한반도에 관심을 주었던 한해였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실험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봉쇄가 극에 달할 즈음 시작된 대화분위기는 이제 당분간 조정국면을 거쳐 북한의 핵포기 선언 및 이행, 종전선언 및 평화조약으로의 이행, 북한의 기간산업에 대한 경험과 관광산업재개 등 순조로운 통일로의 과정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인도적 측면에서 의료인들의 교류가 예상되고 의약품지원과 치료, 병원설립과 장비지원 등이 이루어 질 것이다. 흉부외과 분야 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결핵환자 치료와 심장병 치료가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통일과 남북의료통합을 준비하며 북한의료를 돕는 목적으로 2014년 1월 창립하여 통일부에 사단법 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하나반도 의료연합의 경우 한국의 의료인들에게 북한의료 현황을 정확히 알리고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 역군을 세우기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를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진행해 오고 있다. 의료적으로는 북한의 대형병원과 남한의 대형병원이 MOU를 맺고 각 병원의 예산과 특성에 맞게 남북의 의료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어린이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북한에 평양의대병원과 김만유병원과 협력하여 한국의 흉부외과 의료진들이 방북하여 북한 심장병어린이 환자를 수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북한의료진이 심장병 환자를 모아두면 일정기간 한국의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방북하여 수술을 하고 수술 후 치료관리는 북한의사들이 할 수 있게 하는 정기적인 프로젝트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반도의료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또하나는 북한의 1차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전달하는 왕진가방 보내기(북한의료911)운동인데 왕진가방은 북한 실정에 맞게 한방과 치과의 간단한 발치기구가 포함되어 있고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혈당계. 상처봉합기구 등 처치용품이 들어있다. 현재 14개를 후

구분	대학명칭	90년대 초 개칭된 명칭
중앙대학	평양 의학대학	
	함흥 의학대학	정성 의학대학
	청진 의학대학	경성 의학대학
	평성 의학대학	봉화 의학대학
	개성 의학대학	안영애 의학대학
	원산 의학대학	송도원 의학대학
지역대학	해주 의학대학	장수산 의학대학
	사리원 의학대학	강건 의학대학
	신의주 의학대학	관제 의학대학
	혜산 의학대학	가림천 의학대학
	강계 의학대학	인풍 의학대학
	평남 의학대학	남포 의학대학
군의대학	김형직 군의대학	

북한에는 현재 중앙대학인 평양의대를 포함하여 총 13개의 의과대학이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대학병원은 평의대와 평양에 있는 김만유병원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복한의 보건일꾼 양성 대학 (의과대학)

원을 받아 12개를 여러 경로로 북한의사들에게 전달하였는데 매우 반응이 좋다. 북한의 의료발전을 위해 진행해야 할 부분은 제약공장, 의료소모품공장을 잘 갖추어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약회사와 건설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과 동업을 이루어 가는 노력도 하고 있다.

북한에서 현재 의사를 배출하는 대학은 〈표 2〉와 같다. 여기에 2017년에 김만유병원을 부속병원으로 하는 평양과기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북한의 의학대학은 남한과 같이 종합대학에 속한 단과대학 형식이 아닌 독립적인 대학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1개의 중앙 의학대학(입학생을 전국에서 모집하여 졸업 후 전국에 배치하는 대학)과 11개의 지역의학대학(각 도에 필수적으로 있는 대학으로 해당 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학생의 경우 입학 가능하며 졸업 후 해당 거주 지역에 배치하는 대학)으로 분류되며 의학대학 외에 각 도(직할시)에서 준 의사를 양성하는 11개의 고등 의학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서 간호사를 비롯한 말단 보건의료 일꾼을 양성하는 보건 간부학교, 간호사 양성소 및 간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평양의학대학은 중앙대학으로서 당 중앙 위원회 과학교육부와 내각 산하의 교육성의—고등교육부로부터 교육과정을 비롯한 졸업 후 배치까지 직접적인 지도·통제를 받는다. 각 지역에 있는 11개의 의학대학들은 해당 도(직할시) 당위원회 교육부와 인민 위원회 교육처로부터 지도·통제를 받게 되어있으며, 고등 의학전문학교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시(구역) 군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 교육과에 배속된다.

국가적으로도 향후 이러한 남북교류과 통일을 대비해서 흉부외과의 인력을 적정선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통일 대한민국의 흉부외과 전문의의 숫자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전쟁, 테러, 폭발, 화재 등 국가적 대량 재난은 물론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과 선박 항공기 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에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주요 재난에서 희생된 인명피해만 보아도 인명 손실의 규모는 날로 대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형 재난에서의 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게 생명구조 시스템이 가동되어야하는데 인명구조에 가장 적정한 분야의 전문의는 바로 흉부외과적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다. 군대가 군 인력을 적정선으로 유지하고 훈련하는 것은 현재 전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하기 위함인 것처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료의 하나인 흉부외과의 적정인력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만약을 위한 대비인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흉부외과 적정인력의 양성은 국가가 매년 정책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하나반도의료연합에서 추진하는 911왕진가방보내 기운동의 실제 모습



평양의대의 수술 장면 (2000년 10월 박국양 교수 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촬영한 사진)



평양의대의 수술 장면.



2004년 5월 평양의과학 토론회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사진. 맨 좌측 충남대 임승평 교수 옆으로 북한에서 1951년 제일 먼저 심장 판막수술(폐쇄식 승모판막 절개술)을 해서 원사칭호를 받으신 분과 맨 우측은 박국양 교수이다.



평양의학과학 토론회 참석(2004년 5월 1일)을 마 치고 인민문화궁전 앞에서 촬영한 사진 (맨 우측이 박국양 교수)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열린 남북 정상간 회담(2018 년 4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5회 통일의학 포럼 (2014년 7월 16일). 이날 주제는 북한 사회경제, 인구변화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심폐질환 역학 및 통일을 준비하는 흉부외과의 역할'로 흉부외과학회 차원에서 참여하였다. 주최: 국회의원 안홍준, 김춘진, 문정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우리는 흉부외과 가족

흉부외과학회에는 유난히 가족들이 대를 이어 회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흉부외과 회원인 경우도 있고 장인과 사위가 회원이 되어 흉부외과 가족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가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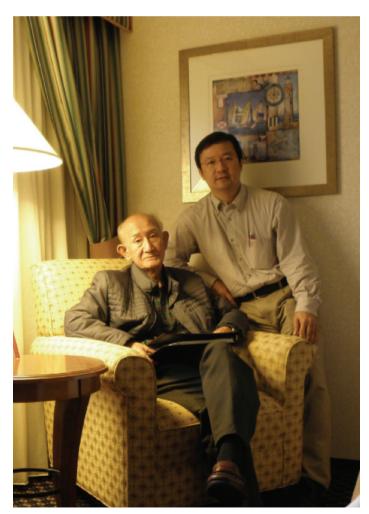
부자지간에 대를 이어 흉부외과를 하는 가족으로는 이영균 교수(1944년 서울의대, 별세)와 이기진 교수(1972년 서울의대, 심장외과 미국거주), 김근호 교수(1949년 전남의대, 별세)와 김영학 교수(1978년 한양의대, 한양 대학교병원), 김의윤 교수(1962년 부산의대, 별세)와 김수철 교수(1989년 경희의대, 경희의료원), 김종환 교수(1957년 서울의대, 별세)와 김영태 교수(1988년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이동준 교수(1959년 전남의대, 별세)와 이석기 교수(1991년 조선의대, 조선대학교병원), 최인환 원장(1963년 전남의대, 최외과의원)과 최창휴 교수(1995년 단국의대, 가천대학교 길병원), 유영선 교수(1964년 경북의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와 유정우 원장(1994년 경북의대, 털털한 피부과), 최수승 교수(1972년 경북의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와 최세훈 교수(2002년 서울의대, 물산대학교 서울이산병원), 송명근 교수(1976년 서울의대)와 송준영 전공의(2009년 중앙의대, 전북대학교병원), 한균인 원장(1976년 충남의대, 중앙요양병원)과 한성준 회원(2013년 충남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표원 교수(1978년 서울의대, 성교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와 박병준 회원(2005년 연세의대, 중앙대학교병원), 김기봉 교수(1981년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와 김민석 회원(2011년 서울의대, 공중보건의), 나국주 교수(1986년 전남의대, 전남대학교병원)와 나법세 회원(2013년 서울의대, 공중보건의)이 있다.

부부가 흉부외과 회원인 가족은 이현성 회원(1996년 연세의대, Baylor College of Medicine)와 장희진 회원 (2004년 서울의대, M.D. Anderson Cancer Center), 이상철 조교수(1998년 경북의대, 울산대학교병원)와 한원 경 과장(2002년 경북의대, 대구파티마병원), 이홍규 회원(2006년 경북의대, 대구기독병원)과 이영옥 교수 (2004년 경북의대, 경북대학교병원) 회원이 있다.

또한 흉부외과 회원이 장인, 사위, 매형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는 이성구 교수(1958년 경북의대, 영남실버요양 병원, 전상훈 교수 장인), 전상훈 교수(1984년 경북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성구 교수 사위), 박창권 교수 (1979년 충남의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전상훈 교수 매형) 회원이 있다.



이영균 교수(1944년 서울의대 졸업, 1994년 작고)와 아들 이기진 선생(1972년 서울의대 졸업. 미국 거주)



김종환 교수(1957년 서울대 졸업, 앞줄 가운데)와 아들 김영태 교수 (1988년 서울대 졸업, 서울대병 원)



이성구 교수(1958년 경북의대 졸업, 영남실 버요양병원, 전상훈 교수 장인)와 박창권 교 수(1979년 충남의대 졸업, 전상훈 교수 매형) 그리고 전상훈 교수(1984년 경북의대 졸업, 이성구 교수 사위) 가족



최인환(1963년 전남의대 졸업. 최외과의원)원장과 이들 최창휴 교수(1995년 단국의대졸업, 가천대 길병원) 가족





유영선 교수(1964년 경북의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와 유정우 원장(1994년 경북의대, 털털한 피부과)



최수승 교수(1972년 경북의대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와 아들 최세훈 교수(2002년 서울의대 졸업,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한균인 원쟁(1976년 충남의대 졸업, 중앙요양병원)과 아들 한성준 회원 (2013년 충남의대 졸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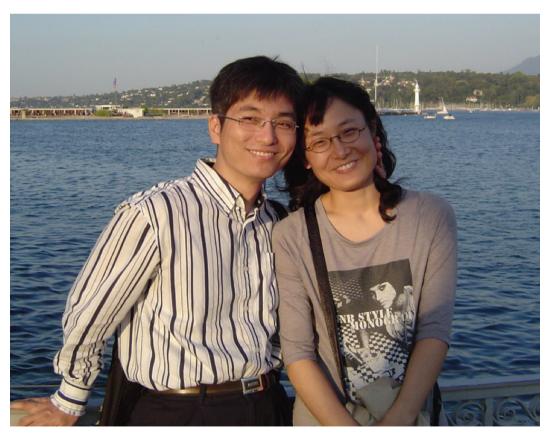
미국 AATS학회(2017년)에 참석한 김기봉 교수(1981년 서울의대 졸업, 서 울대학교병원)와 아들 김민석 회원 (2011년 서울의대 졸업, 공중보건의)



최준영 교수(1983년 서울의대 졸업, 경상대학교병원)와 아들 최진석 회원(2013년 부산의대 졸업, 공중보건의)



나국주 교수(1986년 전남의대 졸업, 전남대학교병원)와 나법세 회원(2013년 서울의대 졸업, 공중보건의)부자간의 정다운 산행모습



이상철 조교수(1998년 경북의대 졸업, 울산대학교병원)와 한원경 과장(2002년 경북의대 졸업, 대구파티마병원) 부부



PICTORIAL HISTORY AND PIONEERS OF KOREAN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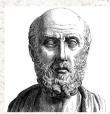
XII

부록

- 228 대한민국 흉부외과 연대기
- 238 흉부외과 역대 회장 및 이사장
- 247 타임캡슐 저장내용
- 248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250 역대 흉부외과 학회 개최연도 및 장소
- 255 화보집 그림·사진·시·서예
- 263 흉부외과 역사기록위원 명단

대한민국 흉부외과 연대기

World History



Hippocrates

Hippocrates

Rib trephination for Empyema

BC 400

Barron Larrey

(나폴레옹의 주치의) -기흉치료

1798

Doyen and Tuffier in France

Empyema의 surgical drainage. Underwaterseal drainage 시작. Primitive lung resection

1800년대 후반



Dr. William Halsted

Willian Halsted (Johns Hopkins)

근대 외과수술의 토대

19세기 후반

Korean History



Dr.Rudolph Rehn

Rudolf Rehn (Frankfurt)

심장(우심실) 자상을 봉합

1896



Evarts A. Graham(1883-1957)

Evarts Graham

Closed surgical drainage. Eggers - decortication시작

1900년대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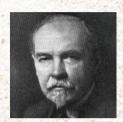


Alexis Carrel(1873-1944)

Alexis Carrel

혈관봉합. 동물에서의 CABG시작

1910



Franz Torek(1861-1938)

Torek

Esophageal resection

1913

1898

전주 예수병원

1899

대구 동산병원

1905

광주 기독병원



전주 예수병원의 초창기 직원들의 모습



대구 동산병원의 시작 (제중원)

1909

이재명에 의한 이완용 암살미수사건으로 대한의원에서 이완용 흉곽봉합수술 및 Thoracente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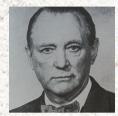
이재명(좌측)의인과 을사오적중 한명인 이완용(우측)



광주제중원의 시작당시 건물



Dr. Sauerbruch



Carl Semb(1895-1972), Ulleval Hospital, Oslo

Sauberbruch and Oslo⊆ Dr. Semb

Thoracoplasty 시작. 결핵치료법으로 Collapse therapy도입

1914-1930



Dr. Rudoph Rehn

Ludolph Rehn, Viktor Schmiedenem

심막절제술

1920

Souttar

손가락에 의한 승모판막확장술

1925

Grey Turner in London

Pull-thorough operation for Esophageal Ca. (1980s에 부활)

1930



Dr. Robert Gross

Robert Gross (Boston)

PDA 수술

1938

Tudor Edwards, Churchill, Blades, and Kent

Dissection lobectomy의 발전

1940



Dr. Alfred Blalock

Alfred Blalock

B-T shunt. Robert Gross, Clarence Crafoord - COA 수술

1945





Dr. Dwight Harken

Brock (England), Charles Bailey and Dwight Harken (USA)

Closed mitral commissurotomy

1948



Dr. Arthur M. Vineberg

Arthur M. Vineberg

Vineburg operation (IMA into LV myocardium)

1950



심장판막삽입술 (하행대동맥)

1951



Dr. Walton Lillehei

Walton Lillehei

저체온법하에 개심술 (개심술의 아버지)

1952

Lewis

Two-phase esophageal operation

1946

1947

서울의대 한격부 교수. 교약성 심낭염에 대한 심낭적출술 보고(5월)



한격부 교수

1948

국립마산결핵요양소 고병간/유승화 교수. 폐결핵 환자에서 흉곽성형술 성공 (10월 6일)



고병간 교수

1949

대구의대 (현 경북의대) 고병간/유승화 교수. 폐엽절제술 (lobectomy) 성공 (5월 5일)

대구의대 (현 경북의대) 고병간 교수. 전폐적출술 (Pneumonectomy) 성공(6월 7일)

1950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호 파견



1952

Frank C. Spencer 한국전쟁에서 최초로 하지 총상환자에서 혈관봉합술 시작

1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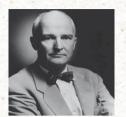
전남대 김영섭 교수. 선천성폐동맥 판막 확장수술시작



한국전쟁에 참가한 Dr. Frank Spencer (좌측에서 두 번째)



김영섭 교수의 근영



Dr. John Gibbon

John Gibbon

심폐기를 이용한 ASD 수술

1953

Lillehei

Crosscirculation으로 VSD 봉합술. Dubost - mitral dilator개발

판막치환술 1954

1956

1959

국립의료원 유회성 과장. 양잿물에 의한 식도협착환자에서 식도재건술 시작

국립의료원 2대 과장인 Frank Bergan. 폐쇄식승모판막성형술

1961

경북의대 이성행 교수. 저체온법을 이용한 심방중격결손증 수술 성공(9월 13일)



1950-1953 한국전쟁

이동외과병원(MASH,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 활동.



MASH(이동외과병원)에 출연중인 배우들

1953

마산 제36병원, 이찬범 교수, 폐절제술시작(3월)



Dr. Schimert와 이찬범 교수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흉부외과의국원들

1955

부산 침례병원

1956

세브란스병원 홍필훈 교수. 폐쇄식승모판막성형술 성공(9월 6일)



1957

서울대 이찬범 교수. TOF환자에서 B-T shunt 시작

세브란스 홍필훈 교수. TOF환자에서 Potts-Smith Shunt 시작

1958

Donald Murray

대동맥동종이식

국립의료원에 Siemens 연속촬영기 도입 (1초에 6매)

심도자검사의 시작(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스칸디나비아 3국에 의한 국립의료원 준공.

서울대 이찬범 교수. 폐쇄식승모판막성형술(10월)



1955-1962

미네소타 프로젝트시행 (전쟁후 한국 지원사업 -이영균, 이찬범 교수 등 서울대학병원 교수진 77명이 미네소타에서 연수)



Dr. Lillehei(맨 좌측)와 이영균 교수 (우측에서 두 번째)

Dr. Schimert (미네소타대학 흉부외과)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파견근무, 이영균/이찬범 교수 지도



Dr. Schimert



Dr. Rene Favaloro



Christiaan Barnard (1922-2001)

Vasilii Kolessov (Peterburg)

LIMA to LAD 문합

1964

Rene Favaloro

Saphenous vein CABG

Christiaan Barnard

심장이식

1967

McKeown

Three phase esophageal operation with cercical anastomosis

1976

1962

세브란스 홍필훈 교수. 저체온법을 이용한 심방중격결손증 수술

국립의료원 3대 과장인 Axel Sanderud, 저체온법을 이용한 심방중격결손증 수술

세브란스 홍필훈 교수. 저체온법을 이용한 승모판막절개술 성공 (6월 8일)



1963

서울의대 이영균 교수. 심폐기를 이용한 심방중격결손증 수술 성공(3월 26일)



세브란스 홍필훈 교수. 심폐기를 이용한 심방중격결손증 수술(11월 20일)

1968

대한흉부외과학회 창립 (가톨릭의대 강당, 초대 회장에 서울대 한격부 교수, 부회장에 김기전, 이사장에 이영균, 감사 서경필, 총무 손광현(5월 18일)



대한흉부외과학회 창립(1968.5.18.)

서울대 김종환 교수. 대동맥판막치환술 성공(6월 7일)



1977

의료보험시작 (공무원, 300인 이상사업장)

세브란스 홍승록 교수. 관상동맥이식술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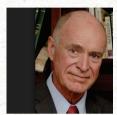


1978

조범구 교수. 세브란스병원에 심정지액 도입

DeVries

인공심장이식 (Jarvik Heart)



Dr. Bruce Reitz

Bruce Reitz(Stanford)

심장폐이식

1982

1992

서울아산병원 송명근 교수. 심장이식성공(50세 여성 말기심부전 환자, 11월 11일)



1983

제6차 아시아 태평양 흉부 및 심장혈관학회 개최(서울 롯데호텔). Dr. Lillehei참석 (4월 20-23일)

1984

새세대 심장재단 (현 한국 심장재단)의 설립



레이건대통령내외분과 심장병어린이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심장병환아 돕기사업 시작

1996

연세대 이두연/ 백효채 교수팀. 일측 폐이식술 성공



이두연 교수

제4차 아시아 심장혈관외과학회 (서울 워커힐 호텔, 5월 15일-17일)



Robotic Surgery 시작

2000

1997

가천대 길병원 박국양 교수. 심장 · 폐동시이식 성공 (12세 복잡심기형 여아 4월 20일)

1999

구세군 심장병 수술사업시작



2000

연세의대 장병철 교수. Bridge to Transplant 성공(Heartmatel). 1년 반후 심장이식술 성공(7월)



2000년대 초

OPCAB 도입

2000년대 중반

로봇수술 및 ECMO 도입



삼성의료원의 에크모 1000례 기념식

2018

대한흉부심장 혈관외과학회 50주년 기념, 서울 워커힐 호텔

2007

에크모환자에서 폐이식성공, 서울대 병원 에크모팀

2012

흉부외과 역사기록위원회 출범

노환규회원. 37대 의사협회 회장 취임



2015

흉부외과 백서 출판(213페이지)



삼성의료원 조양현 교수. 3세대 인공심장이식술 성공 (Heartmate II, 8월)

2017

아시아 흉부심장혈관학회 (ASCVTS). 서울 코엑스 (3월 23일)

국내생체 폐이식성공, 서울 아산병원 (10월 21일)



흉부외과 역대 회장 및 이사장

1) 역대 흉부외과 학회장



초대1968-70년역대 회장한격부이사장(총무)이영균(손광현)



2대1970-72년역대 회장이영균이사장(총무)이홍균(김세화)



3대1972-74년역대 회장유승화이사장(총무)홍승록(조범구)



4대1974-76년역대 회장이성행이사장(총무)유회성(유영선)



5대1976-77년역대 회장이홍균이사장(총무)김근호(박영관)



6대1977-78년역대 회장김진식이사장(총무)김근호(박영관)



7대1978-79년역대 회장홍승록이사장(총무)이영균(노준량)



8대1979-80년역대 회장유회성이사장(총무)이홍균(곽문섭)



9대1980-81년역대 회장김근호이사장(총무)홍승록(조범구)



10대1981-82년역대 회장이영균이사장(총무)유회성(이정호)



11대1982-83년역대 회장홍필훈이사장(총무)김근호(지행옥)



12대1983-84년역대 회장이성행이사장(총무)서경필(김용진)



13대1984-85년역대 회장이홍균이사장(총무)서경필(김용진)



 1985-80년

 역대 회장
 홍승록

 이사장(총무)
 손광현(조광현)



15대1986-87년역대 회장유회성이사장(총무)손광현(조광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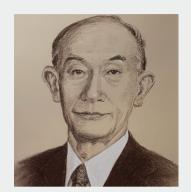
16대1987-88년역대 회장김근호이사장(총무)김종환(김주현)



17대1988-89년역대 회장서경필이사장(총무)김종환(김주현)



18대1989-90년역대 회장손광현이사장(총무)유세영(박주철)



19대1990-91년역대 회장김종환이사장(총무)유세영(박주철)



20대1991-92년역대 회장이동준이사장(총무)김형묵(김광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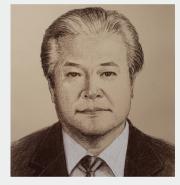
21대1992-93년역대 회장김세화이사장(총무)김형묵(김광택)



22대1993-94년역대 회장유세영이사장(총무)조범구(장병철)



23대1994-95년역대 회장정황규이사장(총무)조범구(장병철)



24대1995-96년역대 회장김형묵이사장(총무)노준량(김원곤)



25대1996-97년역대 회장조범구이사장(총무)노준량(김원곤)



26대1997-98년역대 회장유영선이사장(총무)노준량(김원곤)



27대1998-99년역대 회장박영관이사장(총무)노준량(김원곤)



28대1999-2000년역대 회장양기민이사장(총무)곽문섭(박재길)



29대2000-2001년역대 회장지행옥이사장(총무)곽문섭(박재길)



30대2001-2002년역대 회장노준량이사장(총무)김주현(이정렬)



31대2002-2003년역대 회장이 영이사장(총무)김주현(이정렬)



32대2003-2004년역대 회장김공수이사장(총무)박주철(김범식)



33대2004-2005년역대 회장김규태이사장(총무)박주철(김범식)



34대2005-2006년역대 회장김주현이사장(총무)강면식(박영환)



35대2006-2007년역대 회장이선희이사장(총무)강면식(박영환)



36대2007-2008년역대 회장조광현이사장(총무)조건현(심성보)



37대2008-2009년역대 회장이두연이사장(총무)조건현(심성보)



38대2009-2010년역대 회장김상형이사장(총무)안 혁(김경환)



39대2010-2011년역대 회장우종수이사장(총무)안 혁(김경환)



40대2011-2012년역대 회장김용진이사장(총무)정경영(문동석)



41대2012-2013년역대 회장최순호이사장(총무)정경영(문동석)



42대2013-2014년역대 회장장병철이사장(총무)선 경(신재승)



43대2014-2015년역대 회장성숙환이사장(총무)이정렬(신재승)



44대2015-2016년역대 회장박창권이사장(총무)심성보(서종희)



45대2016-2017년역대 회장조재일이사장(총무)심성보(서종희)



46대 2017-2018년

역대 회장 김기봉

이사장(총무) 오태윤(윤효철)



2) 역대 흉부외과 이사장(총무)



1968-70년 1978-79년

이영균(손광현) 이영균(노준량)



1970-72년 1979-80년



이홍균(김세화) 이홍균(곽문섭)



1972-74년 1980-81년

홍승록(조범구) 홍승록(조범구)



1974-76년 1981-82년

유회성(유영선) 유회성(이정호)



1976-78년 김근호(박영관) 김근호(지행옥) 1982-83년



1983-85년 서경필(김용진)



1985-87년





1987-8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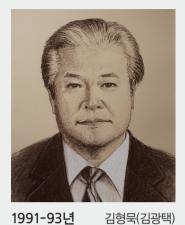


김종환(김주현)



1989-91년

유세영(박주철)







조범구(장병철)

1993-95년



1995-99년





1999-2001년 곽문섭(박재길)



2001-2003년 김주현(이정렬)



2003-2005년 박주철(김범식)



2005-2007년 강면식(박영환)



2007-2009년 조건현(심성보)



2009-2011년 안 혁(김경환)







2013-2014년 선 경(신재승) **2014-2015년** 이정렬(신재승)





2015-2017년 심성보(서종희)



2017-2018년 오태윤(윤효철)

타임캡슐 저장내용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25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요 사료를 특수 제작한 타임캡슐에 담아두었다. 타임캡슐에 대한 의견은 오태윤 이사장이 제안하였으며 김기봉 회장과 상임이사회, 특히 임청 상임이사의 후원과 노력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향후 흉부외과 학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68년에 개봉하여, 후배들에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의 찬란한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꿈과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달라는 우리의 숭고한 뜻을 전해주기 위함이다. 50년 후 우리 흉부외과의 후배들이 또 100년, 500년 후에 개봉할 자랑스런 타임캡슐을 담아주기 바란다.

*** 타임캡슐의 저장 내용 ***

- 1.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백서: 2015년 발간
- 2.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관련 물품
 - (1) 창립 50주년 화보집: 2018년 발간
 - (2) 창립 50주년 기념 동영상
 - (3) 창립 50주년 기념 시화전 출품작
 - (4) 흉부외과 관련 홍보물, 보도자료, 기념품 등
 - (5) 기타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
- 3. 학회 홈페이지 관련 자료: 회의록, 사진 및 동영상 자료
- 4. 기타 학회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자료들







타임캡슐 제작 치수도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성명	입금액(원)	성명	입금액(원)
박영관	50,000,000	오중환	2,000,000
한수환(한격부)	10,000,000	원용순	2,000,000
이정렬	7,000,000	이석기	2,000,000
정경영	5,000,000	이정철	2,000,000
최종범	5,000,000	이종태	2,000,000
신재승	4,000,000	임창영	2,000,000
김상형	3,000,000	장병철	2,000,000
성숙환	3,000,000	전상훈	2,000,000
이재원	3,000,000	전태국	2,000,000
박영환	2,500,000	조광현	2,000,000
유경종	2,100,000	조재일	2,000,000
김경환	2,000,000	최준영	2,000,000
김기봉	2,000,000	최용수	1,900,000
김영대	2,000,000	이현주	1,500,000
김주현	2,000,000	강창현	1,000,000
나찬영	2,000,000	금동윤	1,000,000
박재길	2,000,000	김공수	1,000,000
박창권	2,000,000	김관민	1,000,000
백완기	2,000,000	김규태	1,000,000
백효채	2,000,000	김도완	1,000,000
백희종	2,000,000	김수성	1,000,000
성시찬	2,000,000	김영진	1,000,000
신제균	2,000,000	김영태	1,000,000
심성보	2,000,000	김용진	1,000,000
안병희	2,000,000	김웅한	1,000,000
안 혁	2,000,000	김재현	1,000,000

성명	입금액(원)	성명	입금액(원)
김종환	1,000,000	이진구	1,000,000
김한용	1,000,000	이창영	1,000,000
김혜선	1,000,000	이 철	1,000,000
나국주	1,000,000	임 청	1,000,000
남진혜	1,000,000	임홍국	1,000,000
박계현	1,000,000	장기경	1,000,000
박인규	1,000,000	장우성	1,000,000
박정준	1,000,000	정성운	1,000,000
박표원	1,000,000	정성호	1,000,000
박한기	1,000,000	정철현	1,000,000
성용원	1,000,000	조대윤	1,000,000
신윤곤	1,000,000	조범구	1,000,000
양지혁	1,000,000	조석기	1,000,000
오세진	1,000,000	조종호	1,000,000
오태윤	1,000,000	주석중	1,000,000
우종수	1,000,000	최광호	1,000,000
원태희	1,000,000	최세영	1,000,000
유병수	1,000,000	최세훈	1,000,000
이두연	1,000,000	최재웅	1,000,000
이미나	1,000,000	최창휴	1,000,000
이 섭	1,000,000	최필조	1,000,000
이성행	1,000,000	한승세	1,000,000
이양행	1,000,000	황호영	1,000,000
이영	1,000,000	정진우	100,000
이응배	1,000,000		
합계	210,100,000		

대한흉부심장혈관학회 발전 후원금 현황(2010.6-2018.8)

역대 흉부외과 학회 개최연도 및 장소

1) 국제학술대회

회차	일시	장소	총 연제
제6차 아시아홍부및심장혈관학회 (The 6th Asian Congress for w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1983. 4. 20 ~ 24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제4차 아시아심장혈관외과학회 (The 4th Annual Meeting of Asian Society for Cardiovascular Surgery)	1996, 5, 15 ~ 17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제10차 아시아심혈관외과학회 (The 10th Annual Meeting of the Asian Society for CardiovascularSurgery)	2002. 4. 17 ~ 19	제주 신라호텔	22
제19차 아시아홍부심장혈관외과학회 (The 19th Biennial Congress of Association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ons of Asia)	2009. 10. 25 ~ 28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16
제45차 추계학술대회 및 ISMICS 2013 Winter Workshop (The 45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Thoracic & CardiovascularSurgery and ISMICS 2013 Winter Workshop)	2013. 11. 7 ~ 9	The-K 서울호텔	207
제25차 ASCVTS 및 춘계통합학술대회 (The 25th ASCVTS & KTCVS)	2017. 3. 23 ~ 26	서울 코엑스	226
제19차 CWIG 및 제32차 춘계통합학술대회	2018. 6. 13 ~ 15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	122

2) 춘계학술대회

회차	일시	장소	총 연제	총 참석자
제1차 춘계	1985. 5. 16 ~ 18	대전 유성관광호텔	6	
제2차 춘계	1986. 5. 8 ~ 9	설악파크호텔	8	
제3차 춘계	1987. 5. 14	서울 워커힐호텔	10	
제4차 춘계	1988. 5. 19 ~ 21	정읍 내장산관광호텔	12	
제5차 춘계	1989. 5. 18 ~ 20	부산 하얏트호텔	12	
제6차 춘계	1990. 5. 24 ~ 26	전남대학교병원 대강당	11	
제7차 춘계	1991. 5. 17 ~ 18	제주 그랜드호텔	7	
제8차 춘계	1992, 5, 22 ~ 23	대전 리베라유성호텔	11	
제9차 춘계	1993, 5, 21	경주 조선호텔	11	
제10차 춘계	1994. 5. 20	도고글로리콘도	11	
제11차 춘계	1995, 5, 19	대전 대덕호텔롯데	10	
제12차 춘계	1996. 5. 15 ~ 17	서울 워커힐호텔	_	국제학회
제13차 춘계	1997. 5. 16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21	
제14차 춘계	1998, 5, 22	천안 상록리조트	21	
제15차 춘계	1999. 5. 20 ~ 21	천안 상록리조트	27	101
제16차 춘계	2000. 6. 1 ~ 2	제주 롯데호텔	_	502
제17차 춘계	2001. 6. 7 ~ 8	무주 티롤호텔	38	
제18차 춘계	2002. 4. 17 ~ 19	제주 신라호텔	22	170
제19차 춘계	2003. 6. 12 ~ 13	경주 현대호텔	37	682
제20차 춘계	2004. 6. 10 ~ 11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37	781
제21차 춘계	2005. 6. 9 ~ 10	정동진 썬크루즈호텔	35	816
제22차 춘계	2006. 6. 8 ~ 9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32	805
제23차 춘계	2007. 6. 7 ~ 8	대구 인터불고호텔	20	853
제24차 춘계	2008. 5. 22 ~23	라마다 플라자 청주 호텔	36	948
제25차 춘계	2009. 5. 28 ~ 29	강원도 하이원호텔	33	948
제26차 춘계	2010. 6. 3 ~ 4	경주 현대호텔	34	951
제27차 춘계	2013. 5. 23 ~ 25	롯데부여리조트	13	767
제28차 춘계	2014. 6. 20 ~ 2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	16	648
제29차 춘계	2015. 8. 7 ~ 8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	12	655
제30차 춘계	2016. 6. 17 ~ 18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13	719
제31차 춘계	2017. 3. 23 ~26	서울 코엑스	226	1493
제32차 춘계	2018. 6. 14 ~ 15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	122	780

3) 추계학술대회

회차	일시	장소	총 연제	총 참석자
제1차 학술대회	1969. 5. 24	서울 앰배서더호텔		
제2차 학술대회	1970. 6. 20	서울 앰배서더호텔		
제3차 학술대회	1971. 5. 29	서울 앰배서더호텔		
제4차 학술대회	1972. 5. 6	경주 다보호텔		
제5차 학술대회	1973. 5. 26	서울 뉴서울호텔		
제6차 학술대회	1974. 5. 25	부산 극동호텔		
제7차 학술대회	1975. 5. 24	서울 국립의료원 강당		
제8차 학술대회	1976. 5. 22	경북대학교병원 강당		
제9차 학술대회	1977. 10. 22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제10차 학술대회	1978. 10. 20	부산대학교 학생회관		
제11차 학술대회	1979. 10. 20	서울대학교병원 A강당		
제12차 학술대회	1980. 10. 18	전남대학교 학생회관		
제13차 학술대회	1981. 10. 15	서울 코엑스 국제회의실		
제14차 학술대회	1982. 10. 29	대구 계명대학교 강당		
제15차 학술대회	1983. 10. 21 ~ 22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77	
제16차 학술대회	1984. 10. 19 ~ 20	부산 조선비치호텔	87	
제17차 추계	1985. 9. 19 ~ 21	서울 올림피아호텔	85	
제18차 추계	1986, 10, 16 ~ 18	서울 워커힐호텔	83	
제19차 추계	1987. 10. 22 ~ 23	경주 조선호텔		
제20차 추계	1988, 10, 20 ~ 22	서울 워커힐호텔	66	
제21차 추계	1989. 10. 18 ~ 20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65	
제22차 추계	1990. 10. 24 ~ 26	신라호텔	74	
제23차 추계	1991. 10. 23 ~ 25	신라호텔	82	
제24차 추계	1992, 10, 7 ~ 9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94	
제25차 추계	1993. 10. 20 ~ 22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97	
제26차 추계	1994. 10. 20 ~ 21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110	
제27차 추계	1995. 10. 19 ~ 20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139	
제28차 추계	1996. 10. 17 ~ 18	서울교육문화회관		
제29차 추계	1997. 10. 30 ~ 31	서울교육문화회관	185	
제30차 추계	1998. 10. 22 ~ 23	서울교육문화회관	201	
제31차 추계	1999. 10. 14 ~ 15	서울교육문화회관	179	559

회차	일시	장소	총 연제	총 참석자
제32차 추계	2000. 11. 9 ~ 10	서울교육문화회관		344
제33차 추계	2001. 11. 15 ~ 16	서울교육문화회관	198	597
제34차 추계	2002, 10, 31 ~ 11, 1	서울교육문화회관	198	
제35차 추계	2003. 11. 6 ~ 7	서울교육문화회관	163	717
제36차 추계	2004. 11. 4 ~ 5	서울교육문화회관	171	822
제37차 추계	2005. 11. 3 ~ 4	서울교육문화회관	151	876
제38차 추계	2006. 11. 2 ~ 3	서울교육문화회관	168	914
제39차 추계	2007. 11. 1 ~ 2	서울교육문화회관	164	904
제40차 추계	2008. 11. 6 ~ 7	서울교육문화회관	158	963
제41차 추계	2009. 10, 25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16	
제42차 추계	2010. 11. 7 ~ 9	대구 인터불고호텔	169	784
제43차 추계	2011. 11. 6 ~ 8	광주 김대중켄벤션센터	165	702
제44차 추계	2012. 11. 1 ~ 3	부산 롯데호텔	190	1075
제45차 추계	2013. 11. 7 ~ 9	The-K 서울호텔	207	1054
제46차 추계	2014. 10. 23 ~ 25	여수 디오션리조트	214	1004
제47차 추계	2015. 10. 22 ~ 24	강원도 하이원 컨벤션호텔	200	1118
제48차 추계	2016, 10, 20 ~ 22	대구 인터불고호텔	212	1032
제49차 추계	2017. 11. 6 ~ 8	제주 롯데호텔	230	1050
제50차 추계	2018. 10. 25 ~ 27	서울 워커힐호텔	(연제)	



화보집

- 그림·사진·시·서예 -

김응수 교수 축시

그대는 날쌘 짐승을 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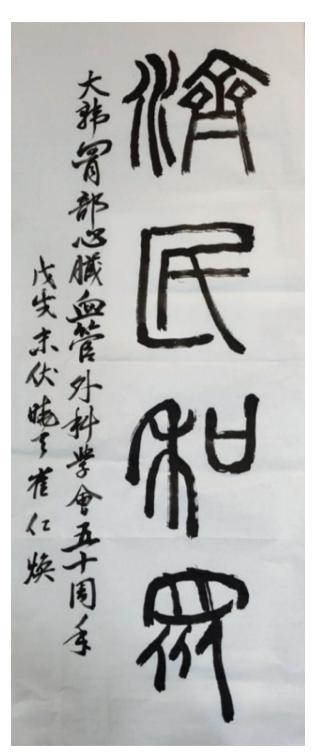
- 김응수 -

흥부심장혈관외과 의사들아 그대는 길들이지 않은 날쌘 짐승을 가슴 안에 기르고 있다

그대의 심장은 뜨거운 감성으로 일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가슴을 열고 피를 멈춘다

그대의 사랑은 예기치 않은 충격이다 땀 한 움큼과 습관화된 고민과 잠결에도 뒤척이는 잠버릇이 들숨을 쉬게 만들지만 어찌하랴,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 그대는 익숙한 낭패를 이겨내야 한다

선 살의 흉부심장혈관외과 의사들아 그대는 젊고, 할 일이 많다 그러니 오늘 주저하지 마라 누군가 우리나라 의료를 걱정하면 자신 있게 그대, 숨결 가득한 가슴 속의 날쌘 짐승을 보여주라



흥부외과 최창휴 교수(가천의대 길병원) 부친인 최인환 (흥부외과, 1963년 전남의대, 최외 과의원) 원장이 흉부외과 학회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휘호를 보내왔다. 제민화중(濟民和 衆)이란 뜻은 '사람을 구제하고 뭇 사람을 평화롭게 한다'이며 戰國書에서 나온 말이다.

강면식 교수 출품작



"제주 생각 1" 유화. 20F



"제주 생각 2" 유화. 20F



"여름 숲" 유화. 40M



"정선의 추억" 유화. 40P



"가을 숲" 유화. 40P



"봄" 유화. 30P



"해안" 유화 40F



"포구" 유화. 30S

우종수 교수 출품작



황혼, 90x102cm, oil paint on canvas



결혼, 79x102cm, oil paint on canvas



피렌체 길 위에서, 61x72cm, oil paint on canvas



아시시 언덕, 50x71cm, oil paint on canvas



가을, 33x44cm, oil paint on canvas



웃음, 37x45cm, oil paint on canvas

채헌 교수 출품작



제주 곶자왈(연필대생.386X256mm)



성산일출봉(색연필화.384X256mm)



어형어제(낚시친구) (인두화.300X240mm)



일구일학(인두화.300X24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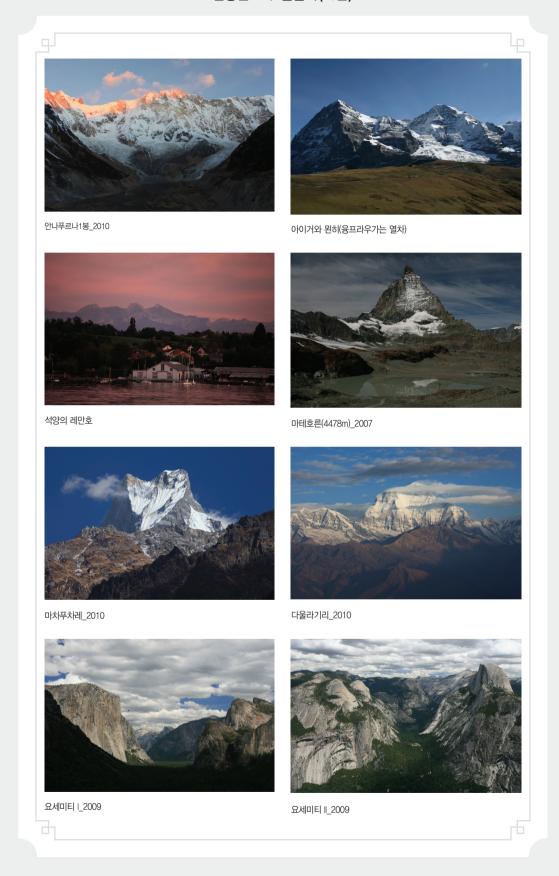


딱따구리(인두화. 300X24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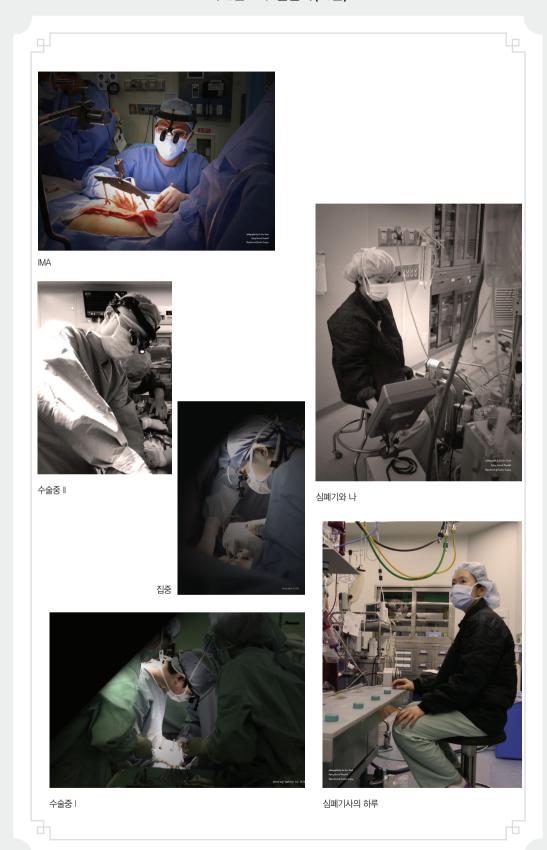


울산바위(인두화.300X240mm)

김동관 교수 출품작(사진)



곽재건 교수 출품작(사진)



흉부외과 역사기록위원 명단

위원	직급	소속
박국양	위원장	가천대 길병원
이성수	부위원장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 병원
김기봉	회장, 당연직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오태윤	이사장, 당연직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윤효철	총무, 당연직	경희의대 경희의료원
장병철	고문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김상형	고문	전남의대 전남대병원
신재승	위원	고려의대 안산병원
곽재건	위원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김근직	위원	경북의대 경북대병원
정한나	위원	경북의대 경북대병원
조덕곤	위원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김우식	위원	국립의료원
김도훈	위원	충북의대 충북대병원
최방실	간사	학회사무실

흉부외과 역사기록위원 명단 (2018년 10월 현재)



사진과 함께 보는 대한민국 흉부외과 역사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발행일 2018년 10월 25일

발행처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편집/제작르베르쏠 02-548-8903

본서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는 것을 금하며, 가공·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